



11

1983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3. 11호

(루게 433)



차 례

봉화리 추향나무	4
향도의 별 우러러 우리는 가네	4
태양솟아	5
빛나는 혁명의 별	5
꽃수레 꽃방석에 앉아	6
위대한 사랑의 궤도우에서	7
맑은 시내물	8
기 억	9
우리 당이 밝혀준 문학예술창작을 대중화할데 대한 방침과 그 빛나는 구현	16
회전로	21
나는 저런 처녀가 맘에 들더라	31
포성이 멎은뒤	32
충성의 대를 이어... ..	40
강바람	42

사랑과 증오의 노래	52
인간관계의 옳은 설정과 깊은 해명	53
비낱론꽃비단 강산에 수놓아가세.....	56
행군길에서	57
축 복	60
동트는 수도의 아침에	65
당원의 모습	66
인간내면세계의 탐구와 몇 가지 묘사문제	68
세월은 흘러가도	74
기슭을 떠나며 (외 1 편).....	76
충성의 열정 굶이치는 일터	78

봉화리 추향나무

리재환

만발한 꽃속에
그 영상 어려오고
목메이는 향기속에
그 뜻이 안겨와

우러르는 이 마음도
꽃으로 피고
그리는 이 가슴도
향기로 젖어라

꽃속에 뵈옵는
선생님의 모습
향기속에 새겨안은
숭고하신 뜻
아, 봉화리 추향나무여

철이 되어도
봄을 빼앗기고
봄이 와도
꽃을 피우지 못한
수난의 그 세월에

광복의 그 념원
해빛이 되어
원대하신 《지원》의 뜻
자양분이 되어
눈비를 이겨가며
억세게 뿌리내린 추향나무

가사

꽃과 함께 피어날
조선의 새봄
열매와 함께 무르익을
겨레의 행복
마음속에 바라시며
눈앞에 그리시며

한그루 추향나무
몸소 심고 가꾸셨을
선생님의 그 념원, 그 뜻
이 땅, 이 강산에 넘쳐라

수령님 펼쳐주신
락원의 꽃바다
오늘의 행복속에
그 꽃 함께 피고
그 향기 함께 풍기여
목메여 부르는 김형직선생님

우러르는 마음도
언제나 꽃으로 피고
그리는 가슴도
언제나 향기로 젖거니
아, 계절을 모르는 꽃으로
이 마음속에
사시절 풍기는 향기로
이 가슴속에
무궁토록 자라라
봉화리 추향나무여

향도의 별 우러러 우리는 가네

윤경남

백두산령봉에서 향도의 별 솟아
이 땅에 찬란한 빛을 뿌리네
그 빛발 따라서 조선은 가고
세기에 영광 영광을 떨치네

깊고깊은 막장에도 그 빛발 비치고
외진 섬 한끝에도 그 빛발 넘치네

향도의 별 빛나는 락원의 강산에
행복의 노래 울려퍼지네

인민의 축원속에 찬란히 빛나는
향도의 별 우러러 우리는 가네
모든 운명 맡기고 따르는 마음
혁명의 한길에 영원하리라

태양쏘아

후레디 가이판 에쓰꼬르씨아

김정일

그이는 위대한 **김일성** 주의기치
그이는 당과 인민의 영명한 지도자
그이는 공산주의혁명가의 빛나는 구감이시여라

그이는 붉은기발 날리는 백두밀영에서
영원한 태양으로 쏘아오르신
향도의 별이시여라
그이는 새형의 걸출한 영웅

디오게네스가 찾으려다 못찾은 천재
성서의 갈피갈피에서도 못찾은 위인
조선의 대동강물을
한그릇에 퍼담으실
만능의 지략을 지니신 분이시여라

그이께서는 주체의 해불을 높이 드시고
세상에 선포하셨다네
주체도

김일성 주의기치도
영원불멸함을

그이는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신분
주체의 빛발로 남북형제들의 가슴속을 환히 비
쳐주시나니
그이는 천만년 무궁토록
통일된 조선인민을 안아주시리

(필자 니까라파 《라지오 후투라》방송기자)

빛나는 혁명의 별

와샤야 디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
당신은 **김일성** 주의의 완벽한 체현자
당신은 **김일성** 주의위업의 참다운 계승자
불멸의 **김일성** 주의보물고에 특출한 기여를 하고
계시는
위대한 사상의 천재
당신은 혁명의 향도성
당신은 자주성의 고무자이십니다

당신은 휴식도 잠도 잊으시고
혁명과 건설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는
참된 불굴의 혁명가
당신은 자주세계의 위대한 지도자이십니다
세상사람들은
당신을 조선인민과 피압박인민들의 걸출한
지도자로 흠모합니다

위대한 당신께서 이끄시는 길
공산주의에로 가는 그 길우에

조국통일로 가는 그 길우에
김일성 주의 기발은 휘날립니다

빛나는 향도의 별빛 안고 나아가는 인민들은
남조선에서 제국주의를 몰아내고
민족의 분열을 가셔버릴것입니다

아 조국통일의 그날
남북형제들 서로 만나게 될
그날의 환희 그날의 끝없는 기쁨
가슴에 뜨거웁게 찾아드립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이 창립되어
조선통일이 이룩되는 날
우리가 그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세계를 격동시킬 그날
제국주의자들은 넋을 잃고 물러갔고
그 피뢰에겐 치욕스런 죽음이 차례지고
식민주의자들은 절망하여 쓰러질것입니다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
 당신은 **김일성** 동지의 참다운 후계자
 당신은 위대한 **김일성** 주의자의 구감이십니다
 혁명의 향도성 따라
 《고려》 땅에 자주 기쁨 꽃피고
 번영의 노래 하늘땅에 메아리칠 때
 진보적인 나라들은 환호소리 높이 울리며
 승리의 만세를 부를 것입니다
 세계의 혁명적인 유격투사들은
 총을 더욱 억세게 틀어잡고 싸울 것이며
 피압박인민들은

원썬들의 숨통을 무자비하게 짓눌러버릴 것입니다
 지구우의 원썬들은 마지막 한놈까지
 죽음의 나락에 처박힐 것입니다

하여 세계엔 진정한 평화가 도도히 흐르고
 공산주의는 완전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김일성 주의기치밑에 자주화된 세계에서
 인류가 받아안을 영광의 그날로 이끄시는
 빛나는 혁명의 별이시며 인류의 구성이신
김정일 동지 만세!

(필자 짐바브웨민족군 제5려단 땅크장)

꽃수레 꽃방석에 앉아

윤명숙

사랑의 꽃수레에 앉아
 사랑의 꽃방석에 앉아
 로동이 그대로 노래가 되고
 아름다운 예술이 되어
 무지개 비단물결을 누벼가는
 우리 공장

오는 봄도 맨먼저
 꽃망을 방긋 터치며
 저 하늘의 봄빛을 안고
 우리 공장 창문가에 찾아오는가

이 노래
 이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오늘은 오신다는 소식도 없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찾아오셨네

찾아오시자 첫걸음
 정방직장으로 들어서시는 그이
 환하게 미소를 지으시는 그 모습 우러러
 아, 꽃비단의 꽃들도

송이송이 억만송이 다투어 피어나는가
 충성의 마음과 마음들이
 그 사랑에 목이 매여 설레이는가

옷을 입을 때면
 서서 일하는 방직공들이
 먼저 생각나신다 하시며
 어제는 우리모두를 정방차 꽃수레에 태워주시고
 오늘은 또 꽃방석까지 깔아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아버지수령님께서 걱정하시던것이 풀리어
 마음이 놓인다 하시며
 그토록 기쁨에 찬 미소를 지으시는
 그이의 자애로운 영상이여

정방차에 앉아
 꽃방석에 앉아
 나는듯 실을 이으며
 한끝에서 한끝으로
 제비같이 누벼가는 모습을
 그이께서 오래도록 지켜보시여라

아, 해방된 이 강산
 새 조국 건설의 날에
 어머니와 함께 오셨던 친애하는 그이
 방직공들의 힘든 일손을 심려하시던
 어머니의 그 뜨거운 마음이신가

밀영의 귀틀집에서
한조박 한조박 천을 무어
군복을 누벼가시던
어머님의 그 마음을 지니셨기에
탐스럽게 피어나는 꽃비단의 흐름을
그토록 기쁨속에 안으시는것인가

이 세상의 천들은 방직공들이 다 짜지만
그 언제 그 누가
꽃수레에 앉아
꽃방석에 앉아 천을 짠 일 있었으랴

마치 즐거운 려행길을 달리는듯
해돋이 바다길을 쓴살같이 달리는듯
행복의 노래만을 부르며
꽃바다 물결을 누벼가라고
사랑의 레루를 깔아주신 그 은혜

필필이 흐르는 비단의 물결우에
꽃수레를 몰아가는 가슴가슴에
따사로운 햇빛을 뿌리시는
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우러러
충성의 눈물이 흘러내려라, 끝없이
무지개비단이 되어 끝없이...

위대한 사랑의 궤도우에서

전병선

차창밖을 흘러가는 푸른 숲이여!
너도 기쁨에 설레이는가
달리는 차바퀴여
너도 감격에 겨워 궤도를 구르느냐
차내에 넘치는 그이의 사랑앞에
광부의 눈빛은 이슬에 젖는다

어버이수령님께 기쁨드리는 사람들이기에
보고싶어 이천리길 찾아오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온갖 사랑과 은혜 베풀어주시고도
광부들의 이야기 더 들으시고싶어
손잡아 특별렬차우에 태우고 가시거니

차는 조용히 달리고
함께 나누시던 식사도 끝나고
행복과 걱정의 더운 이슬 차창을 흐리우는데
이제는 돌아가겠다는
광부의 송구스러워하는 마음 헤아리시는가

렬차의 창가림을 밀어놓으시고
굽이굽이 지나온 산밭을 굽어보시며
되돌아가야 할 길 더듬으시던
그이의 안광에 심려의 빛 어리시여라

...길이 험하구만
동무를 여기에 내려놓고 가면
내가 마음이 놓이겠소
렬차를 되돌려세웁시다!

아, 자신께서는 해종일
돌가루 묻은 손들을 잡아주시며
석수 내리는 막장 한끝까지 걸으셨건만
잠간이면 가닿을 길을 두시고
역 아닌 산중에서
달리던 렬차를 돌려세우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력사의 위대한 지름길로
인민을 이끄시고 혁명을 이끄시고
순간의 정지와 휴식도 없이
앞으로 앞으로만 나아가시던 길

지도우에 한점 표식도 없는
조국의 이 지점에서
정녕 이름없는 한 광부를 위해
이렇듯 위대한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이시여

그리워 꿈결에도 불러오시던

회령땅 지나시던 그날엔
북방의 로동계급이 기다린다고
지척에 둔 어머니의 고향집도
달리는 차창으로만 바라보시더니...

한없으신 그 은정앞에
북대천여울물도 울며 흐르고
마천령 험한 산밭도 엄숙히 머리 숙이는가
푸른 산 푸른 계곡을 누비며 되돌아가는
열차의 기적소리도 목이 메인듯

아, 광부를 신고
사랑의 수레는 되돌아가는데
은혜를 충성으로 바꾸어안고

그이의 뜻 받들어갈
광부의 가슴은 불을 안았거니

위대한 사랑의 궤도여
그이께서 한 광부를 태우시고
되돌아가신 구간은 짧았어도
지구를 감고감은 수억만리 철길에 비기랴
한생을 걷고 또 걸어도 다 걷지 못할
가장 값높고 빛나는 그 길을 따라
광부가 가고
인민이 가고
온 조국이 가고있어라

맑은 시내물

홍광혁

참된 내 삶의 시각이런가
바위밑에 고여나는 맑은 샘물은
해쫂는 바다로 흐르고싶어
천길쫂아 흘러라
맑은 시내물

아름다운 내 희망의 속삭임이나
희디흰 조약돌우로
푸른 하늘 비껴담아 맑게 흐르는
수정같이 정갈한 네 물결은

바위에 부딪쳐
부딪쳐 부서져도
억만구슬 다시 모여 흐르는
즐기찬 네 흐름은

하늘땅이 불타던 그 시절에도
박달나무 얼어터지는 삼동의 추위에도
쉽없이 흘렀어라
밤이라도 낮이라도 사시절 변함없이

끊임없는 네 흐름은...

폭풍이 몰아쳐도 흐릴줄 모르고
불별이 쏟아져도 마를줄 모르는
당을 따르는
내 삶의 노래!

별들이 꼬리물고 뽀노는
저기 저 바다
맑은 태양 높이 받들어올리는
동트는 태양에 한줄기 보태고저

내닫고 솟구치며 용용히 굽이치는
너처럼
험산준령에도 길을 열고
천길벼랑도 뛰어 내려
나는 가리 충성의 한바다로
맑게
즐기차게
세월에 세월을 이어 흐르리
아, 나의 삶
나의 마음
맑은 시내물이 되리!

기 억

현승걸

평소에는 못사람들의 특별히 따뜻하고 부드러운 보살핌속에서 진중하고 고요하게 지내던 영예 군인 리명천은 오늘아침따라 별스럽게 성급히 작업장에 들어섰고 또 역시 성급하게 창문부터 열었다.

이른아침, 창문밖 꽃밭에서 그 특유한 꽃가루가 아릿한 향기를 풍기고 벌써 잠을 깬 꿀벌들이 뽁뽁 귀전을 맴돌고 추녀끝에서 구구구 비둘기가 깃을 다듬는 가벼웁고 소심한 음향이 들리고 창가에 드리운 은행나무가지에서 이슬이 이마전에 떨어질 때 리명천은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저쪽 먼곳에서 은은히 울리는 바쁘고 둔중한 전기기관차의 기적소리를 기쁨속에서 들으며 리명천은 영민하고 정겨운 손끝으로 이슬에 축축히 젖은, 한껏 살이 오른 은행나무잎을 만지었다. 무성하는 여름, 도시의 저편 변두리 벌판에서는 벼, 꽃이 한창일 계절이라고, 그 풍요한 여름의 자연을 느끼며 리명천은 입귀를 감싸며 깊숙이 패운 주름살과 면도자리가 푸릿한 턱을 들고 머리를 끄덕이였다.

오늘아침에는 모든것이 류다른 감흥을 자아냈다. 그는 은근한 기쁨과 행복속에서 또 불안스런 마음으로 오늘을 기다려왔다. 30년전 전선에서 눈에 부상을 입고 실명을 한 그가 25년동안 애지중지 키운 외딸이며 갓 대학을 졸업한 안과의사인 리호심이 첫 환자의 눈을 띄우는 날이었다. 한 인간에게 광명을 주기로 약속을 한 날인것이다. 리명천은 아직 어린애같은 딸의 얼굴모습을 단 한번도 보지 못했지만 분명 아련하고 연약한 딸이 광명을 준다는 엄청난 약속을 한 것이 한편으로 잘 믿어지지 않았다.

전동기가 가볍게 진동하자 리명천은 30년동안 익숙된 손으로 프레스를 움직이며 여러 색깔의 수지단추를 거침없이 지함속에 넣었다. 그런속에서도 리명천은 줄곧 딸을 생각하며 딸이 그 엄청난 약속을 꼭 지켜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창문가의 해빛이 한결 높아져서 이마전을 따갑게 비칠 때 리명천은 잠시 일손을 멈추고 출입문 쪽에 귀를 기울였다. 리호심이 찾아오기로 한 시간이 었다.

상냥스럽고 조용한 목소리와 몹시 삼가하는 짧은 웃음소리 그리고 발끝부터 났는 조심스러운 걸음 그 모든 음향으로 미루어보아 리명천은 딸의 도착을 보는듯이 느끼였다. 리명천은 평소의

그답지 않게 가슴을 울렁거리며 그 특유한 딸의 발걸음소리가 가까와지기를 기다렸다. 그러다가 참지못하고 허공에 손을 들고 거기에 딸의 살뜰한 손길이 와닿기를 바랐다. 이윽하여 약냄새가 배인 딸의 뽁족하고 가느다란 손이 리명천의 커다란 손을 살며시 잡았다.

《그래 붕대를 풀었니? 어떻게 됐니?》

하고 리명천은 흥분을 애써 누르며 조심스레 물었다.

《래일아침에 풀기로 했어요. 환자는 어머니의 도착을 기다려요. 어머니앞에서 붕대를 푸는것이 소원이래요. 그래서 래일아침에 풀기로 했어요.》 동그스름한 어깨를 낮춘 리호심은 속삭이듯 말했다.

리명천은 선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두번 끄덕이였다.

《옳다. 환자의 소원이 옳아. 의학에서는 네가 선생일수 있지만 생활에서는 학생이란걸 잊지 말아라. 생활은 언제나 우리를 가르치지. 그러니 생활에서 배워야 한다. 아들이 광명을 보는 그자리에 어머니가 없으면 안된다. 광명의 진짜값은 어머니가 더 깊이 이해하고 또 더 깊이 느낄게다. 잘했다. 그래 환자의 심장은 어떠냐?》

근심과 애정과 만족에 찬 리명천의 음성에 끌리듯 리호심은 그렇게도 살뜰한 아버지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러자 환자에 대한 애착에 찬 아버지의 음성에 비해 자기의 목소리가 어땜지 모르게 메마른듯싶었다.

리호심은 아버지를 달래는듯 낮은 음성으로 말했다.

《오랜 기간 활동하지 않아서 좀 허약하기는 하지만 일없어요.》

《아니다. 광명과 암흑의 차이를 너는 모른다. 우주와 같은 광명의 새 세계를 잡자기 받아안기에는 심장이란것이 너무도 작지. 광명의 가치란 우주와 같이 무한하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위대한 광명을 위하여 목숨도 서슴없이 바치는게 아니냐... 그러니 붕대는 조심조심 풀어야 한다. 처음에는 먼 하늘 한끝을 보이고 그다음에는 그앞 높은 산봉우리를 보여라. 그다음에는 창문너머 나무가지를 보이고... 그렇게 광명에 익숙시켜라.》

리명천은 거듭거듭 당부하면서도 딸이 광명의 가치를 다 느끼고 이해하지는 못하리라는것을 알

고있었다. 그것을 알기에는 딸이 아직 어린것이다. 그리고 광명을 잃은 사람만이 진짜 광명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다고 그는 생각하는것이였다.

리호심은 예전처럼 안심하라는 뜻으로 아버지의 손을 가볍게 흔들었다. 그것은 리호심이 아버지의 손목을 이끌고 사시절 변하는 자연을 단순한 말로 아버지에게 알리곤하던 나날에 버릇된 습관이였다. 리명천은 비록 변화무쌍한 자연의 모습을 보지는 못했지만 갖가지 음향과 감촉과 향기와 느낌으로 자연의 깊은 세계를 딸에게 가르쳐주었다.

리호심은 무엇보다도 그 자연에 대한 사람과 애착을 아버지한테서 배웠다. 성장하면서 리호심은 점점 더 깊이 아버지앞에서 배우는것을 느끼었고 그것을 깊이 깨닫게 되면서 아버지를 더욱 존경하였다.

《얼마나 거룩하고 값비싼 약속이나... 꼭 성공하거라.》

《알겠어요. 아버지...》

평소에 과묵한 편이고 다변하지 않던 아버지가 오늘은 이야기가 많아지고 어조도 류다르게 흥분되어있는것이 리호심에게는 놀라울 정도였다.

리명천은 어렸을 때부터 성실하고 정직한 딸을 믿었다. 리호심은 잘못보는 아버지앞에서 거짓을 말하는것을 죄악으로 생각하였고 오직 진실만을 사실그대로 말하는데 습관되어있었다. 리명천은 그 환자의 눈을 띄우면 우리 영예군인공장에 두 데리고 와서 공장구경을 시키라고 은근한 공지와 자랑이 넘친 어조로 부탁하였다. 이번에도 리호심은 그러겠다고 약속하였다. 이 땅과 이 공장을 위하여 무엇인가 채 갚지 못한것이 있는듯, 그렇듯 모든것을 쏟아붓고 구석구석을 아끼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몹시도 마음을 쓰면서도 자신은 오늘에 만족하고 티검볼 하나 요구하지 않는 아버지, 25년동안 보아오던 아버지를 처음 보기라도 하는듯 리호심은 뜨거운 눈길로 반은 희여진 머리칼이 덮인 아버지의 이마며 얼굴모습을 이윽히 바라보았다.

대견하고 자랑스러운 그리고 분명 의젓할 딸의 손목을 이끌고 꼭 그렇게 하고싶어 리명천은 공장정문께까지 배려주었다. 그것은 잘못보는 리명천에게 있어서 보기 드문 일이었다.

해빛이 따갑게 비치던 유리창에 서늘한 기운이 풍긴것은 오후였다. 먼 하늘 저쪽에서 은근히 울던 우뢰가 문득 머리우에서 땅을 뒤흔들며 소나기를 몰아왔다. 리명천은 손으로 습기가 배인 창문유리를 더듬었다. 바람에 휘뿌려진 굵은 비방울이 유리에 부딪쳐서 산산 부서지는 강한 울림이 손바닥을 아릿하게 하였다. 우뢰가 울 때마다 늘 그러하듯 리명천은 창문쪽으로 부지중 얼

굴을 돌리였다. 전쟁시기의 야전병원침대, 우뢰가 우는 그날밤에 창문을 열어젖히고 번개불을 찾던 캄캄한 밤하늘, 번개를 찾지 못하고 그만에야 실명을 절감하던 그때를 리명천은 또다시 회상하게 되였다.

그런 속에서도 리명천은 공장정문쪽에서 울리는 맑고 쟁쟁한 승용차의 경적소리를 가려들었다. 매우 귀에 선, 울림을 극력 삼가하는 짧은 경적이었다.

이윽하여 직장출입문 저쪽에서 사람들의 말소리와 함께 비에 젖은 신발을 터는 소리가 들리였다. 그가운데서도 의족을 한 공장조급당비서의 걸음소리가 류다르게 들리였고 뒤따라 시당책임비서 로정구의 귀에 익은 목선 음성이 푹푹하게 들리였다. 그는 전후시기 시당조직부장으로 있을 때 리명천의 당이동증을 접수하고 그를 영예군인공장, 아직은 터전밖에 없는 천막으로 인도해주기까지하였다. 모기불에 푹강냉이를 구워 나누던 전후복구건설시기 로정구는 목탈을 만났는데 리명천은 그후 공장으로 자주 다니던 그를 목소리를 듣고 알아맞히곤하였으나 로정구쪽에서는 지금까지 그를 한번도 알아보지 못하고 늘 지나치곤하였다.

그 목선 음성이 가까이에서 푹푹히 울리였다.

시당책임비서 로정구와 함께 현장에 들어서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신발과 옷자락에 떨어진 비방울도 털으시기를 삼가하시며 애정어린 안광으로 주위를 돌아보시였다. 오랜 기간 갈망하시였으나 좀처럼 짬을 내지 못하시던 그이께서는 오늘에야 그 소원이 풀린 기쁨으로 더없이 만족하신 마음이시였다.

키가 크고 이마가 검실한데다가 눈초리가 예리하여 엄해보이는 시당책임비서 로정구는 소나기가 쏟아지는 매우 소란스런 날에 그이를 모시게 된때문에 얼굴에 난감한 표정과 함께 또 한편 기쁜 표정을 엿바꾸어 지으며 앞서 걸어갔다.

《여기는 비닐제품생산현장입니다.》

하고 로정구는 두손을 포개고 서서 한참동안 기다렸다가 그이께서 로정구쪽으로 몸을 돌리시자 말씀드리였다.

현장에 들어서신 그이께서는 잠시 걸음을 멈추시고 천정의 조명등과 비살이 드리운 창문들을 일별하시고 말씀하시였다.

《비가 새지 않소? 습기가 지나치게 많소. 영예군인공장은 무엇보다도 맑은 공기와 해빛과 습도가 규정대로 보장되어야 하오. 물론 조명도 밝아야 하고...》

현지도의 첫대상을 영예군인공장으로 정하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소나기가 지나간 다음에 떠나자는 지방당일군들의 간곡한 권

고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신것이다.

리명천은 전혀 처음 듣는 청청하고 열정에 찬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 이런 불순한 소나기때에, 특히는 그 청청한 음성을 듣기는 처음이었다. 그 음성은 공장안의 기계소리를 짝 늘렸다 놓으며 울렸다. 그러자 청신하고 정갈한 대기가 온 직장을 감싼듯 정신이 번쩍 들었다. 생기가 넘치는 그 음성은 점점 가까이에 다가왔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재빨리 현장을 둘러보시며 걸음을 옮기시었다. 그이께서는 현지지도일정에는 예견되어있지 않는 영예군인 공장으로 출발하시면서도 로정구의 얼굴에 자신 만만한 미소가 어릿것을 보시고 마음을 놓으시였으나 현장을 돌아보시는 순간부터 벌써 생각이 깊으시었다. 각별한 관심을 두고 공장을 꾸린데 대하여 일종의 자부심까지 안고있는 로정구는 영예군인들이 창안한 설비들과 수지일용제품들을 보여드리었다

그이께서는 거기에 흥미를 가지고 보시면서도 작업현장전체의 구석구석을 일일이 살피시었다.

《조명을 검토하십시오. 전등이 축수가 낮기때문에 영예군인동무들이 눈을 상할수 있소. 축수높은 형광등을 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배풍능력도 높여서 맑은 공기를 제때제때 순환시켜야 합니다.》

그러시고 잠시 도간을 두시였다가 로정구에게로 시선을 돌리시며 음성을 낮추시여 타이르듯 말씀하시었다.

《영예군인공장은 공장이 아니라 휴식장소요. 우리 당은 제품이 없어서 영예군인들을 일을 시키는것이 아니요. 또 로력이 부족하여 영예군인들을 로동시키는것이 아니라라는걸 알아야 하오. 영예군인들은 로동을 하는것이 아니라 밥맛이 있을 정도로, 건강에 좋을만큼 몸을 움직이기 위해 운동삼아 일하는거요. 우리 일군들은 그런만큼 여기서 공장이라는 관점, 생산현장이라는 관점은 버려야하오. 이 공장은 공원으로, 휴식장소로 되어야 하며 그렇게 꾸려야 하오. 관점이 틀렸소. 당을 위하여 피흘린 동무들인데 필요하다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와야 하오.》

로정구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뭇없이 사라졌다.

리명천은 음성이 울리는쪽으로 한걸음 걸어나갔다. 일생동안 한번도 들어본적이 없는 따뜻한 음성, 위대한 사랑과 애정이 굽이치는 음성이 가슴을 뒤흔들어놓았다. 이런 말씨는 누구나 할수 없는것이다. 이것은 위대하고 거룩한 심장을 가진 분만이 하실수 있는 값높은 말씨이라고 리명천은 생각하였다.

바로 10여년전 눈보라치는 겨울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공장을 찾아오시여 영예군인들

은 나라의 보배라고, 동무들은 앞으로도 꽃을 계속 피워야 한다고 당부하시며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그때를 회상하며 리명천은 불현듯이 세찬 소나기속을 헤치시고 지금 공장을 찾으신분이 다름아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이심을 심장으로 느끼였고 굳게 확신하였다.

사람들의 발걸음소리는 변함없이 전과같이 지정된 가운데 통로를 따라 스쳐지났다. 공장에 찾아오는 모든 일군들이 그러했듯이 이번에도 리명천의 걸을 그대로 지나쳤다. 인제는 자신도, 다른 영예군인들도 모두가 거기에 습관되었지만 리명천은 그 순간만은 사람들앞에 나서기를 될수록 삼가해온 이전의 타성을 잊어버렸다.

리명천은 그이께로 막 달려나갈듯 옷매무시를 바로다듬고 속으로 삼가 드릴 인사의 말씀을 고르며 한걸음 내짚기까지 하다가 그것이 격에 넘치는 일갈아 주저하였다. 더구나 그는 자기의 불편한 몸을 생각하였다.

사람들의 걸음은 점점 더 멀어져갔다. 리명천은 예민한 청각으로 점점 멀어져가는 그 음향중에서 박력있고 생각깊이 옮기시는 그이의 걸음소리와 굽음이 넘치는 청청한 음성을 가려들으려고 애썼다. 리명천은 그 음향을 따라 한걸음 더앞으로 내디디기까지 하였다. 그 음향들이 뇌리에 스며들 때 리명천은 따뜻하고 인정깊으시고 예지스러운, 위대한 사랑과 사색이 순간순간 번뜩이는 그이의 안광이며 인정미 흐르는, 자애에 넘친

그이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눈앞에 그려볼수록 그 거룩하신 영상이 수령님의 모습으로 엇바뀌여 분명히 떠오르는것만 같아 리명천은 그이에 대한 가슴조여드는 그리움으로 호흡을 멈추었다. 오늘의 이 순간을 놓치면 그이를 다시 뵈을 기회가 없을것만 같은 괴롭고 조급한 생각이 가슴을 짝 조이였다. 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한번만이라도, 단 한번만이라도 이쪽으로 눈길을 돌려주셨으면, 그러시면 나를 찾아주실수도 있련만... 그 누가, 공장초급당비서라도 여기 이 창문가에 내가 서있다고 잠깐 아뢰주었으면 하고 리명천은 간절하게 바랐다.

그러나 그 누구의 음성도 울리지 않았으며 사람들의 발자국소리는 저쪽 출구쪽으로 한걸 더 멀어져가기만 하였다.

그리고 이어 문득 박수소리가 울리였다. 떠나가시는 그이를 우리러 서운한 마음을 달래며 리명천은 진심으로 그이께 축복을 드리였다. 그리고 이렇게 몸가까이에서 그이의 음성만이라도 들은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며 박수를 드리였다.

출입구쪽에서 걸음을 멈추신 그이께서는 다시 한번 현장을 돌아보시었다. 영예군인공장을 꾸리

는데서 일군들의 관점을 돌려세우고 영예군인들을 돌보는 사업에서 일대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전담적인 대담한 대책을 세워야 하겠다고 생각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출입구곁에 모여있는 영예군인들에게 인사를 하시며 돌아서시였다. 환송의 박수가 한참동안 계속되였다. 몇 걸음 앞으로 나아가시던 그이께서는 이제 떠나면 이동무들을 오래동안 보지 못하게 되겠다는 생각으로 잠시 걸음을 멈추시고 다시한번 손을 흔들어 인사를 하시였다. 정전직후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여기에 오시여 영예군인들을 만나보시였던 때가 회상되시였다. 그때로부터 조국은 30년을 멀리 줄달음쳐왔다. 수령님께서 영예군인공장의 새뚝에 얼룩진 썩은 동기와를 엮은 추녀를 보시며 머지않아 번쩍거리는 아연도금판지붕을 하게 된다고, 고생끝에는 꼭 락이 온다고 하시던 말씀이 기억나시였다.

그때 젊었던 영예군인들이 이제는 다 머리가 희씩희씩한 로당원들로 되였다.

수령님의 뜻을 받들고 불편한 몸으로 30년을 당과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고 싸워온 훌륭한 당원들인것이다.

거듭거듭 손을 흔드시며 출입문을 나서시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드셨던 손을 허공중에 멈추시고 안광에 그늘을 지으셨다. 영예군인들의 겹겹이 쌓인 어깨너머 저쪽, 공구함이 놓인 사이로 박수를 치고있는 한 영예군인의 모습을 보신것이다.

이쪽이 아니라 약간 저편으로 머리를 돌린 그는 음성을 들으려고, 모든 소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습관처럼 소리나는쪽으로 귀를 기울이고있었다. 그런 속에서도 성의껏 박수를 치고있는 그가 대뜸 앞모보는 영예군인임을 알아보시였다.

《저 동무가 누구요?》

하고 그이께서는 급히 물으시고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으시고 몇걸음 그쪽으로 걸어가시였다.

사람들의 어깨너머 저편을 두루 살피던 공장초급당비서가 바빠 그이의 뒤를 따르며 《영예군인 리명천동무입니다.》라고 숨가쁜 어조로 말씀드리였다.

《눈을 부상당한 동무군...》

그이께서는 혼자소리처럼 말씀하시였다.

《그렇습니다.》

그이께서는 거침이 없이 무거운 걸음을 내디디시며 겹겹이 모여섰던 영예군인들이 자리를 내드리는 길을 걸어나가시였다. 무슨 영문인지 분간하지 못한채 한동안 서있던 로정구가 다소 당황한 표정으로 급히 그이의 뒤를 따라 자신없는 걸음을 옮기였다.

이때 리명천은 갑자기 끊어진 박수소리에 놀라면서, 또 무거우나 급한 걸음소리를 듣고 박수를 치던 손을 엉거주춤한채 잠시 서있었다.

맨처음 만났어야 하고 작별인사도 선참 했어야 할 리명천을 알아보지 못하시고 스쳐지나신것이 못내 가슴아프시여 그이께서는 그가 놀라지 않을가 저어하시며 이번에는 걸음소리를 낮추시였다.

그이께서는 리명천의 두손을 꼭 잡으시고 거듭 거듭 흔드시였다.

《리명천동무, 수고하오. 이런 외진데 있으니 만나기가 어렵지... 그런데 손은 왜 이렇게 찻니까. 속тал이 있지 않소?》

인정미 넘치는 음성이였다. 비에 젖은 창문을 만지던 손이 돼서 습기가 있고 그래서 차거운것이라고 말씀드리려 하였으나 리명천은 갑자기 접한 뜻밖의 일이라 미처 입을 열지 못했다.

《내 인사가 늦었소. 용서하오.》

이번에는 목갈린 음성이였다. 그리고 뜨겁게 흔드시는 손길이 가볍게 떨리시였다.

문득 리명천은 영예군인을 위하여 그렇듯 값높은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구석진곳에 있는 자기를 알아보신 분이, 이렇듯 인정깊게 걱정하시고 또 이렇듯 뜨겁게 손을 잡으시는 그런분은 오직 이세상에 한분밖에 없으며 바로 그분이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이시라고 굳게 믿었다. 그러자 인사의 말보다 먼저 눈물이 앞섰다. 이제는 다시한번 만나뵈옵기 어려울것이라고 그지없이 서운함을 달래던 리명천은 갑자기 탁친 이 순간을 자기가 일생을 바쳐 기다렸던듯싶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마디마디 끊기여 도무지 이어지지 않는, 분명 자기 목소리가 아닌 그 어떤 다른 사람의 음성같은것을 들으며 리명천은 오랜 기간 갈망하던 그이의 품에 맥을 놓고 확 안기였다.

그이께서는 리명천의 어깨를 꼭 끌어안으시였다.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아오?》

《압니다...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러며 리명천은 어린애들처럼 그이의 옷자락을 어루어루 쓸어만지였다.

《고맙소, 고맙소 알아봐주어 고맙소. 내가 **김정일**이요, **김정일**...》

떨리는 음성을 애써 진정하시며 그이께서는 또 다시 무슨 말씀인가 하시려다가 그만두시고 흐릿해진 안광으로 리명천의 실명한 눈의 부상처와 반나마 흰 머리와 그다음에는 입귀에 깊숙이 자리잡은 주름살과 투박한 손을 더듬으시였다.

한참후야 그이께서는 아직도 갈림이 가시지 않으신 음성으로 물으시였다.

《언제 눈을 상했소? 어느 전선에서 싸웠소?》

《전선동부 1052고지계선에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리명천은 1951년 10월초에 부상당한 이야기를 말씀드리었다.

그이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었다. 1052고지라면 1211고지 옆봉우리계선이고 그때는 원수들의 《추기공세》를 격파하기 위한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던 때였다. 1951년 9월 23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최전선인 금강군 직동령 서쪽 1211고지와 한줄기로 잇닿아있는 1237,3고지에서 직접 전투를 지휘하신 이후 리명천은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들고 한치의 땅도 적에게 내주지 않기 위한 혈전을 벌렸을것이였다. 조국의 운명을 지켜싸운 옛병사가 지금 앞에 서있었다.

그이께서는 리명천의 어깨너머로 창밖을 내다보시었다. 비방울은 번들거리는 유리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며 한줄로 합쳐지기도 하고 다시 두줄, 세줄로 갈라지기도 하면서 무수한 이랑을 지었다.

비물에 흐릿하게 얼룩진 창가에서 은행나무가 가지를 뒤채이며 소란스레 설레이었다.

그때도 전선동부에는 몇달째 퍼붓는 큰 장마로 수송로가 파괴되고 적의 폭격이 우심하였었지... 그이께서는 그때 리명천이 누워있었을 야전병원의 창문가를 그려보시었다. 식량도 약품도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던 야전병원...

《열아홉살...》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열아홉살에 부상을 당했다는 리명천의 말을 들으시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외우시었다. 그는 젊은 시절에 미래와 희망이 넘치던 눈동자, 목숨처럼 아끼던 깨끗한 눈동자를 주저없이 조국의 대지에 뿌린것이다. 인생의 광명을 한치의 조국땅, 한줌의 흙과 아낌없이 바꾼것이다.

그 한치의 땅은 한포기의 풀이 뿌리를 내리고 한마리의 새가 깃을 틀수 있는, 지금은 사람들이 무심히 밟고 지나는 땅인것이다. 그 땅 한치를 위하여 우주에 비길 광명을 바치고 그것도 부족하여 그후 30년동안 손더듬으로 땀을 흘려가며 그 땅, 조국의 땅을 살찌우고있는것이다.

리명천은 자기의 손을 더듬으시는 그이의 인자하신 손길에서 피로와하시는 심중을 느끼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심장이 눈을 대신하니 저는 모든것을 보는듯이 느끼고있습니다.》

그렇것이라고, 당을 위해, 조국을 위해 바친 광명이니 아까와 하지 않을것이라고 그이께서는 생각하시었다.

《명천동무, 옳은 말이요, 중요한것은 심장으로 느끼는 법이니까. 변모하는 조국의 모습을 보는

듯이 리해하게 될거요.》

《그렇습니다. 전후복구건설때에도 천리마시기때도 저는 변모되는 조국의 모습을 보는듯이 느끼었습니다. 기양에서 만든 첫 트랙터의 소리도, 첫 전기기관차의 기적소리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리명천은 봄과 여름과 가을과 또 겨울의 변화무쌍한 자연의 변화에 대하여, 심지어는 고향을 다녀온 이야기도 서둘러 말씀드리었다.

리명천은 느끼고 듣고 감각하는 모든것, 마음의 이야기를 다하지 못하는것이 안타까와 입술을 감쌀때 손을 비비었다. 섬세하고 예리한, 거창하고 은근한 갖가지 음향의 미묘한 울림과 그것이 환기시키는 감정의 넓고 깊은 세계를 다 표현하지 못하는것이 안타까웠다. 그리하여 리명천은 당황해하면서 무엇인가 더 말하려고 하였으나 그이께서 그 마음을 알만하다고 하시며 거듭 만류하시었다.

《감사하오. 시시각각 변모되는 조국의 변영을 놓치지 않고 리해하기란 동무의 처지에서는 쉽지 않는 일이지. 참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소. 그것이 바로 동무와 함께 우리 인민들이 창조한 력사요. 동무에게는 몇곱절 어렵고 힘든 길이었을거요. 몇곱절 수고가 많았다는걸 나는 잊지 않고있소.》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말씀은 호수의 수면처럼 잔잔히 울리었다. 당의 력사와 함께 공간에 흐른 무수한 갖가지 음향이 이 순간 일시에 울리는것 같으시었다. 그것은 자연의 빛으로는 드러내보일수 없는 세계였다. 기쁨과 시련과 슬픔을 여러 색깔의 음향이 표현하고있었다. 당이 새롭게 창조한 음향, 시대를 이야기하는 다양한 음향의 세계를 리명천이 리해하고 느끼는것이 고마우시었다.

《자녀들이 있소?》

이윽하여 그이께서는 나직이 물으시었다.

《예.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물으심을 기다렸다는듯 리명천은 선뜻 대답을 올렸다. 그리고 리명천은 딸의 이름은 리호심이라고 하며 의학대학을 작년에 졸업하고 지금은 시병원 안과의사로 일하고있다는데 대하여 명랑한 어조로 말씀드리었다.

그이께서는 그의 말에서 래일 첫 환자의 눈을 띄우게 되어 리명천이 기쁨과 행복속에서 지난밤을 보내였고 오늘아침에는 여느때없이 일찍 출근했다는 사연을 들으시었다. 모든 사람들에게 광명을 주는것을 그렇게도 소원하는 리명천의 심정, 그것은 그이의 념원이였으며 소원이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아버지의 그 심정, 그 간절한 소원을 알기에 그리고 아버지를 위하

는 마음에서 그 나이에 벌써 그렇듯 훌륭한 일을 하는 리명천의 딸을 만나시고싶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그 딸을 꼭 만나보셔야 하겠다고 생각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리명천을 부축하시고 영예군인공장 지배인실에 들리시였다.

언제 소나기가 내렸던가싶게 하늘은 활짝 개이였다.

그이께서는 리명천과 나란히 쏘파에 앉으시였다. 그러시고 손수 담배를 권하시며 불까지 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리명천한테서 정전직후 여기에 영예군인공장을 건설하던 때의 이야기를 들으시였다. 맞은편에 앉은 로정구와 공장초급당비서가 때때로 참견하여 이야기는 흥미있게 흘렀다.

그다음에는 자그마한 지함 하나가 그이 앞에 놓여졌다. 그이께서 리명천이 찍어낸 그 수지단추를 한번 보시고싶어 부탁하신것이였다.

그이께서는 그 지함을 리명천이 앞으로 가볍게 던져놓으며 자기가 만든 제품들을 구경시켜드리려고 하는 모습을 대견히 바라보시였다.

리명천은 주름살이 깊숙이 패운 입구에 만족스런 미소를 띄우며 익숙한 손길로 지함을 열고는 그속에서 갖가지 모양과 색깔의 수지단추 여러개를 집어내었다. 그리고는 영민한 손끝으로 단추의 모양새와 새겨넣은 무늬를 가늠하더니 보는듯이 그이 앞에 드리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이 목란꽃모양의 하얀색단추는 어린이들 외투단추로도 좋고… 처녀애들도 좋아하고… 나이 든 부인들의 마음에도 드는 단추입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그 어떤 보물이라도 받으시는듯, 무슨 보물이라도 받으시는듯 두손을 펼쳐드시고 그 가벼운 단추 하나를 받으시였다.

《이건 포도알단추입니다. 자주색인데 이렇게 포도알처럼 동글동글해서 탁아소 애기들옷에 잘 어울립니다. 또 처녀애들의 여름옷 팔소매에도 다는데 보기 좋아서 인기가 있습니다…》

리명천은 련이어 그이의 줌안에 단추를 하나하나 놓아드리였다.

《참 보기 좋고 가볍고 또 단단한것이 내 마음에 드습니다. 인민들이 좋아한다니 나도 반갑소. 인민들이 좋아하는것은 다 좋은것이요. 명천동무가 그 불편한 몸으로 정성껏 만든것인데…》

그이께서는 어린이들과 녀성들의 옷에서 늘 자주 보시곤하시던 그 단추를 처음으로 보시듯 쓸어보시고 만져보시고 빛과 모양과 무늬도 거름살펴보시다가 말씀하시였다.

《명천동무, 이 단추 다섯개를 내 기념으로 가지고 가겠소, 평양에 올라가서 위대한 수령님께

보여드리겠소. 영예군인동무들이 만든것이라고 말씀드리면 수령님께서서는 매우 기뻐하실거요… 내 가지고 가겠소… 기념으로…》

그이께서는 네겹으로 접은 하얀 손수건을 꺼내시여 그 단추 다섯개를 정히 싸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감사합니다. 변변치 못한것을…》

리명천의 목소리는 나직하게 들리였다.

수지단추를 옷호주머니에 정히 넣으시고 손으로 두번씩이나 꼭꼭 누르시기까지 하신 그이께서는 리호심의 도착을 기다리시며 한참동안 앉아계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문득 출입문쪽으로 시선을 돌리시였다. 가볍게 문을 두드리면 손기척이 울려퍼졌었다. 문이 열리였다. 밖으로부터 가벼운 약냄새가 흘러들었다. 그 독특한 약냄새가 흘러들자 리명천은 부지중 일어나서 허공에 팔을 들었다. 그제서야 리명천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자기 딸을 만나시려고 이렇게 우정 시간을 내시여 기다리셨다는것을 알았으며 그 사연을 딸에게 알려주어야 하겠다고 생각하며 서둘렀으나 마음뿐이고 그저 걱정만 가슴을 짝 메웠다.

그이께서는 한쪽으로 비켜서시여 은은한 눈길로 방안으로 들어서는 리호심을 이윽히 바라보시였다. 리호심의 하얗고 반듯한 이마는 검은 머리에반쯤 가리워지고 선이 뚜렷한 검은 눈썹아래서는 예지스럽고 유순한 눈이 빛나고있었다. 귀엽성스런 입매에 부드러운 턱이 약간 들러 얼굴 전체에 밝고 명랑한 인상을 주었다. 그러나 옮기는 발걸음이며 두손을 포개고 입술을 가볍게 다문 그 모습은 나이치고는 썩 진중해보이였다. 거기에 연한 회색양복이 또한 잘 어울리였다.

리호심은 초급당비서며 로정구며 특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일별하고 바로 앞에 계시는, 처음 만나뵈옵는 분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이심을 알고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하고 떨리는 음성으로 가버이 되뇌이며 두어절을 달려왔다.

딸이 꼭 아버지의 모습을 닮았다고 생각하시며 그이께서는 리명천의 손을 잡으시고 감격에 찬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리명천동무, 내 오늘 동무를 대신해서 딸의 얼굴을 보오. 아버지를 대신해서… 명천동무…》

그러시고 이번에는 리호심앞으로 한걸음 가까이 가시여 그의 손을 꼭 잡아주시였다.

영원히 잊지 않으시려는듯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한참동안 리호심의 모습을 익히시였다. 먼후날 어느 길가에서 문득 만나신다 해도 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신것이였다. 캄캄한 밤에도

호심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신 것이었다.

리명천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호심아-》 하고 눈물에 젖은 목소리로 나직이 딸을 불렀다. 이 시각 리명천은 자기가 사랑하는 딸의 모습을 단 한번도 볼 수 없었고, 그리하여 딸의 얼굴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까지 딸의 그 얼굴을 몹시 보고 싶었다는 것을 통절히 느끼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리호심은 그이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그는 흐느낌을 애써 삼가하였으나 어깨는 떨리었고 꼭 다문 입술사이로 가느다란 흐느낌이 흘러나왔다.

그이께서는 리호심의 어깨를 쓰다듬으시며 창박을 내다보시었다. 눈비 사나운 사시장철 긴긴 나날 등불이 되어 아버지의 손목을 잡고 부축하면서 공장길을 오갔으며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되려고 오늘까지 애쓴 리호심의 지난날이 안광에 비껴였다. 갈린 그이의 음성이 계다가 자꾸 토막이 나고 또 흐려지곤 하였다.

《내 앞에서는 울어도 일없소... 몸이 불편한 아버지 앞에서야 괴로운 일이 있어도 마음대로 울 수 없었겠지... 20년나마 아버지를 돌보느라고 수고했소. 우리는 멀리 있으니 마음뿐이었지... 나는 언제 한번 동무 아버지의 손목을 잡아주지 못했소. 우리를 대신해서 고생이야 동무가 했지. 고맙소, 고마워...》

리호심은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거듭 머리를 흔들었다.

《저는... 자식된 도리를 했을 뿐입니다

《아니요. 동무의 아버지는 우리 당과 우리 인민 모두가 돌봐야 할 영예군인이고 당을 위해 광명을 바친 혁명가요. 우리 당이 아버지와 같은 동지들을 보살피는 것은 마땅한 의무이고 혁명적 도리이며 우리의 뜻이요. 동무가 바로 어렸을 때부터 오늘까지 그 일을 맡아한 거요. 나를 대신해서... 감사하오...》

한번 또 한번 그이께서는 리호심의 손을 잡아 흔들어주시며 못다하신 심중의 말씀을 표하시었다.

이 순간 리명천은 손을 더듬으며 딸의 손목을 잡았다. 그리고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앞으로 가까이 왔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저를 대신해서 우리 딸의 얼굴을 보아주셨으니... 제가 천만번 보고 또 본다 한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이렇게 한번 보아주신데 어찌 비기겠습니까!》

《명천동무, 고맙소.》

이윽하여 그이께서는 리호심의 팔을 량손에 잡으시고 말씀하시었다.

《호심동무, 조국의 하늘이 왜 저렇게 맑고 푸

른지 생각해보았소? 그것은 동무의 아버지와 같은 우리 당원들이 자신의 피와 땀을 바쳐 하늘의 검은 구름을 헤쳤기 때문이요. 그래서 하늘이 푸르고 산천이 푸른 거요. 그걸 잊지 마오. 나는 이 땅에 새날이 저절로 밝아온다고 생각지 않소. 아버지가 뿌린 한줄기의 광명이 그 새벽빛에 어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라오... 학교 교과서는 조국해방전쟁과 전후복구건설의 어려운 시기를 단 한줄로 표현하기도 하고 한두페이지에 서술하기도 하오. 그러나 동무의 아버지와 같은 이름없는 당원들의 위대한 업적을 우리 당만은 잊지 않고 있소. 혁명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몸건강하오... 내 도와줄게 없겠소? 첫 환자가 눈을 뜨면 나한테 소식을 알려주오. 내 기다리겠소. 그리고 종종 편지를 하오. 소식도 전하고... 여기 있는 시당책임비서도 자주 찾아가고...》

그이께서는 머리를 깊이 숙이고 자책에 잠겨서 있는 로정구쪽으로 시선을 돌리시었다.

그제서야 로정구는 희미한 회상속에서 이미 잊어버린 리명천의 얼굴모습을 겨우 찾아보았던 것이다.

리명천도 리호심도 아무것도 요구할 것이 없다고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분에 넘친다고 대답을 올리였다.

그이께서는 그것이 진정일 것이라고, 사실이 그럴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수긍하시었다.

방금 소나기에 씻긴 포장길로 그이께서는 바른 쪽에는 리명천을, 왼쪽에는 리호심을 세우고 30년 동안 그들이 걸었을 사연 많은 그 길을 걸으며 공장정문 저쪽 먼 갈릴길까지 나아가시었다.

리명천은 눈앞에 불타는 태양을 보는 듯하였다.

그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영상을, 우리 당의 의리와 도덕과 위대한 인품과 거룩한 사상과 량심, 조선의 참모습을 본 것이었다. 그이를 위해서라면 이제 또다시 광명을 바친들 무엇이 아까우랴!

그들과 함께 좀더 계시고 싶으시여, 좀더 그들의 모습을 익히시고 그들의 소박한 목소리를 들으시고 싶으시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될수록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며 그들이 걸어온 지난날을 상상도 해보시었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오늘에야 비로소 아시게 된 귀중한 혁명동지인 리명천과 그의 딸 리호심의 모습과 음성과 그들의 깨끗하고 거룩한 량심과 어디에도 기록해두지 못했으며 그리하여 세월의 흐름과 함께 망각될 수 있는 그들의 위훈을 자신께서 영원토록 잊지 않고 기억해두어야 하겠다고 생각하시었다. 그런 일은 두뇌가 아니라 심장이, 그것도 위대한 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 당이 밝혀준 문학예술창작을 대중화할데 대한 방침과 그 빛나는 구현

리봉진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찬란히 개화발전하고있는 주체문학예술의 대화원속에는 군중문학예술도 활짝 꽃피고있다.

따사로운 당의 해발아래 군중문학예술이 오늘처럼 비약적인 발전면모를 보여준 때는 일찌기 없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군중문학은 인민대중을 사상문화적으로 교양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놓고있으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수행에 힘있게 이바지하고있다.

이것은 우리 당이 문학예술활동을 대중화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준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우리 당은 1970년대에 주체예술의 대전성기를 마련하고 1980년대를 맞이하여 우리 나라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문학예술활동을 대중화할데 대한 방침을 다시금 천명하고 그 관철에로 전체 작가들과 문학통신원들, 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 일으켰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1982년 11월 15일 전국문학통신원열성자회의를 마련하시고 고전적문헌 **《문학예술활동을 대중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관철에서 문학통신원들의 역할을 높이자》**를 발표하시였다.

고전적문헌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이 보다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되고있는 우리 나라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문학예술의 대중화, 온 나라의 예술화방침과 그 실현을 위한 방도를 새롭게 밝힘으로써 인민대중의 예술적재능과 창조적능력을 전면적으로 발양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정확한 지도적지침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지적하시였다.

광범한 군중에게 의거하며 군중을 발동하는 방법으로 문학예술을 발전시키는것은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입니다.

인민대중은 문학예술의 참다운 창조자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은 인민대중이 널리

참가하여야만 빨리 발전할수 있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은 철두철미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여야 하며 인민의 지혜에 의거하고 그들을 문학예술활동에 적극 인입하여야 빨리 발전할수 있다.

인민대중을 문학예술창조사업에 어떻게 인입하며 문학예술을 군중적토대우에서 어떻게 발전시켜나가는가 하는것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문학예술건설에서 해결하여야 할 원칙적문제의 하나이다.

문학예술을 대중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시종일관한 문예정책은 로동계급의 당이 인민대중의 예술적재능과 창조적능력을 어떻게 조직동원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가장 올바른 해답을 주는것으로 하여 주체적문학예술의 찬란한 개화발전을 보장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고전적문헌에서 밝히신바와 같이 문학예술활동을 대중화한다는것은 로동자, 농민, 병사들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을 문학예술활동에 널리 참가시켜 대중적인 지혜와 힘으로 문학예술을 창조하고 발전시키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문학예술을 마음껏 즐길수 있게 한다는것이다.

광범한 근로자들이 문학예술창작사업에 적극 참가하고 그들의 지혜가 발동되어야만 문학예술이 빨리 발전하고 인민대중의 사상감정과 생활을 생동하게 반영한 작품들이 더 많이 창작할수 있다.

그것은 인민대중이야말로 문학예술의 참다운 향유자일뿐아니라 그 진정한 창조자이기때문이다.

인민대중이 지니고있는 예술적재능과 창조적능력에 관한 문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의하여 력사상 처음으로 빛나게 밝혀지게 되었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사람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력사상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천명함으로써 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적인 요구에 맞게 자연과 사회를 개조할뿐아니라 참다운 문화도 창조한다는것을 밝히였다.

이것은 우리 당이 인민대중이 지니고있는 무궁무진한 예술적재능과 창조적능력을 어떻게 보고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조직동원하겠는가 하는 올바른 지도방침과 확고한 방법론을 세우는 근본초석으로 되었다.

문학예술활동을 대중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한 가장 혁명적인 방침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고전적문헌에서 문학예술활동을 대중화하는 사업을 심화발전시켜 온 나라의 예술화를 실현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밝혀주시었다.

우리 당이 새롭게 밝힌 온 나라의 예술화방침의 혁명적본질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문학예술활동에 적극 참가시키고 그 누구나 다 글을 짓고 그림도 그리며 작곡도 하고 노래도 부르며 악기도 다루고 춤도 출줄 알도록 하는데 있다.

우리 인민 모두가 다 글을 쓰고 그림도 그리며 춤도 출줄 알게 하여 전체 인민을 문학예술의 참다운 창조자로, 진정한 향유자로 되게 하는 온 나라의 예술화방침이야말로 문학예술대중화의 높은 목표를 밝혀주는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의 위대한 강령이다.

공산주의문학예술건설은 어디까지나 당의 령도 밑에 광범한 인민대중이 널리 참가하여야만 빨리 수행될수 있다.

문학예술활동이 대중화되어야만 력사의 주체이며 세계의 주인인 인민대중이 문학예술창조와 그 향유에서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놀수 있다.

온 나라의 예술화방침은 바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다 문학예술활동에 참가하게하는 동시에 문학예술의 향유와 창조에서 그들 모두를 다 참다운 주인으로 되게 할것을 요구한다.

그렇기때문에 온 나라의 예술화방침은 문학예술활동을 대중화하는 사업의 높은 목표로 되는것이다.

바로 여기에 우리 당이 내놓은 온 나라의 예술화 방침의 본질적특성과 그 독창성이 있다.

문학예술활동이 대중화되어 온 나라의 예술화가 실현되면 전체 인민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사회에 맞는 높은 문화적소양, 예술적자질을 소유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튼튼히 준비될것이다.

우리 당에 의하여 문학예술활동의 대중화, 온 나라의 예술화방침이 독창적으로 천명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에서 문학예술의 대중화를 어떻게 심화발전시키며 공산주의문학예술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전인민적으로 발전하게 되는가 하는것이 새롭게 밝혀지게 되었다.

온 나라를 예술화할데 대한 방침이 우리 당에 의하여 새롭게 밝혀짐으로써 우리의 군중문학에

술은 전인민적발전의 높은 령마루에 오를수 있는 정확한 지도적지침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문예리론발전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질뿐아니라 공산주의문학예술건설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으로 된다.

고전적문헌은 문학예술활동의 대중화, 온 나라의 예술화방침의 본질을 밝혀주었을뿐아니라 문학통신원들앞에 나서는 과업과 그것을 실현할수 있는 과학적인 방도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었다.

문학예술활동의 대중화, 온 나라의 예술화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인민대중을 문학예술창조에 적극 참가시켜 이르는곳마다에서 창작사업이 대중적으로 활발히 벌어지게 하여야 한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것은 문학통신원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지적하시였다.

문학통신원들은 문학예술활동의 대중화, 온 나라의 예술화 방침을 관철하는 선구자들이며 주체적문학예술건설의 믿음직한 후비대입니다.

문학예술활동의 대중화, 온 나라의 예술화방침 관철의 선구자, 주체적문학예술건설의 믿음직한 후비대, 이 자랑스러운 칭호에는 우리 문학통신원들에 대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두터운 믿음과 뜨거운 사랑이 깃들어있다.

우리 문학통신원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믿음, 이러한 사랑을 받아안는것보다 더 큰 영광, 더 큰 행복은 없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문학예술의 대중화, 온 나라의 예술화방침관철에서 문학통신원들이 차지하는 지위를 명백히 밝혀주심으로써 그들의 역할을 높일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었다.

문학통신원들의 위치와 그들의 역할을 어떻게 보며 그들의 힘과 지혜를 어떻게 조직동원하여야 하는가 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에서 풀어야 할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공산주의문학건설에서 문학통신원들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이 우리 당에 의하여 명백히 밝혀지게됨으로써 군중문학창작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벌릴수 있는 광활한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

이것은 문학의 새싹을 그 무엇보다도 귀중히 여기고 아끼며 키워주는 우리 당의 한없는 은정과 사랑, 크나큰 믿음의 표시이다.

모든 문학통신원들은 당에서 돌려준 이 크나큰 정치적 신임과 배려를 심장깊이 간직하고 문학예술활동의 대중화, 온 나라의 예술화 방침을 관

철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자기의 숭고한 임무와 역할을 다하여야 할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고전적문헌에서 문학통신원들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는 우수한 문학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수행에 힘있게 이바지하는 사상에술성이 높은 혁명적문학작품을 창작하기 위해서 문학통신원들은 무엇보다도 높은 정치적식견과 예술적기량을 갖추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창작실천이 보여주고있는바와 같이 정치적 식견과 안목을 높이지 못하면 당정책적요구를 민감하게 반영할수 없으며 약동하는 우리의 현실을 옹게 형상해낼수 없다.

또한 창작가들이 예술적자질을 높여야 인간과 그 생활의 본질을 일반화하는 높은 형상성을 보장할수 있다.

문학통신원들에게 있어서 정치적식견과 예술적자질을 높이는 문제는 문학예술활동의 대중화, 온 나라의 예술화방침을 관철하는 선구자로 자신을 준비하는데서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위업수행에 힘있게 이바지하는 사상에술적으로 훌륭한 문학작품을 창작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모든 문학통신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주체적문예사상, 당의 독창적인 문예리론과 방침을 깊이있게 연구체득하여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유일한 신념으로 만들어야 한다.

고전적문헌은 인간성격과 생활의 본질을 예술적으로 일반화하는 형상성, 이것이 문학의 생명이라고 말할수 있다고 하면서 문학작품의 형상성을 보장하는데서 제일 중요한것은 인간을 옹게 그리는것이라고 밝히였다.

문학이 인간을 그린다는것은 현실에서와 같이 숨쉬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산 인간과 그의 생활을 그린다는것을 말한다. 문학에 그려지는 인간은 현실에서 보는 산 인간처럼 구체적이며 개성적인 인간으로 생동하게 형상되어야 한다. 만약 문학작품에 개성적인 산 인간이 없다면 문학의 생명인 형상성이 있을수 없게 되며 따라서 문학이 참다운 인간학으로 될수 없다. 인간을 인간답게 그리는 여기에 문학을 참다운 인간학으로 되게 하는 담보가 있다.

인간을 옹게 그릴데 대한 사상은 인간으로서의 문학의 본성에 대한 과학적해명으로부터 출발하여 작품창작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에 가장 옹바른 해답을 준것이다.

주체사상은 력사상 처음으로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이 생명으로 된다는것을 밝힘으로써 사람의 본성에 대하여 과학적인 해명을 주었으며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의 근본문제 즉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그려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옹바르게 풀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론을 안겨주었다.

그리하여 우리 문학은 철두철미 주체의 방법론에 기초하여 주체가 선 산 인간을 구체적이며 개성적으로 그려내어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에 심오한 예술적해답을 줄수 있게 되었다.

고전적문헌은 또한 문학작품의 형상성을 보장하자면 생활을 생동하고 깊이있게 묘사하여야 한다고 밝히였다.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이 생활을 그린다는것은 인간본성의 개성적인 표현과정을 현실 그대로 생동하게 그린다는것을 말한다. 그런데 생활을 잘 그리는것이 형상성 보장의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되는 근거는 그것이 전형적인 인간성격을 창조하여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밝혀내게 한다는것과 관련된다.

작품에서 생활을 풍부하고 진실하게 그리는 목적은 결국 인간을 잘 그리고 인간문제를 깊이 밝혀내자는데 있다. 인간과 생활은 뽕래야 뽕수 없이 유기적으로 밀착되어있다. 인간이 있는곳에 생활이 있고 생활이 있는곳에 인간이 있기마련이다.

생활을 잘 그리지 않고서는 그 어떤 문학도 참다운 인간의 형상을 보여줄수 없으며 인간문제도 옹게 밝혀낼수 없다.

문학작품창작에서 언제나 인간들을 생동하고 진실하게 보여줄수 있는 전형적인 생활을 풍부하고 깊이있게 그려야 작품의 사상성과 형상성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다.

생활을 잘 그리는데서 중요한것은 생활을 세부화하여 그리는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문학통신원들은 백에서 하나를 고를줄 알아야 하며 하나를 통하여 백을 보여주는 형상능력을 키워야 한다.

바로 여기에 형상의 예술적가치를 확고히 담보하는 생활묘사의 비결이 있다.

고전적인 문헌에서 밝힌바와 같이 문학창작은 말그대로 창조적인 사업이다.

창작은 본래의 의미에서 비반본적이고 독창적인것이다. 그러므로 문학예술작품은 같거나 류사하지 말아야 하며 서로 구별되는 자기 고유의 특성을 가져야 한다.

독창성과 창작적개성을 살리는 문제는 문학통신원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창작이란 말그대로 새것을 만들어내는것이지 이미 있는것을 반복하거나 모방하는것이 아니다.

문학통신원들은 창작에서 자기 고유의 얼굴과 목소리를 가지고 문제성 있는 작품을 창작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과 생활을 어디까지나 독창적으로 보고 파악하여야 하며 그를 일반화하고 개성화하기 위한 올바른 자세와 피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이 문학통신원들의 창작사업에서 독창성과 창작적개성을 발양하기 위한 올바른 길이다.

고전적문헌은 또한 창작에서 성과의 비결은 오직 창작가의 높은 사상과 열정에 있다는것을 밝혀주고있다.

창작적열정에 관한 문제는 어디까지나 창작가의 사상적립장에 관한 문제인 동시에 현실을 대하는 자세에 관한 문제이다. 창작적열정이 작가를 창작으로 추동하는 힘의 원천으로, 작품을 성공하게 하는 요인의 하나로 되게 하는것은 바로 이와 관련된다. 따라서 창작적열정과 기백이 없이는 작품을 창작할수 없다. 그것은 문학작품이 곧 창작가의 열정의 산물이며 열매이기때문이다.

창작사업은 곧 불타는 열정과 기백으로 충만된 정력적인 투쟁과정이다. 여기로부터 창작사업에서는 시간이 많거나 날자를 길게 잡는다고 하여 작품이 잘되는것이 아니다. 오직 창작적 흥분과 정열을 가지고 완강한 의지와 피타는 노력으로 대담하게 돌진할 때 비로소 좋은 작품이 창작될수 있다.

문학통신원들은 항일혁명선렬들이 조국광복을 위한 투쟁에서 발휘한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따라배워 항일유격대식으로 혁명적으로 살며 일하면서 창작을 정력적으로 벌려야 한다.

창작적열정만 있으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신심을 가지고 생산과 창작에서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해야 한다.

문헌은 이밖에도 군중문학창작사업에서 새로운 양양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 부문사업에 대한 지도를 개선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문학통신원들과의 사업을 몇몇 일군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작가동맹적인 사업으로 전체 작가들의 사업으로 전환시킬데 대하여 밝혔다.

군중문학창작을 지도하며 작가후비를 키우는 사업은 우리 당에 의하여 교양육성된 우리 작가들이 지니고있는 영예롭고도 중요한 임무이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것은 문학통신원들에 대한 작가들의 개별담당제에 의한 지도를 강화하는것이다.

문학은 인간과 생활을 형상적형식으로 반영하는 사회주의식형태의 하나인것만큼 창작적기량이 없이는 그것을 창작해낼수 없다. 문학통신원들

의 창작적기량을 키우기 위한 사업은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할수 있으나 그 가운데서 가장 효과적인 방도는 작가들이 문학통신원들을 개별담당하여 그들의 준비정도의 창작적개성에 맞게 체계적인 지도와 방조를 주는것이다.

작가들의 개별담당제는 문학통신원들이 아무때나 작가들의 개별지도를 받을수 있게 하는 가장 우월한 방법이다.

또한 문헌은 문학통신원들이 소속되어 일하는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초소들에서 그들의 창작활동을 당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적극 보장해줄데 대하여 밝히었다.

오늘 우리의 문학통신원들은 창작활동은 물론 창작강습에도 참가할수 있는 조건과 편의를 원만히 보장받고있다.

문학통신원들은 크나큰 사회적 관심과 지원속에서 문학창작활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이것은 우리 당의 품속에서 자라나는 우리 문학통신원들만이 누릴수 있는 혜택이며 행복이다.

실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문학창작사업을 대중적으로 벌려 우리 문학을 새로운 높은 단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뚜렷한 방향과 방도를 현명하게 밝혀주시였을뿐아니라 정력적이고도 세련된 령도와 크나큰 사랑으로 우리 작가들과 문학통신원들을 따듯이 이끌어주시였다.

지난 1년간 문학예술활동의 대중화방침관철에서는 참으로 비약적인 전진이 이룩되였다.

이것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내놓으신 고전적문헌의 정당성과 그 거대한 생활력을 뚜렷이 확증하여주는것이다.

우리 당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문학예술활동의 대중화방침관철에서 달성한 가장 중요한 성과는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에서 문학창작사업이 매우 높은 수준에서 대중화되고있는것이다. 그것은 우선 로동자, 농민, 병사를 비롯한 광범한 군중속에서 창작된 작품들이 날을 따라 급속하게 늘어나고있는데서 볼수 있다. 한해동안만 하여도 군중들속에서 창작된 문학작품은 무려 수만편에 이르며 그중에는 장중편소설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35돐기념 현상모집에는 수없이 많은 작품들이 들어왔다.

이것은 광범한 근로자들속에서 문학창작에 대한 열의가 얼마나 높아졌는가 하는것을 보여주는 뚜렷한 실례로 된다.

문학창작의 대중화가 높은 수준에 오른것은 또한 문학통신원대렬이 급격히 장성하고있는데서도 나타나고있다.

지난 한해동안만 하여도 근로자들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문학통신원으로 되었으며 사상예술성이 높은 좋은 문학작품을 창작하여 우리 군중문학의 화원을 풍만하게 꽃피우고있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군중문학창작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는 또한 군중문학작품의 사상예술적수준이 훨씬 높아지고있는데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있다.

우리 당의 현명한 교육정책과 문학예술활동의 대중화방침에 의하여 근로자들의 일반지식수준과 문화적소양이 급격히 높아짐으로써 군중문학의 높은 사상예술적수준이 확고히 담보되게 되었다.

군중문학의 높은 사상예술성은 시대와 혁명이 절박하게 해결을 기다리는 사회적문제,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대담하게 내세우고 그것을 우리 당의 정책과 인간학적특성에 맞게 훌륭히 형상하고있는데서 볼수 있다.

문학통신원들의 소설문학은 생활을 도해하고 개념화하면서 상식적인 이야기를 지루하게 라렬하던 낡은 틀에서 벗어나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게 인간과 그 생활을 잘 형상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혁명적수령관을 튼튼히 세워주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으며 그들을 창조적로동과 새 생활창조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생활의 교과서, 투쟁의 무기로서의 자기의 면모를 훌륭히 갖추어나가고있다.

시문학창작에서도 산문화의 경향을 극복하고 우리 시대 인민들의 주도적감정을 풍부한 서정에 담아 노래하려는 지향이 현저히 강화되었다.

우리 시대, 우리 인민들의 주도적감정은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끝까지 충성다하려는 숭고한 념원과 지향이다.

우리 시대 인민들의 이러한 주도적감정을 풍부한 서정에 담아 노래하고있는것은 우리의 문학통신원들이 시대정신을 심장으로 체득하고 시대의 한복판에 확고히 서서 힘있게 전진하고있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다.

문학통신원들은 또한 우리 시대 아동들의 연령심리적특성에 맞게 작품을 창작하면서 아동문학작품의 종류와 양상도 다양하게 발전시키고있다.

특히 동화, 우화창작이 활발해지고 아동소설과 동요, 동시창작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고있다.

군중문학의 성과는 희곡문학창작에서도 나타나고있다. 극조직에서 사건선에만 매달려 일반성격을 깊이있게 추구하지 못하고있던 결함들을 극복하고 《성황당》식 혁명연극의 극작술의 요구에 맞게 감정조직을 기본으로 하여 등장인물들의 성

격을 깊이있게 파고들고있다. 군중문학작품들의 사상예술적성과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제정하여주신 《6월 4일 문학상》 금년도 수상작품들이 집중적으로 말하여주고있다.

단편소설 《포성이 멎은뒤》(조필수), 서정시《소조원의 마음》(강기수), 아동단원소설 《샘물》(송혜경), 희곡 《봄우뢰》(김병학)는 생산과 건설의 주인들만이 제기할수 있는 참신한 인간문제들을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구현함으로써 우리 군중문학이 도달한 높이를 말하여주고있다.

군중문학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는 또한 군중문학사업에 대한 지도체계가 확립되고 문학통신원들에 대한 지도가 더욱 강화되고있는데서도 찾아볼수있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군중문학창작에 대한 지도체계가 정연하게 서고 문학통신원들을 지도방조하는 사업이 작가동맹적인 사업으로 전환되게 되었다.

당의 지도밑에 문학통신원들에 대한 작가들의 개별담당제가 확립되고 그것이 실속있게 운영됨으로써 문학통신원들의 창작기량이 급속히 높아졌다. 그리고 도마다 문학통신원들을 위한 강습을 진행함으로써 그들의 창작적기량을 더욱 높이고 그들속에서 우수한 작품들이 많이 창작완성되게 되었다.

참으로 지난 1년간에 이룩된 군중문학창작의 성과와 경험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고전적 문헌에서 밝히신 사상의 위대성과 그 정당성을 힘있게 확증하여주고있다.

문학예술활동을 대중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 길에서 달성한 이 모든 고귀한 성과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정력적인 지도와 세련된 령도, 끊임없는 배려와 한없는 사랑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참으로 지난 기간 비약적으로 전진하여온 우리의 군중문학발전의 빛나는 로정우에 아로새겨진 우리 당의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여나가는것은 오늘 우리 작가들과 문학통신원들 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신성하고 영예로운 임무이다.

우리 작가들과 문학통신원들, 모든 근로자들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우리 당이 내놓은 문학예술활동의 대중화방침을 높이 받들고 사상예술성이 높은 우수한 문학작품을 창작하는데 자기의 모든 정열과 재능을 바침으로써 군중문학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며 온 나라의 예술화를 실현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회전로

오광호

1

비가 내리고있었다.

정문에 세워놓은 대형속보판이 비에 축축히 젖어들고있었다. 비에 젖어 거무스레해지고있는 속보판에는 큼직큼직한 글씨로 《회전로가동일수를 늘이기 위한 시험조업마감. 국가기준지표보다 로가동을 열흘 더 연장》이라고 써여있었다. 가느다란 비발에 휩싸인 속보판은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거렸다.

한쪽손을 허리에 가져다대고 사무실창가에 서있는 초급당비서 리재영은 속보판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있었다.

때때로 정문을 나드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앞에서 걸음을 멈추는 사람은 없었다. 비때문일까?

...어제는 제강소의 모든 종업원들이 그앞에서 환한 얼굴로 걸음을 멈추었고 사택마을에서는 년로보장을 받고있는 늙은이들 몇이 손자녀석들의 손목까지 잡고 《대표》처럼 찾아와보고 갔다. 물론 비는 내리지 않았었다.

천천히 돌아서서 자리에 가 앉은 재영은 마음이 무거웠다. 방금 주간사업토의가 끝난 뒤였다. 비발이 차츰 굵어지는듯 창문에 뿌려지는 비방울소리가 어수선하게 들려왔다.

재영은 지난밤 시험조업정형을 총화하는 참모회의에 참가하였었다.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지배인방에 간 그는 대단히 기분이 좋았다. 닷새전에 새로 부임한 그는 시작부터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낮에 시험조업의 마감을 보기 위해 현장에 찾아왔던 시당의 한 비서는 로가동을 열흘이나 더 늘였다는 말을 듣고 투실투실한 큼직한 손으로 그의 어깨를 툭 치며 《동무는 참 운수좋은 초급당비서요.》라는 말까지 하였었다.

그도 기뻐다. 어떻게 보면 언제나 《운수》가 좋았던것 같았다. 가는곳마다 일이 잘되었던것이다. 혹 안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것도 역시 언제나 당분간이었었다.

형광등의 푸르스름한 불빛이 환히 흐르는 넓은 방은 회의에 모인 일군들의 활발한 이야기와 윤패한 웃음소리로 어지간히 소란하였다. 이야기는 대체로 시험조업과 그것을 책임지고 진행한 회전로직장현장기사 윤명준이에 대한것이였다. 재영은 명준을 이곳에 도착하던 날 현장에서 만났었다. 두달전에 소환되여간 이전 로직장책임기사 사업을 대리하고있다는 명준은 그날 혈색이 좋은 넘직한 얼굴에 반가운 웃음을 가득 담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우리 공장은 일해볼만한곳입니다.》

라고 스스럼없이 인사를 하고 신이 나서 회전로공정을 설명하여주었다. 손짓, 몸짓을 해가며 열중하여 이야기하는 그는 마치 세상에 오직 회전로를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보였었다.

(열정적인 동무야, 그 동무에게는 무엇인가 사람들을 흥분시키는것이 있는것 같애...)

《다 왔소?...》

방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에겐 관계없이 시험조업과 관련된 기술문건을 열심히 들여다보던 지배인이 얼굴을 들고 누구에게라 없이 물었다. 《명준동무가 보이지 않는구만...》

《지령실에 잠깐 들렀다오겠다고 했는데 아직...》

류달리 목이 길고 입술이 두툽한 회전로직장장이 두리번거리며 대답하였다.

《지령실에? 》

이에 문이 열리며 체육선수들처럼 후리후리한 키에 균형이 잡힌 몸집을 가진 명준이가 들어왔다. 그는 흰 와이샤쓰우에 단추가 세개 날린 체킨형의 진한 곤색 작업복을 걸쳤는데 허리에 띠가 달린 그 옷은 활동적인 명준이에게 아주 잘 어울리었다.

《오는구만. 이리 나오우.》

지배인이 문옆자리에 앉은 명준을 보며 말했다. 명준은 엉거주춤했다.

《여기도 좋습니다.》

《나 오라니까... 오늘은 동무가 주인이란말이요.》

명준은 딱한듯 벌개진 얼굴에 어색한 웃음을 띠우며 앞으로 나와앉았다. 지배인이 일어섰다. 잔기침소리와 의자들을 당겨놓는 소리가 일시에 났다.

《동무들, 우린 최근에...》

보고를 시작하던 지배인이 말을 툭 끊었다. 문소리가 났던것이다. 모두가 돌아보았다. 문이 열리며 보통키에 몸집이 좀 작아보이는 사람이 들어왔다. 아래우에 거무스레한 작업복을 입고 랑쪽 팔소매를 조금 걷어올린 그 사람은 재영이로서는 처음이였다.

《동문 왜 지금이야 오오. 빨리 아무데나 앉소.》

지배인이 언짢은 소리로 재촉하였었다.

그 사람은 방금 명준이가 앉았던 문옆 그자리에 앉았다. 그리고는 미안한듯 머리를 숙였다. 어디에 갔다왔는지 머리와 어깨에 먼지가 올라 허영게 보였다.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돌리지 않았다. 이상하였었다. 마치 회의에 참가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들어와 앉은것 같은 감이 났다.

지배인이 다시 보고를 시작하였다. 그는 보고에서 이번 시험조업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그것을 위해 바친 운명준과 시험로 전투원들의 노력적위훈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그리고 시험조업의 시작과 그 과정에 나타났던 일부 보수주의적이며 기술신비주의적인 현상들에 대하여서도 지적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었다.

흥분한 지배인은 이런 말로 보고를 끝내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공장의 모든 로들을 시험로처럼 불을 지펴서 보수때까지 열흘씩만 더 돌리게 된다면 우리는 1년에 회전로 몇기를 거저 얻는거로 됩니다. 이거야말로 불로소득이지요. 아마 부에서도 보고를 받으면 먹은 나이가 있어야 셈이 든다는 말대로 오랜 제강소가 다르다고 만족해 할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도 허리띠를 늦추지 말고 래일부터 공장의 모든 로들에 시험조업의 성과를 받아들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겠습니까.》

뒤이어 토론들이 진행되었다. 토론들에서도 역시 보고에서 언급한 문제들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고 부와 해당한 상급기관들에 시험조업이 성공하였다는것을 정식으로 보고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모두가 흥분하고있었다. 재영이도 흡족하였다. 그는 웃음을 띤 얼굴로 방안을 빙 둘러보았다. 생산부기사장과 지령장, 파장들과 참모부서지도원들...

한사람 한사람을 주의깊게 살펴가던 재영의 눈길이 한곳에서 멈추어졌다. 유독 한사람만이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게 우울한 얼굴로 머리를 숙이고 앉아있는것이였다. 맨나중에 들어와 문옆자리에 앉은 그 사람이였다. 재영은 유심히 그 사람을 지켜보았다. 저 사람은 누구인가?... 왜 저렇게 머리를 숙이고 앉아있는가. 어디 불편하여 그러는가. 아니면 그가 혹시 보고에서 지적된 그 보수주의적인 견해를 가지고있었다는 사람인가. 그럴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머리를 숙이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 이것은 내가 너무 심각하게만 생각하는것일수도 있다.

재영은 몇년전에 있었던 일이 기억되었다. 그때 시당지도원으로 어느 한 기계공장의 기술혁신협의회에 참가하였던 재영은 회의가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 류달리 침울해 앉아있는 한 청년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는 몹시 불쾌하였다. 틀림없이 그 청년이 기술혁신에 관심이 없거나 반대의견을 가지고있다고 짐작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청년에게 기술혁신의 중요성과 우리 시대 청년들의 숭고한 임무에 대하여 진지하게 일깨워줄것을 결심하고 회의후에 따로 만났다. 그런데 뜻밖에도 청년은 방금전에 취급한 기술혁신안의 열렬한 지지자로서 공교롭게 회의에 들어가기전에 자기의 애인과 말다툼을 하였던것이였다.

《자, 그럼 부에 시험조업이 성공하였다는걸 보

고하는게 어땠소?》

생각에 잠겼던 재영은 지배인의 절절한 말소리에 현실로 돌아왔다.

지배인은 이미 회의는 기본적으로 끝난셈이라는듯 의자등받이에 몸을 편안히 기대며 방안을 빙 둘러보고있었다. 만족한 얼굴이였다. 몇사람이 앞뒤를 두리번두리번 살펴보고 다시 지배인을 쳐다보았다. 무슨 의견이 있겠는가 하는 눈치였다.

이때였다. 《의견이 있습니다.》 하며 일어서는 사람이 있었다. 머리를 숙이고 앉아있던 그 사람이였다. 그 사람의 기다란 그림자가 흰벽우에 꺼멓게 비쳤다. 순간 재영은 《역시 옳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며 불안해지였다. 습관적으로 겹쳐놓은 사업노트를 끌어당기였다.

그 사람은 자기에게 쏠린 참가자들의 시선을 받기가 피로운지 눈을 내려뜬채 잠시 그대로 서있었다. 환한 불빛아래 약간 벗어질가한 이마가 두드러져보였다. 지배인이 재영이에게 《회전로직장 현장기사박민우동무입니다.》라고 말하고 그 사람에게로 머리를 돌렸다.

《어서 말하오.》

재영은 사업노트에 《박민우》라는 이름을 적어넣었다.

《저는 이미 며칠전에도 제기하였지만...》

힘들게 말을 시작한 박민우는 중간에서 다시 한번 숨을 크게 몰아쉬였다. 그리고는 아래입술을 강물고 서있다가 드디어 결심을 한듯 열기를 띤고 번쩍이는 눈으로 지배인을 쳐다보았다.

《저는 시험조업을 다시 할것을 제기합니다.》

너무도 뜻밖의 제기였다. 지배인은 물론 재영이도 놀랐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시험조업을 다시 하다니?...》

지배인이 어처구니없어 하였다.

《우리는 이번 시험조업을 내화벽돌축조에서나로조업에서 그 어떤 새로운 발견을 가지고 한것이 아니라 가장 리상적인 조건에서의 원료와 연료보장을 기본으로 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다시말하면 다른 로들에는 어느 정도 장애를 주면서도 시험로에만은 원료와 연료를 골라먹이며 로가동을 늘였던것입니다. 이것은 시험조업에서 얻은 성과를 곧 생산에 도입하기 불가능하다는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게 시험조업이라고 하질 않소.》

누구인가 소리쳤다. 운명준이였다. 그를 바라보는 박민우의 두눈이 불꽃이 꺼진듯 어두워졌다. 크지 않은 얼굴에 짙은 그늘이 졌다. 잠시후 그는 다시 담담한 소리로 말하였다.

《그리고 중요한것은 방금 로를 세웠기때문에 구체적으로 점검해보지 못하였지만 설비들이 혹사된것 같습니다. 이것은 로보수기일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것입니다.》

그는 입을 다물었다. 재영은 그제야 그가 방금

전에 로에 들어갔다 왔다는것을 짐작할수 있었다. 머리와 어깨에 묻은 허연 먼지는 내화벽돌가루였다. 몇사람이 박민우의 말에 공감을 표시하는 듯 머리를 끄덕이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거요?》

《예.》

《동무는 언제나 보아야… 앓소.》

낮색이 컴컴해진 지배인이 신경질적으로 말하였다. 민우는 안타까운듯 지배인을 바라보며 무엇인가 더 말하려다가 그대로 앉았다. 여기저기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났다. 윤명준이가 일어섰다. 그는 창백해진 얼굴로 재영이와 지배인을 쳐다보며 흥분에 떨리는 소리로 말하였다.

《유감스럽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박민우동무가 어떻게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런 제기를 할수 있습니까.》

《정말 답답하오.》

명준의 말에 지배인이 맞장구를 치었다.

똑똑똑

문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생각에서 깨어난 재영은 문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초급당지도원이 들어왔다.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

《집에서 왔습니다.》

재영은 《천리마동상》 그림이 새겨진 네모난 봉투를 받았다. 편지는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왔으나 자그마하고 둥글둥글한 글씨는 안해의 것이었다.

그의 얼굴에 빙긋이 웃음이 떠올랐다. 지도원도 리해가 된다는듯 히죽이 웃었다. 마치 《저도 비서동무가 고급당학교를 졸업하고 곧장 공장으로 온것을 알고있습니다.》라고 말하는듯싶었다.

《고맙소.》

《다른건 없습니다.》

지도원은 비서에게 사생활의 여유를 주려는듯 서둘러 말하고 돌아섰다. 그리고는 문을 꼭 닫고 나갔다. 재영은 지도원의 등에 가벼운 웃음을 보내며 일어섰다. 그도 집소식이 무척 궁금하였던것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인민학교에 갓 입학하였을 아들의 소식이 몹시 그리웠다. 창가에 다가가 봉투안의 속지를 한번 비추어보고 봉인을 떼던 재영은 그 어떤 예감에 창밖을 다시 내다보았다. 아니나다를가 비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유리창으로 속보판앞에 서있는 지배인의 모습이 보였다. 방수포비옷을 입고 커다란 장화를 신고 지배인은 두손을 주머니에 깊숙이 찌른채 비에 축축히 젖은 속보판을 들여다보며 서있었다.

재영은 속이 좋지 않았다. 끄르머리가 반쯤 찢어진 편지봉투를 그대로 주머니에 넣었다. 창밀에서 물소리가 들렸다. 바람이 확 불며 물에 젖은 노르스름해진 백양나무 잎사귀가 날아와 창문에 척 붙었다. 박민우,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

가... 재영의 눈앞에는 회의장면이 다시금 떠올랐다. 윤명준의 토론은 신랄하였었다.

《위험합니다. 나는 이것을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동무들도 다 아는바와 같이 우리는 바로 몇달전에 로동자들의 힘을 믿지 못하고 혁신한 기술신비주의를 부려 우리의 전진운동에 장애를 준 박민우동무의 과오를 비판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가 어느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이룩하여놓은 성과까지도 부정하고있습니다.》

격분한 명준은 민우를 향해 돌아섰다.

짙막한 그의 그림자가 함께 돌아섰다.

《그래 동문 다른 로들에 장애를 주면서 원료를 골라먹었소, 설비가 혹사되었소 하는 소리를 가지고 시험조업에 바친 로동자들의 위훈과 성과를 부정할수 있다고 봅니까. 천만에... 오산입니다.

그 무엇을 가지고도 동무는 열흘이라는 이 엄연한 수자를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의 말은 마디마디가 민우를 후려치는 날카로운 채찍같았다. 그러나 민우는 태연하였다. 마치 형틀에서 꺼내놓은 쇠덩어리마냥 끄덕없이 앉아있었다. 민우를 쏘아보던 명준은 다시 돌아서서 재영을 쳐다보며 의미심장한 어조로 말하였다.

《나는 박민우동무가 리해되지 않습니다.》

말을 끝낸 그는 펼쳐들기는 하였으나 한번도 들여다보지 않은 사업노트를 탁소리가 나게 덮고 앉았다. 탁 하는 소리까지도 토론의 말마디처럼 들렸다.

방안에는 다치면 뒤틀것 같은 팽팽한 기운이 떠올랐다. 몇사람의 소심해진 눈길은 재영을 살폈다. 그러나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민우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민우가 반드시 다시 일어나 자기의 제기를 설명하리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일어서지 않았다. 지배인이 회의결속을 앞두고 제기할것이 없는가고 물었을 때에조차 그는 낮으나 명백하게 《저는 제가 생각하고있는것을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라고 대답하였을뿐이었다. 그리고는 아까와는 달리 머리를 들고 지배인을 곧바로 쳐다보고있었다.

재영은 민우가 자기의 의사를 주장하고있을뿐 아니라 자신의 정당성에 대하여 확신하고있다는것을 느낄수 있었다. 회의는 로의 전반적설비상태를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점검해본후에 시험조업결과를 웃기관에 보고할데 대한 결정을 하고 끝났었다.

재영은 창유리에 붙어있는 백양나무 잎사귀를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물에 씻긴 노르스름한 잎사귀는 바람이 스칠 때마다 팔락거리면서도 떨어지지 않았다.

나긋나긋 해보이는 입꼭지와 활짝 펼친 손가락마냥 량옆으로 뻗어나간 잎줄기들에는 아직 푸른 기운이 돌았다. 박민우, 어떻게 되어 그는 그런 제기를 하였는가?... 그리고 그의 과오란 무엇

인가... 지배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2

박민우.

그의 나이는 마흔여섯살이었다. 전후에 군사복무를 하였고 1967년에 대학을 졸업하였다. 당생활년한은 10년이였다.

우리 나라 어느 공장, 기업소에 가도 쉽게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중년 지식인이었다. 그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에도 특별한것이 없었다. 《책임성이 있다》는것이 좋은점이었고 《고집이 있다》는것이 부족점이었다. 특징이라고 지적할만한것은 말이 적은것이였다. 책임성과 고집... 우리 당이 키워낸 지식인들에게 있어서 책임성은 일반적인것이다. 그리고 책임성이 있는 사람치고 고집이 있다는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는가. 더우기 공학자들인 경우에는 그것을 직업적인 공통성이라고도 볼수 있지 않는가. 재영은 시간이 흐를수록 민우의 제기가 옳든 그르든 무심히 스칠수없다는데 대하여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혹 지배인인 경우에는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부정하는것으로 그와의 사업을 끝낼수 있었지만 자기는 그렇게 할수 없었다. 그는 당일군이였다. 당일군인 재영은 민우가 왜 그런 제기를 하였는가 하는것을 끝까지 알아야 하였다. 더우기 그의 제기는 누구나 선뜻 내놓고 할수 있는것이 아니였다. 자칫하면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질시뿐 아니라 엄중한 오해까지도 살수 있는것이였다. 그는 지배인앞에 태연하게 서있던 민우의 모습을 다시금 그려보았고 그의 파오에 대하여 지적하던 명준의 토론을 되새겼다.

《파오라...》

그는 지금 민우를 만나기 위해 현장으로 가고 있었다. 차고 굵은 비방울들이 검은 고무비옷을 요란하게 두드려대였다. 공간에 펼쳐놓은 그물처럼 바람부는대로 날리며 마구 쏟아지는 비발로 하여 걸기가 힘들었다. 사무실을 나서기에 앞서 재영은 여러가지로 생각하여보았다. 그것은 곧 자신의 준비정도에 대한 검토였다. 박민우, 그는 처음 만나는 사람이였다. 그러므로 그에 대하여서는 아는것보다 모르는것이 더 많았다. 오히려 아는것이 있다면 몇달전에 심중한 파오를 범하였고 지난밤에는 남들이 다 인정하는 시험조업의 성과를 전면적으로 부정한 문제있는 당원이라는 것이였다.

때문에 그는 처음에 민우보다 그와 함께 일하는 당원들을 만나자고도 생각하여보았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는 아직 자신의 결함에 대하여 드러내놓기 두려워하며 될수록 잘 보이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더러 있기때문이었다.

또 그리고 생활은 종종 본인보다 그의 우점과 부족점에 대하여 남들이 더 잘 안다는것을 보여 주는것이였다. 그러나 재영은 민우를 직접 만나

기로 결심하였었다.

(문제가 있건 없건 그리고 잘 알든 모르든 민우는 이미 내가 책임진 당조직의 당원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를 믿어야 한다. 믿어야 할뿐 아니라 그의 오늘과 래일, 지난날의 파오에 대하여서까지 당앞에 책임져야 한다. 만약 책임지지 않는다면 나는 이미 자격을 잃은 일꾼인것이다. 물론 민우는 처음 만나는 나에게 속을 잘 주지 않을수도 있다.

그러나 그가 비서와 당조직을 구별 못할 사람이겠는가. 당비서인 나는 오늘 왔다가 래일 갈수도 있지만 당조직은 그런것이 아니다.) 깊은 생각에 잠겨 걸음을 옮겨가던 재영은 문득 발등에서 꿈틀하는 욕감을 느꼈다. 흠칫 놀랐다. 어린아이 주먹만한 개구리 한마리가 발등에 툭 튀어올랐다가 떨어지는것이였다.

제풀에 놀란 그는 포장도로 옆 잔디밭에 날새개 가앉아 재영을 대륙대륙 쳐다보았다. 입안에서 《깨르륵》 하는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났다. 순간 재영은 때없는 마가울 장마가 지는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피뚱 들었다. 얼굴을 들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뿌연 재빛하늘에서는 검은 연기같은 비구름들이 서서히 움직이고있었다. 싸늘한 물방울들이 얼굴에 축축히 뿌리우며 습습한 비냄새를 풍겼다. 재영은 다시 걸음을 옮겼다. 그의 앞으로 한 녀인이 걸어가고있는것이 보였다. 닙알색갈의 노르스름한 비옷, 파란우산 그리고 발목을 가리운 흰 사출장화, 머리를 숯구이 숙이고 걸어가는 녀인은 회뿌영게 흐린 대기속에서 유묘하게 두드러져 보였다. 누구인가?...

회전로직장 현장은 여전히 들끓고있었다. 거대한 굴뚝들을 주련히 가로놓혀 놓은것 같은 회전로들이 웅웅 대기를 울리며 힘차게 돌아가고있었다. 거뭇거뭇한 실한 몸뚱이들에서는 흰김이 문문 피어오르고 있었다. 대보수직장이 자리잡은 바다가쪽으로부터 공장방송차가 달려오며 방송원의 쟁쟁한 목소리가 회전로직장 넓은 구내를 들었나놓았다.

《전투원동무들, 내화물직장의 전투원들은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임으로써 최근 맡겨진 생산과제를 매일 150프로 넘쳐 수행하고 있으며 공무동력직장과 주강직장 전투원들 역시 빛나는 기적과 혁신을 일으키고있습니다.》

방송차가 구내길을 따라 물살을 일으키며 사라지자 방송원의 소리도 점차 가늘어지다 비속에 잠겨들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방송을 듣고있던 재영은 무거운 표정으로 방송차가 사라진쪽을 이윽히 바라보고 서있었다. 무엇인가 예감되는 것이 있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고있습니까?》

재영은 돌아섰다. 지배인이였다.

《예, 그저 좀...》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재영이가 물었다.
《아니, 보수직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곳 동무들과 시험로보수문제를 좀 토의해 보려고...》

지배인은 말끝을 맺지 않았다. 기분이 좋은 것 같지 않았다. 키가 장대같은 그는 재영이보다 나이도 몇년 더 많았을뿐 아니라 모든 것이 대조적이었다. 중키에 반듯한 얼굴을 가진 재영은 단정하고 심중해보였다면 지배인은 키도 컸을뿐 아니라 광대뼈가 쑥 나오고 턱이 기다란 것이 거칠고 드세차보였다. 그만큼 일도 무섭게 해제킨다고 소문이 난 그였다.

그들은 회전로들이 줄지어 늘어선 밑으로 걸어갔다. 후끈후끈한 열기가 풍겨왔다. 이따금 미적지근해진 비방울들이 얼굴에 떨어지었다.

《지난밤엔 참 안됐습니다. 사람은 워낙 나쁘지 않은데... 그 동무가 그런 제기를 하리라고는 나도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지배인이 절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민우의 제기를 자신의 불찰로 여기며 진심으로 미안해하였다. 이해가 되었다.

그러면서도 재영은 섭섭하였다. 《나는 아직 손님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쩔수 없는 일이었다. 아직은 공장과 사람들에 대하여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은 자기였다.

《그런데 참 야단은 야단입니다. 사람이 영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군요.》

지배인이 답답해 하였다.

《비서동무도 어제저녁에 보았지만 이건 무슨놈의 고집인지... 물론 그 사람의 말이 다 그런 건 아니지요. 그러나 시험조업을 하면서 다른 로들과 똑같이 원료를 먹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먼저 가능성부터 찾아야지요...》

《설비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점검하고있으니까 두고보아야 하겠지만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명준동무가 늘쌍 붙어있으니까요.》

《.....》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다. 버럭버럭 비웃자락이 스치는 소리가 났다.

《몇달전에도 그 동무는...》 지배인이 다시 입을 열었다. 《로동자들이 제기한 회전로바람설비를 개조할데 대한 창의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되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운명준동무가 상기시킨 파오라는게 바로 그것입니다. 이미 생산을 올리는 데서 크게 은을 내고있지만 그때 민우동무가 그걸 선뜻 받아들이지 않는통에 우린 적지 않은 손해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사람이 대답을 안하자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고 주저했던말입니다. 그레 후에 당회의에서까지 문제가 론의되고 그 동무는 되게 얻어맞았지요. 그바람에 한동안 박동무가 해임될 것이라는 소문이 다 돌았었습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는 지배인의 얼굴은 침침해지었다. 갑자기 몇년 더 늙어보였다.

《비서동무, 내 그레 지난밤 회의가 끝난후에 여러가지로 타산해보았는데 박동무를 설계실이나 기술연구실에 돌려놓자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 사람을 위해 그게 좋을것 같습니다. 본래 사람은 좋고 기술도 있으니까말입니다.》

지배인의 말에는 민우에 대한 진정이 흐르고있었다. 물웅덩이가 나타났다. 두사람은 다 장화를 신었으나 서로 갈라져 빙 돌아갔다. 재영은 재영이대로, 지배인은 지배인대로... 둘다 자기 생각에 잠겨 걸었다. 지배인이 다시 옆에 오자 재영이가 걸음을 멈추었다.

《지배인동무는 그레 박동무가 왜 그걸 선뜻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봅니까?》

《글쎄말입니다. 비판은 기술신비주의를 부린것으로 받았는데... 본인도 그렇게 인정했지요.》

《.....》

재영은 머리가 복잡하였다.

지배인은 민우의 제기를 부당한 고집으로 보고 있는것이 분명했다.

과연 그렇겠는가... 지배인뿐이 아니다. 명준은 지난밤 민우의 제기에 대하여 위험하다고까지 말하였다. 그것은 민우가 그 어떤 불만을 가지고 시험조업의 성과를 의식적으로 부정하고있다는 암시였다.

《시험조업에 대한 초기 민우동무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재영의 물음이었다.

《시험조업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 주장하고 말뻔고 나선것이 그 동무였습니다.》

다시 비웃자락이 스치는 소리가 났다.

회전로직장 사무실이 나타났다. 재영은 걸음을 멈추었다. 지배인도 멎어섰다.

《알았습니다. 지배인동무의 의견을 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그들은 갈라졌다. 재영은 회전로직장 사무실로 가고 지배인은 보수직장으로 향했다.

3

회전로직장의 텅 빈 사무실에는 웬 녀인이 홀로 앉아있었다. 깊은 생각에 잠긴듯 머리를 숙이고 앉아있던 녀인은 재영을 보자 당황해하며 일어섰다. 땀알색갈의 노르스름한 비웃, 흰 사출장화 그리고 걸상옆에 접어놓은 파란 우산, 아까 그의 앞에서 걸어가던 녀인이었다.

녀인은 다소곳이 머리를 숙여 인사했다. 어디 서인가 본듯한 인상이었다. 파르스름해 보이는 맑은 얼굴, 약간 몸이 날사한 크고 곧은 체격, 그리고 기다란 속눈썹에 덮이운듯한 수심을 띤 두눈, 녀인은 방금 40줄에 들어서서듯한 중년이였지만 아직 아름다웠다. 리지적인데가 있어보였다.

어디서 보았던가? ...

《어서 앉으십시오.》

재영은 책상앞으로 다가가며 말했다.

희미한 소독약냄새가 풍겼다. 순간 재영은 기억이 되었다. 오랜 당사업이 가져다준 사람들에게 대한 그의 특별한 기억력에 의하면 너인은 며칠 전 공장병원을 돌아볼 때 만났던 외과의사가 틀림없었다. 너인은 그를 알아보았는지 여전히 웅색해하며 서있었다.

《앉으십시오. 우리 병원에 계시지요?》

재영은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예.》

너의사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웬 일인지 불안해하였다. 기다란 속눈썹이 가늘게 떨리고있었다. 분명 무엇인가 망설이고있었다. 재영은 일부러 범상하게 물었다.

《요즘 환자들이 많습니까?》

《뭘, 별로...》

《이젠 선기가 나서 수술환자들에게 좋겠습니까.》

《네.》

너의사는 자기 사업에 대한 당비서의 리해에 그 어떤 고마움이라도 표시하듯 조용히 웃어보였으나 오히려 그 웃음은 파르스름한 얼굴을 더 쓸쓸하게 만들었다.

《현장치료때문에 나왔는가요?》

《네 그저 좀...》

너의사는 자기 사업에 대한 당비서의 리해에 그 어떤 고마움이라도 표시하듯 조용히 웃어보였으나 오히려 그 웃음은 파르스름한 얼굴을 더 쓸쓸하게 만들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좀처럼 이어지지 않았다. 실무적인 물음과 폐의적인 대답으로 마디마디가 실오리처럼 끊어지였다.

그럴수록 재영은 너의사가 신통치않은 일로 와있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무슨 일인가? ...그가 보기에는 현장치료때문에 나온것 같지는 않았다.

혹시 개인생활과 관련된 문제때문에 누구를 만나려고 기다릴지도 몰랐다. 그렇다면 자리를 내주어야 할것이였다. 자리에서 일어난 재영은 천천히 서류장앞으로 다가가 그 우에 놓인 하얀 사기주전자에서 물을 한고뿌 따라 쪽 마시였다. 속이 썩하였다.

《여긴 물이 참 별맛입니다. 썩한게 속이 막 금방 얼어드는것 같거든요.》

《탄산염이 좀 많습니다.》

《그래요. 그럼 저 소화기환자들이 적겠습니까.》

재영이가 웃으며 묻자 너의사도 따라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실바람이 스치듯 인츰 사라졌다.

너의사가 또다시 눈길을 떨구었던것이다. 다시 자리에 와 앉은 재영은 책상우에 놓인 생산일보철을 끌어당기며 물었다.

《선생은 우리 병원에서 일한지 오래습니까?》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남편을 따라...》

너의사가 말끝을 맺지 못하였다.

《그렇습니까. 그럼, 세대주도 우리 공장에 있는 모양이군요?》

너의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용서라도 빌듯 그를 한번 올려다보고는 무릎우에 단정히 모아친 두손만 만지작거리고있었다. 파르스름하던 얼굴이 붉어지였다.

재영은 피땀 짐작되는것이 있었다. 그러면 너의사가? ... 전화종소리가 났다. 유감스러웠다. 무엇인가 눈에 보이지 않게 이어지던 줄이 툭 끊어지는것 같았다.

종소리는 연거퍼 울렸다. 재영은 할수없이 수화기를 들었다. 뜻밖에도 전화는 교환에서 박민우에게로 온것이였다.

《박기사동지예요? 영옥이에요. 기사동지가 숙태우는걸 생각해서 다른 전화들은 다 밀고 특별히 기상대부터 알아봤어요.》

비는 이삼일 계속 내리지만 장마는 아니래요. 그러니까 생산은 일없지요? 마음놓으세요.》

교환수처너는 대상을 확인도 하지 않고 무작정 노래부르듯 자기 말을 하였다.

수화기에서는 여전히 교환수들의 그 특유하고 부드러운 코소리가 들려왔다.

《그래서 말이예요. 우린 이 소식을 온 공장에 다 알려주려고 해요. 좋지요. 이자 원료직장장동지에게 전해드렸더니 호호호, 내가 뭐 숨은 영웅이라나요.》

재영은 빙긋이 웃었다.

《참, 기사동지 한가지 도와줄래요?》

재영은 당황하였다. 이 명랑한 처녀가 무엇을 도와달라고 할지 알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이제 자기를 밝히기도 미안하였다. 재영은 어정쩡한 소리로 《말하오.》라고 대답하며 너의사를 바라보았다.

너의사는 여전히 생각에 잠겨있었다.

《여보세요. 박기사동지가 맞아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교환수처녀가 따졌다. 그러더니 믿음이 가는지 다시 말하였다.

《다른게 아니구요. 저도 금년에 통신대학에 입학하려고 하는데 시험준비를 좀 도와줄래요? 중학교에서 배운걸 다 잃어버린것 같애요. 그래 어제 운기사동지를 전화로 만났기에 말했더니 흥, 시집이나 가라지 않아요. 도와줄래요? ... 도와주지 않으면 앞으로는 전화랑 못해요. 호호호.》

《알았소. 내 꼭 박기사동무에게 전하지.》

그 소리에 너의사가 얼굴을 들었다. 크고 검은 두눈이 그를 지켜보고있었다. 긴장과 불안이 비친 초조한 눈길이었다. 순간 재영은 자기 짐작이 맞았다는것을 확신했다. 너의사는 박민우의

안해가 틀림없었다.

《아이, 여보세요. 누구세요?》

교환수처녀가 안달아하는 소리가 들렸다. 재영은 웃으며 말했다.

《내 초급당비서요.》

《어머나...》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전화가 똑 끊어지었다. 수화기를 놓은 재영은 빙긋이 웃었다. 마음속으로 그 어떤 안도감을 느끼며 녀의사에게로 돌아섰다. 어쩐지 그에게는 녀의사와의 이 상봉이 우연적인것으로 생각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아침부터 녀의사를 만나자고 찾아다녔고 지금은 그를 만나기 위해 여기에 와있는것 같았다.

《교환수동무가 박기사동무에게 통신대학 입학 시험준비를 도와달라는군요.》

녀의사가 마음이 놓이는지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는 송구한듯 머리를 숙였다.

《그인 누구보구나 공불 하라고 한답니다.》

《그럼 나도 도와달라구 할가요. 이제부터 야금 공학을 배워야겠는데요.》

《도와드릴겁니다. 그리고... 좋아할겁니다.》

녀의사가 어설픔게 웃으며 말했다. 얼굴이 한층 더 쓸쓸해지었다. 지난밤 회의소식을 듣고 온것이 틀림없었다. 뿐만아니라 아까 지배인이 제기한 그런 문제까지도 짐작하고 우려할수 있었다.

《병원이란 참...》 재영은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어디에 가나 그곳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제일 먼저 알려지는곳의 하나가 병원이었다.

재영은 솔직하게 물었다. 이런 경우 솔직성만이 두사람 사이의 간격을 좁혀줄수 있다고 생각한것이었다.

《소식을 들었습니까? 》

《네.》

《그리고 또 들은것이 있습니까?》

《네... 전 다 짐작하고있습니다. 그이도 아마 각오하고...》

녀의사는 말끝을 흐렸다. 눈언저리가 붉어지며 두눈에 눈물이 핑 고여올랐다. 재영은 마음이 아팠다. 안해 생각이 났다. 미처 편지를 읽어보지는 못하였지만 안해도 이 녀의사처럼 남편의 일때문에 마음을 놓지 못하고있을것이었다. 재영은 녀의사의 모습을 이윽히 바라보았다. 잠시후 녀의사가 좀 진정이 된듯 안타까이 말하였다.

《비서동무, 전 정말 그이가 근심이 됩니다. 무엇보다에 또 그런 제기를 하였을가요. 전 오늘아침 수술실에서 나와 그 소식을 듣고... 지난밤 병원에서는 수술환자가 생겼더랬습니다. 순간도 마음을 진정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생각다가 그이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구...》

녀의사가 얼굴을 붉혔다. 잔잔하고 부드러운 녀의사의 말소리는 계속하여 울렸다.

《물론 전 아직 그이가 제기한 의견이 옳고 그

른지 알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그이는 남들의 비난을 듣고있지 않습니까... 전, 정말... 글세 무엇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한다 해도 선뜻 이야기하지 않는 문제를 자기가 먼저 주장하여 비난을 들겠습니까.》

녀의사의 말은 절절하였다. 재영은 그것을 하루이를 생각하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것을 느꼈다.

《몇달전에도 그이는 기술신비주의를 부리며 크게 비판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혹 알고계시겠지만 그때 회전로직장의 한 청년이 중요한 기술혁신안을 제기했습니다. 그이도 여간 흥분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그인 그걸 도입하는 문제를 결정하는 참모회의에서 선뜻 대답하지 않았습니니다. 리유는 아직은 가능성보다 불가능성이 더 많으므로 좀더 생각해보아야겠다는 것이였습니다. 모두가 실망하였습니다. 윤기사동지랑 분개하여 들고일어났지만 그이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러자 일부 사람들속에서 동요가 일어났습니니다. 결국 회의에서는 그 안을 더 성숙시킬데 대한 결정을 하고 그 파업을 윤기사동무에게 주었습니다.》

《박동무는 그때 뭘 했습니까?》

긴장해진 재영이가 물었다.

《그때 그인 공업대학연구원 졸업변론준비를 하고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인 회의가 있는 그날밤부터 누구도 모르게 그 안을 성숙시키기 위한 연구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정말 이견 매일과 같이 꼬박 밝히다싶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후부로부터 다른 제강소에서 그와 똑같은 기술혁신안을 성공하였다는 통보가 왔습니니다. 그래 그날밤으로 윤기사동무가 그 공장에 가 기술문건을 가져다 곧 생산에 도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이는 기술신비주의를 부린것으로 강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녀의사는 이야기가 다 끝났다는듯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재영은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감을 느꼈다. 민우가 자신에 대한 비판을 어떻게 접수하였는가 하는것을 알고싶었다. 와당탕거리며 지나가는 자동차소리가 들려왔다.

《박기사동무가 연구하던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영의 물음이었다.

《그것이 생산에 도입되자 그이는 연구를 중단하고 도면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 하루는 제가 생각다못해 당신은 왜 자기가 그걸 반대한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부족점이 있었기때문에 이렇게 연구하고있었다고 말하지 않는가고 말하였습니니다.》

그랬더니 그인 무슨 소리를 하고있는가, 내가 그걸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로동자들의 열의를 보지 못하고 기술혁신안의 불가능성에 포로되어 전진운동에 장애를 준거야 사실이 아닌가. 그런데 뭘 도면을 들고다니며 자기를 변명하겠는가고 하면서 당원은 자기의 과오를 변명하면 안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비서동무, 전 그 말이 잘 납득되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여 일부러 상처를 만들어 흠집을 남길 필요가 있는가고 하자 그이는 어처구니 없는듯 절 한참이나 쳐다보다가 체내에 들어간 굳은 아무때나 상처를 남기는 법인데 제때에 수술하는것이 의사에게나 환자에게 좋지 않는가고 하더군요. 그리더니 자기는 이번에 비판도 많이 받고 기사로서의 체면도 꺾이웠지만 기술적으로 부족하다고 본것을 그대로 당앞에 이야기한것은 잘못으로 생각지 않는다고 하면서 저도 이제 당원이 되면 자기가 속으로 생각하고있는것을 당앞에 그대로 말하는것이 일부러 상처를 만드는것이 아니라는것을 리해하게 될거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아까 어떤 사람은 절 만나 몹시 난처해하면서 그 사람은 당에서 언제나 안된다는 말보다 된다는 말을 바라고있다는걸 리해하지 못하는것이 답답한 일이라고 말하더군요...》

녀의사는 재영을 바라보았다. 간절한 기대가 담긴 눈길이었다. 당에서 안된다는 말보다 된다는 말을 바라고있다고 한 그 말은 옳은것이다. 왜, 우리 당은 혁명하는 당이기때문이다. 일단 우리당이 결심하여 못해낸 일이란 없었다.

앞으로도 없을것이다. 그러면 민우가 그걸 모르겠는가, 아니다. 그 사람의 평가에는 무엇인가 부족점이 있었다.

그런데 그 말을 한 사람은 누구인가? ...재영은 말하였다.

《의사선생, 나는 선생이 남편을 믿는것이 옳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누구보다 선생이 그를 잘 알수 있기때문입니다.

물론 나는 아직 이자리에서 그에 대하여 정확하게 평가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명백하게 말할수 있는것은 나도 선생처럼 그를 믿고 싶다는것입니다.》

녀의사는 머리를 들었다. 그는 비서가 남편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한것보다 믿고싶다고 말한것이 더 고마왔다. 진정을 느낄수 있었기때문이었다.

《그리고 내 생각엔 민우동무를 만날 필요가 없을것 같습니다.》

녀의사가 《알겠습니다.》라고 속삭이듯 대답하며 일어섰다. 재영이도 일어섰다.

《용서하십시오. 전 사실 비서동무를 이렇게 만나 자기를 변명하리라고 생각지 못했습니다.》

녀의사는 진심으로 미안해하였다. 재영은 그가 남편이 아니라 자기를 변명하였다고 한 그 말이 더욱 뜨겁게 느껴지었다. 결국 그것은 변명이 아니었다.

재영이에게는 그것이 남편은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한 녀인의 구차한 변명이 아니라 깨끗한 당적량심에 대한 열렬한 공간으로 느껴지었다. 물론 그의 이야기만 듣고 박민우를 평가할수는

없는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귀중한것이였다.

얼마후 회전로직장 사무실을 나온 재영은 시험로앞에서 민우를 만났다. 그는 여전히 우울한 얼굴로 로설비들을 점검하고있었다. 불쑥 나온 이마와 예리해 보이는 두눈, 그리고 고집스럽게 꼭 다문 입, 《기술신비주의자》의 인상은 역시 만만치않았다. 민우는 로상태가 어떤가 하는 재영의 물음에 마지 못해 《좋지 못합니다.》라고 대답하고 다시 침울한 눈으로 로를 바라보았다, 재영은 바빠 돌아가는 그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후에 만나기로 결심하고 교환에서 온 전화이야기만 하고 돌아섰다. 민우의 얼굴에 한가닥 밝은 빛이 떠올랐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4

《운명준동무가 찾아왔습니니다.》

재영이가 현장을 한바퀴 돌아보고오자 초급당지도원이 말했다.

《운명준동무가?...》

《예, 한 40분 기다리다 갔습니니다.》

《.....》

재영은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이상하였다. 그는 오늘 아침부터 명준을 거의나 잊고있었다. 또 누구도 그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 역시 보이지 않았다. 명준은 틀림없이 시험조업과 관련된 문제때문에 찾아왔을것이었다.

《그 동무가 무슨 문제때문에 찾아왔는지 모르겠소?》

《그건...》 지도원이 어물거렸다. 《다시 오겠다고 했는데 부르십니까?》

《아니 뒤두오. 내가 현장에 나가 만나지.》

재영은 탁상일력에 《운명준동무를 만날것.》라고 똑바로 써놓았다. 그리고 지도원을 바라보며 물었다.

《동무는 오늘 공장 방송차에서 하는 방송을 들었소?》

《예. 오전에...》 지도원이 심상하게 대답하였다.

재영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지도원이 긴장해지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알기엔 내화물직장의 어제 실적이 130프로였는데 방송차에서는 150프로라고 하고있소?》

재영은 무거운 표정으로 지도원을 지켜보았다. 지도원이 당황해 하였다. 희고반듯한 재영의 얼굴에 푸른 기운이 돌았다. 이미 우로 굽은 주름이 지나갔다. 심중한 결함이었다. 엄중한 후과를 가져올수 있는것이였다.

《지도원동무, 선전사업에서 수자란 단순한 통계학적개념이 아니요. 그건 생활의 반영이며 창조적능력의 눈금이요. 만약 그런 식으로 몇번만 사실과 맞지 않는 수자를 소개해 보시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생활을 믿지 않게 되고 자신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기 위해 진심으로 애쓰지 않게 되요. 나가서는 공명주의와 허풍이 조장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뒤로 밀려나게 된단말이요.》

그는 흥분하여 있었다.

《전 미처 그렇게 생각 못했습니다.》

지도원이 솔직하게 말하였다.

《책임은 우리에게 있소. 물론 방송차동무들도 교훈을 찾아야지...》

재영은 마치 자신에게나 말하듯 조용히 계속 하였다.

《<80년대속도>를 창조하자면 먼저 우리 당일 군들부터 그 어느때보다 더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하오. 당앞에서 그리고 당원들과 노동자들 앞에서... 그 어떤 사심이나 허식을 가지고서는 영광스러운 당중앙을 높이 받들수 없고 당에서 바라는 새로운 속도로 창조할수 없소.》

《알았습니다.》

재영은 어색하게 서있는 지도원을 보며 부끄럽게 말했다.

《어서 나가 일을 보오. 나도 좀 앉았다가 다시 현장에 나가겠소.》

지도원이 나가자 재영은 책상에 마주앉았다. 피곤하였다. 몇달전에 끊은 담배생각이 났다. 손에 일이 잡히지 않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안해의 편지를 꺼냈으나 그것도 도로 집어넣었다. 머리속에서 박민우가 떠나지 않았다. 교환수와 그의 안해에게서 들은 이야기, 팍과 먼지로 범벅이 되었던 박민우의 모습, 그리고 지배인의 의견과 그 밑바닥에 흐르고있던 감정... 그렇다. 박민우는 자기말대로 노동자들의 열의를 바로 보지 못하여 우리의 전진운동에 장애를 주었었다. 그러므로 그것은 반드시 비판해야 할 과오였다. 그렇다고 그것이 박민우라는 인간의 전체이겠는가. 아니다, 그에게는 자기의 과오를 백번, 천번이라도 보상할수 있는 깨끗한 당적량심이 있다. 바로 당조직이 그의 이 깨끗한 량심과 성실성을 보고 믿었기 때문에 그의 과오를 더 아프게 비판하였을것이고 소문과는 달리 민우는 여전히 자기 위치에서 사업하고있을것이었다.

재영은 그에게 이곳 당사업을 인계해준 전당비서를 생각하였다. 그는 세련되고 로숙한 일군이였다.

물론 자기가 오늘 녀의사에게서 들은 그이야기는 듣지 못하였을것이다. 그러나 그는 민우와의 오랜 사업과정을 통해 그의 깨끗한 심장을 잘 알고있었기때문에 민우를 믿었을것이었다. 갑자기 방안이 어두워지더니 이어 췌 하는 비소리가 들려왔다. 차츰 방안이 밝아지였다.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무심히 수화기를 들던 재영은 바싹 긴장해지였다. 현장에서 회전로직장이 걸어오는것이였다. 《어서 말하오.》 그는 재촉하였다. 직장장은 침통한 소리로 점검결과 시

험로설비들이 예상외로 혹사된것이 확인되었다는 것을 떠엽떠엽 말했다. 정상상태보다 보수기일이 일주일은 더 걸려야겠다고 말했다.

재영은 가슴이 섬찝했다. 지난밤 민우의 제기를 들은 그 순간부터 그것이 일리가 있다는 생각은 하면서도 시험조업의 성과만은 변함 없기를 간절히 바라온 그였다. 물론 그는 이것이 모순된 생각이라는것을 모르는바가 아니였다.

그러나 사람도, 시험조업도 모든것이 문제없이 바라는데는 어쩔수 없는 심리였다.

《로동자동무들의 사기는 어땠소?》

로동자들은 여전히 사기가 높으며 모두가 전투를 벌려 로보수를 앞당길것을 결의해 나섰다고 직장장은 대답했다.

《그래...》 재영은 가슴이 몽클하였다.

《고맙소, 전투원명단에 내 이름도 넣으시오.》

흥분한 그는 수화기를 짝 틀어쥐며 열정적으로 말하였다. 이어 전화를 끊은 재영은 서둘러 현장으로 나갈 준비를 하였다. 그러면서도 민우와 명준을 생각하였다.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있는가?...

민우는... 그리고 명준은...

혹시 민우는 자신의 제기가 옳았다는것이 증명되었으므로 기뻐할수도 있지 않는가. 아니다. 민우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당일군은 사람을 그렇게 보아서는 안된다. 언제나 중요한것은 사람들을 믿고 그들을 불러일으키는것이다. 로는 얼마든지 보수할수 있을것이다. 문제는 사람들을 옳게 이끌어주는것이다. 그런데 명준은 왜 찾아왔겠을까?

이때 문열리는 소리가 나며 명준이가 들어왔다.

범도 체소리를 하면 온다고...

흰 와이샤쓰우에 허리에 띠가 달린 근색작업복을 걸친 명준은 여전히 환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며 서있었다. 얼굴이 더 넓어져보였다.

《어서 오오. 아까 찾아왔댔다지...》

《예.》

《그래 무슨 좋은 방도가 있소?》

재영은 기대가 갔다.

《예, 로동자동무들을 쫓기시키면 보수기일은 얼마든지 앞당길수 있습니다.》

《로동자들을... 그래서?...》

재영의 얼굴이 어두워지였다.

《그러니까 시험조업의 성과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그것때문에 왔댔소?》

《네.》 명준이가 초조해진 눈길로 재영을 살피었다. 재영은 서운하였다. 마음속의 기대가 허물어지였다.

《그래서 제가 로보수를 앞당기기 위한 전투계획을 세웠습니다.》

명준은 한손에 든 사업노트를 펼치며 말했다.

《전투는...》

《알았소. 보수기일이야 앞당겨야지.》

재영은 돌아섰다. 옷걸이에 다가가 비옷을 벗겨 입었다.

《현장에 나가겠습니까?》

명준이가 물었다.

《음... 먼저 나가 보오.》

명준의 얼굴에 가벼운 불안이 떠돌았다. 어딘가 그의 기분이 달라진것을 감촉한듯싶었다. 발길을 떼지 못하고있었다. 그러는 명준을 본 재영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했다.

《먼저 나가오. 내 곧 뒤따라 나가겠소.》

그제야 명준은 《네.》 하며 활기있게 돌아섰다.

그의 뒤모습을 지켜보는 재영은 심장이 짜늘해짐을 느꼈다. 그것은 나쁜것이였다. 그에게는 그렇게 할 권리가 없었다. 하기에 그는 현장으로 나가면서도 자신의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고있는 실망과 환멸, 격분에 대하여 계속 부정하고있었다. 아니다, 나는 지금 그에 대하여 편협하게 생각하고있다. 명준은 그런 인간이 아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 ...

현장에 벌써 시험로보수전투가 벌어지고있었다.

각종 규격의 내화벽돌들이 콘베아에 실려 로안으로 흘러들어갔고 여러대의 기중기차와 자동차들이 와르릉거리며 설비들을 실어나르고있었다.

퍼런 배기가스가 구름처럼 떠올랐다. 모두가 뛰고있었다. 저쪽 대치차앞에서는 직장장과 지배인이 손에 도면을 펼쳐들고 열심히 토론하고있었다.

시험로로 올라가는 계단을 밟아올라 사령실로 들어가던 재영은 무춤 걸음을 멈추었다. 열이 오른 명준의 말소리가 그안에서 울려나왔던것이다.

그앞에 머리를 숙이고 앉은 사람은 박민우였다. 그의 구부정한 등이 출입문유리창으로 들여다보였다.

《그래 동문, 동무 한사람의 주장으로 시험조업이 실패된것으로 결정될것 같소. 보수기일이 늘어난건 문제가 아니란말이요. 또... 설비가 좀 혹사된게 무슨 그렇게 큰일이요. 그래서 보수하는게 아니요.》

《뭐요?》 박민우가 놀라며 머리를 들었다. 《그럼 동무는 설비가 혹사된걸 알면서 지난밤에 부에 성공했다고 허위보골 했소?》

이것은 뜻밖의 소리였다. 재영의 눈앞에는 지난밤 지령실에 갔다가 회의장소에 늦어서 들어오던 명준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러면 명준이가...

《허위보고라니... 천만에》 명준은 떳떳하게 말하였다. 《설비가 혹사된건 얼마든지 보수할수 있소. 그리고 보수기일이 늘어났건도 로동자들을 절기시켜서 전투를 벌리면 능히 앞당길수 있는거요.》

때문에 난 오늘 동무가 류다른 관심을 가지고 설비들을 들여다보고있을 때에 그걸 앞당겨 보수할 전투계획을 세웠소.》 명준의 말에서는 차디찬

랭기가 풍기고있었다. 《류다른 관심》이라는 표현에는 역시 지난밤에 한 《위협하다》는 말과 같이 그 어떤 암시가 담겨져있었다. 《그래서 난 방금전에 그 문제를 당위원회에 찾아가 제기했고 또 지지도 받았소.》 명준은 자신만만하게 말하였다.

민우는 대답이 없었다. 명준이가 계속하였다. 《여보 박동무, 내 마지막으로 한번 더 진심으로 충고하는데 동무는 왜 당에서 안된다는 말보다 된다는 말을 요구하고있다는걸 모르오. 몇달전에도 바로 그것때문에 얻어맞지 않았소.》

재영은 박민우의 안해가 하던 말이 생각났다. 옳았다. 녀의사를 만난것은 명준이였다. 민우의 머리가 번쩍 들리워졌다. 명준이가 쌀쌀하게 물었다.

《왜 내가 잘못 말했소?》

《그만두오. 나는 동무가 나를 모욕하는데 대해서는 참을수 있고 용서할수도 있소. 그러나 당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오.》

《이러쿵저러쿵 하다니...》 명준이가 놀랐다.

《똑똑히 들으시오. 당에서는 내가 안된다는 말을 했다고 비판한것이 아니라 로동자들의 힘과 열의를 바로 보지 못했기때문에 비판했소. 그리고 우리 당이 언제나 된다는 대답을 요구하고있다는 말은 옳은 말이요. 그러나 당은 동무와 같은 자기 리익을 위해 사는 그런 너절한 사람들의 속이 빈 대답은 아예 바라지도 않소.》 박민우의 말은 격하게 울렸다.

《뭐요, 너절한?...》

《너절하지, 그래 돌격작업으로 보수기일을 앞당겨 가지고 시험조업의 수치를 잡을수 있다고 보오? 절대로 그렇게는 안되오. 만약 그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 나라의 모든 회전로공들이 로보수때마다 돌격작업은 해야 한다는걸 동무는 모르오?》

민우의 말은 낮으나 준절하였다.

《글쎄, 어떤 개별적인 사람들은 동무의 말에 귀를 기울일수도 있고 지지할수도 있소. 왜 실패했다는 말보다 성공했다는 말이 더 듣기도 좋고 보고하기도 좋으니까. 그러나 당은 절대로 그걸 승인하지 않을게요.》

명준은 대답이 없었다.

《그리고 동무야 기사가 아니요. 그런데 동무가 어떻게 그런 문제를 들고 당조직을 찾아다닐수 있소.》

민우의 말은 옳은것이였다. 만약 명준이가 전해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검덕광산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로동자들을 막장에서 채우지 않도록 따뜻하게 베풀어주신 그 뜻깊은 은정을 심장에 새기고 일하는 기사라면 저렇게 행동하지 않을것이였다. 민우는 안타까운듯 잠시 명준을 지켜보다가 똑똑하게 말했다.

《시험조업은 반드시 다시 해야 하오. 나는 우

리가 진정으로 당을 먼저 생각하고 받든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방도도 찾아낼수 있고 성공할수도 있다고 보오.》

민우는 돌아섰다. 문밖에 나온 그는 재영을 보자 당황하여 서있다가 푸른 용접광이 쏟아져나오는 로속으로 쑥 들어갔다. 사령실안에서는 명준이가 홀로 앉아있었다. 민우의 말대로 확실히 그는 지금까지 자기를 위해 산 사람이 아닌가!

그런 사람들은 심장을 바쳐 당을 먼저 생각하기전에 당에서 자기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데 더 신경을 쓰며 필요에 따라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한다. 그리고 말로는 늘 무슨 일이나 하자고 하고 또 앞장에서 뛰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자기를 위해 말하고 뛰기때문에 무슨 일에서나 책임을 지려하지 않으며 더우기 당과 혁명의 래일에 대하여서는 전혀 관심을 돌리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오직 자신과 지금 현재의 생활이 더 귀중한것이다. 위험하다. 그것이야말로 오늘 우리의 전진을 방해하는 가장 경계하고 바로잡아야 할 낡고 진부한 사상이다. 재영은 돌아섰다. 지금 명준이에게는 고민이 필요하였다. 자기를 검토하고 타매하며 번민하도록 해주는것이 그에게 줄수 있는 가장 필요하고 좋은 방조였다.

밤이 되었다. 현장에서 돌아온 재영은 달콤한 마음에 휩싸여 안해의 편지를 읽고있었다. 안해는 새 배치지에 가기전에 다문 하루라도 집에 들릴것같아 기다렸다는것, 아이들과 자기는 여전히 건강하며 마을의 이웃들도 잘 지낸다는것, 그리고 벌써 소문이 나 언제 이사를 가는가고 묻는 사람이 많다는것 등의 내용들을 간단히 적어보였다.

재영은 키가 자그마하고 눈도, 입도, 몸매도 모든것이 동글동글해 보이는 안해가 눈앞에 보였다.

언제나 아이들처럼 순진해보이는 쌍꺼풀진 동그란 눈이 조용히 웃는 모습이였다. 두번째 장은 아들이 썼을것이다. 호기심을 가지고 종이를 펼친 재영은 저도 모르게 《허허허》 웃었다. 그림이였다. 제법 《우리 아버지공장》이라는 제목까지 단 용광로가 그려진 그림이였다. 서툰 하어도 종이가 보풀이 지고 꺼명게 된걸 보니 몇시간 잘 끄짚거린것 같았다.

《용광로라》 그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일어섰다. 아들이 회전로를 용광로로 생각한것은 무리가 아니였다. 흔히 사람들은 철이라고 하면 용광로를 먼저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회전로에서도 쇠물이 끓고 광석속에 포함된 불순물이 제거되며 철이 만들어지고있는것이다. 또 그 철을 위하여 회전로와 운명을 같이 하며 일생을 묵묵히 바쳐가는 박민우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것이다.

때문에 우리 당일군들은 어디에 가나 그런 사람들의 깨끗한 마음을 밝은 눈으로 보고 심장처럼 아껴야 하며 그들을 적극 내세워야 한다.

바로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나는 《운수좋은 초급당비서》가 되었고 우리 당의 모든 비서들이 어디에 가나 《운수》가 좋은것이 아닌가...

머칠이 지나갔다. 정문에 시험조업을 다시 시작하였다는 속보가 나붙었다. 시험조업은 갓 임명된 회전로직장 책임기사 박민우가 담당했다. 그날밤, 초급당비서 리재영은 아들에게 보낸 회답편지에 회전로를 그려 보내주느라고 한시간이나 책상에 마주앉아있었다. 쉬운일이 아니였다.

나는 저런 처녀가 맘에 들더라

조성래

바다우에 등실
고층집이 솟았는가
둥둥배에 끌려오는
만톤급의 함형부채
볼수록 이 가슴 후련도한데
아슬한 부채우에 서있는 저 친구
아마도 우리네 연공이겠지

아빨사!
연분홍 머리수건 저 자래는
눈여겨 다시 봐도 살뜰한 그 모습
남포갑문건설장의 한떨기의 꽃
모두가 사랑하는 현장방송원

가물막이 전투장의 새별이 되어
밤깊도록 노래불러 새힘 주더니
어느새 바다건너 평남기슭에
그 불길 지펴주고 오는길일가

해풍이 드세찬

관식첼배우에서도
폭양이 내리려는
혼합장의 한낮에도
밝은 웃음 보내주던 정다운 처녀

련사홀 낮과 밤 지새웠건만
그래도 언제나 그의 두 눈은
수정같이 밝은 샘, 빛나는 새별
웃음가득 머금은 그의 모습은
파도에 지지않는 붉은 해재기!

새별같은 그 눈에
내 마음 끌렸는가!
청신한 그 모습에
내 심장 불타는가!
아! 그보다도
당에 바치는 순결한 그 마음,
그 마음에 정들어
나는 저런 처녀가 맘에 들더라!

포성이 멎은뒤

조필수

(1)

금방 떠날 차비를 끝낸 기관차가 굴뚝으로 시꺼먼 연기를 내뿜으며 어마어마한 소리를 내질렀다.

8월의 더위를 무릅쓰고 해종일 얼마나 달렸는지 까마득히 늘어선 차량우에서 뜨거운 연기가 아지랑이처럼 그물거렸다.

멀리 저녁노을속에 사라진 기관차의 꼬리쪽에서 새파란 신호기가 팔락거렸다.

육중한 몸을 곳곳이 펴고 지평선쪽을 묵묵히 쏘아보던 기관사가 억센 팔을 내뻗쳐 기적을 울렸다.

《젠장… 이건 또 뭐야.》

기관사가 창밖으로 머리를 내뺏고 투덜거렸다. 견장을 땀 군관복을 입고 배낭을 둘러멘 웬 젊은이가 기관차를 맞받아 달려왔던 것이다.

《죽을라구 그러우. 젠장, 전쟁관을 꺾더니 다들 담이 커졌단말이야, 뭐요? 태워달란 소리겠지.》

《예, 급해서 그렇습니다.》

방금 달려온 사람이 숨을 헐떡거리며 대답했다.

《지금이야 다들 급하지. 어쨌든 이건 짐차란말이요. 보아하니 제대군관같은데… 한 삼년 색실 못본게구만.》

기관차우에서 웃음이 터졌다. 제대군관도 따라 웃었다.

기관차는 평평 연기를 뿜어대며 어서 떠나자는 듯 몸통을 떨었다.

《오늘 밤중으로 팔애를 찾아가지구 또 떠나야 합니다. 탄광으로 갑니다. 새로운 탄광을 개발합니다. 그런데 래일아침까진 열차가 없답니다.》

제대군관은 말못할 사연을 털어놓는 쑥스러운 처녀처럼 어줍게 사정을 했다.

《탄광을?!》

기관사의 눈이 번쩍 빛났다.

《그래 매장량이 많소?》

《무진장합니다.》

《우리 기차에두 땡수 있는거요?》

《기차뿐이겠습니까. 이제 그 석탄덕에 동무들 두 팔자가 늘어지게 될겁니다.》

제대군관도 흥이 나서 팔을 흔들며 말했다.

《아니… 그건 또 무슨 흰소리요?》

《그 석탄으로 멀지 않아 화력발전소를 돌리게

됩니다. 벌써 설계가 나왔습니다. 동무들두 이제 전기기관차를 타구 신선놀음을 하게 된단말입니다.》

《아하, 이거 말만 들어두 배가 볼록 빼여지는군. 어서 타우. 이건 사실 규정위반이지만… 가만…》

기관사가 손을 내밀다가 멈추고 머리를 기우뚱했다. 능청스러운 빛이 그의 얼굴에 흘렀다.

《저…》

그는 말꼭지를 떼지 못하다 어물거렸다.

《젠장… 터놓구 말하기요. 기관차에 다른 사람을 태운다는게 보통일이 아니요. 그러니 우리 한테 믿음이 필요한말이요. 전쟁에 참가했다니 무슨 표적이든 있을텐데… 거 이를테면 혼장이라든가…》

《혼장이요? 예, 있습니다.》

제대군관이 금방 날아오를것처럼 승강대를 틀어잡은채 다급히 대답했다.

《어디 보지요. 큰결루… 난 그걸 민소. 그걸…》

기관조사도 화부도 일제히 창밖으로 머릴 내밀었다.

제대군관은 등에 진 배낭을 가슴앞으로 둘러더니 아구리를 풀고 혼장을 하나 뒤흔들었다. 순간 흙의 외등불빛에 비치여 환하게 드러난 기관사의 머리가 기우뚱했다.

《아… 아… 그건 그렇구 그 옆의… 팍속에 있는게 뭐요? 팍속에…》

그는 숨이 막히는듯 가슴을 들먹이며 떠듬거렸다.

《그…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대군관이 애써 감추던것이 드러난듯 몸둘바를 몰라했다.

《아… 아… 그걸 보여야 태우겠소.》

《참… 아바이두…》

제대군관은 울먹이듯 중얼거리었다.

기관사는 호기심과 동정이 어린 눈길로 젊은이를 내려다보았다.

보통키에 넓고 억센 어깨가 유표스러운 그는 열추 짐작에 서른살쯤 되어보였다. 한창 나이여서 그런지 거뭇하게 탄 얼굴과 처녀의 눈처럼 검고 고운 두눈동자에서 끓어오르는 힘과 왕성한 열기가 이글거리었다.

기름을 먹여재운듯 함함한 귀밑머리밑의 험상

한 상처자리에서도 야릇한 생기가 풍기었다.
 《시간이 없소. 시간이…》
 기관사가 버럭 소리질렀다.
 제대군관은 울상이 되어 노란 나무판을 열었다.

《아, 영웅!》
 급기야 기관사는 환성을 올렸다.
 그는 제대군관의 손을 덥석 잡아 기관차우로 끌어올렸다.

경쾌한 기적소리가 울리고 육중한 무쇠바퀴들이 천천히 굴러가기 시작했다.

동서남북으로 지평선이 내다보일만큼 황막한 도시의 폐허가 서서히 움직이며 뒤로 뒤로 물러갔다. 노을이 꺼진 푸릿한 하늘에 어느새 별이 하나솟아 반짝이였다.

(2)

기관차는 크지 않은 역에서 잠시 멎었다. 제대군관이 내리자 기관차는 숨돌릴새도 없이 다시 떠났다.

푸름한 불빛아래서 제대군관이 어둠속으로 내달리는 기관차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검푸른 하늘을 떠밀고 어깨를 숙구친 산줄기너머에서 화답이라도 하는듯 기적소리가 울려왔다.

해종일 달아오른 땅을 식히며 밤바람이 서늘히 불었다.

제대군관은 서둘러 역구내를 빠져나.

전쟁전에는 어떻게 생겼었는지 그 모습을 상상할 수 없게 무너지고 불타버린 거리에서 밤일을 하는 사람들이 붐벼했다. 높이 세운 장대기끝에 달아맨 전등불이 폭탄구덩이를 메우는 사람들을 환히 내려비쳤다.

땀에 젖은 어깨와 팔들이 시뻘건 구리덩이처럼 번쩍이였다.

노래소리, 나팔소리, 삽질소리… 경쾌히 날아올랐다가 흩어 지는 웃음소리에 밤하늘이 흔들리는 듯 했다.

제대군관도 흥이 나는듯 바다처럼 설레는 일판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 한동안 서있었다.

한참만에야 걸음을 땀 그는 몇발자욱 옮기지 못하고 사방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했다.

《저… 덕수리를 찾는게 아니시오?》

사람들의 사품속을 헤치며 마차를 끌고 길쪽으로 나오던 늙은이가 갈길을 몰라 서있는 젊은이에게 다정히 물었다 《저… 덕수리를 찾는게 아니시오?》

허연 수염이 가슴앞에서 유난스레 성실한 빛을 뿜었다.

《예, 덕수리에 가던 참입니다.》

《그럼… 오늘쯤에 오겠다구 어제 우리 리당에 전화를 한분이지요?》

《아닙니다. 전…》

《아하… 난 그분인줄 알았소. 그래 우리 덕수리에 누가 있소?》

《딸애가 있습니다. 별이라구…》

《별이…?!》

늙은이의 손에서 말고삐가 떨어졌다.

《왔구만, 별이 아버지가…!》

그는 얼어지듯 제대군관의 가슴팍에 매달리며 줄지에 어깨를 들먹이였다.

《있네, 있어, 그 애가… 얼마나… 얼마나… 자, 어서 타라구. 내 그 마을 사람일세. 난 밤일 하는 사람들에게 툇강냉일 실구 왔됐네. 때맞춰… 왔어 … 때맞춰 …》

늙은이는 옷소매로 눈굽을 연신 훔치며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거리였다.

《이놈의 말새끼, 목덜밀 좀 낫춰라, 목덜밀… 이런… 인사범두 모르는 미물아, 편안히 앉게… 편안히…》

늙은이는 흥건히 땀발이 돋은 밤빛말의 등판을 철썩 후려갈기며 꺾꺾 웃었다. 하지만 열기설기 주름이 엉킨 그의 얼굴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허, 지난 밤 꿈이 회한하더니… 이 녀석 실컷 뻘뻘라. 발통이 근질거렸지… 발통이…》

등판을 또 한대 얻어맞은 밤빛말이 소스라치듯 놀라며 경충 앞으로 내달렸다. 마차가 부서져나갈듯 왈칵거렸다. 늙은이가 뒤로 벌렁 넘어지며 제대군관의 품에 늘어져버렸다. 젊은이와 늙은이는 서로 부둥켜안고 시름없이 웃어댔다.

마차는 울창한 소나무밭속으로 곧추 뻘은 달구지길에 들어섰다. 밤빛말은 신이나서 갈기를 흔들며 내달렸다. 달빛에 기름진 엉덩짝이 번들거렸다.

《어허, 이 녀석이 기분이 좋았구나. 하긴 기쁜 일만 차례지니 그럴 법도 하지. 이놈이 실어나른 탄약상자를 가려놓으면 큰 산이 하나 될걸세. 해방전에 지주놈의 아들을 태우고다닐 땐 저 어진 눈이 노상 구슬피 꿈뻑이더니… 오늘은 또 귀한 손님을 실구… 그래 별이가 여기서 사는줄 어떻게 알아냈나?》

기쁨에 들뜬 늙은이는 마음이 가는대로 두서없이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고향사람들한테서 편지를 받았습디다.》

《음, 그러니 자초지종 다 들었겠군그래, 여보게, 그 애 어머니 정말 참사람일세. 참사람…!》

늙은이의 눈에 또다시 츤렁츤렁 눈물이 어리였

다.

길옆으로 우거진 우중충한 수림속에서 골개물 흐르는 소리가 돌돌 울렸다. 불쑥 심산의 애뜻한 정이런듯 달콤한 꽃향기가 풍겨왔다.

《그 사람이 별이를 업구 우리 마을에 나타난게 50년도 겨울이였네. 그때 우리 마을엔 미국놈들의 <특수부대>가 둔을 치고있었네. 미국놈들 치구두 악종놈들이었지. 그놈들이 무슨 꿍꿍일 하는지 그 속내를 알아내라구 유격대에서 별이 어머니를 보냈었지. 놈들의 본부에서 노래도 부르고 풍금도 치는 희한하게 고운 처녀가 있었는데 그도 우리사람이였네. 전쟁전에는 도에 있는 극장에서 노렐 불렀는데 적들이 쳐들어오자 기다렸던것처럼 거짓태를 지어가지구 그놈들과 한 패당이 된 처녀세.

별이 어머니 그 처녀한테서 놈들의 비밀을 알아취게 되어있었네, 내가 뒤에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게 돼있었구…》

《그럼 아버지도…!》

《나도 유격대원이였네!》

이슬이 고인 늙은이의 눈에 미소가 비껴들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순간에 꺼져버렸다.

드디어 말로 번지기 힘든 고비에 이른듯 늙은이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다.

《놈들의 비밀을 손에 쥐는 일까지는 무사히 됐네. 우리 처녀가 용케 뽑아냈단말일세. 그건 또 별이 어머니가 넘겨반구… 그렇게 다 무사히 했었네, 무사히…》

늙은이는 갑자기 목이 꺾 막혀 말을 잇지 못했다.

세찬 날새와 죽지처럼 기상이 좋던 어깨가 구슬피 떨어져내렸다.

밤빛말도 흥이 식어서 길우에 드리운 거뭇거뭇한 나무그림자를 터벅터벅 밟아댔다.

《아… 그런데 그놈이… 그놈이… 망돌에 갈아도 씨원치 않을 그놈이…》

늙은이는 솟구치는 분노를 이길 길이 없어 가슴을 헐떡이였다.

주름살속에 깊이 묻힌 눈동자에 불이 달려 이글거려였다.

늙은이의 팔을 어루만지는 젊은이의 손도 후들거려였다.

《그… 그… 장돌뱅이행색을 하구 우리 마을에 나타난놈이 굴세 별이어머니를 캐는 밀정놈인줄이야… 별이네동네야 우리게서 100리길이 실히 되게 먼데가 아닌가.

그래서 내 먼 친척별 되는 녀자라고 말을 돌리고 마음을 놓았했는데… 그놈이… 그 간악한놈이 끝내 냄새를 맡았단말일세. 놈들의 비밀을 넘겨

받은 그날 꼭두새벽에 나하구 별이 어머니가 유격대를 찾아 떠났네. 그런데… 독사같이 노리고 있던 그놈이…》

흥분한 늙은이의 이야기는 토막토막 동강이 났다

그는 무엇부터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단 한마디라도 농칠세라 명심하느라 애를 썼다.

가슴을 어이고 실실이 휘감긴 추억은 끝없이 풀려 흐르고 또 흘러내렸다.

그는 놈들과 어에서 어떻게 맞다들었으며 별이 어머니가 어떻게 원수들을 막아나섰으며 자기가 별이를 받아업고 어떻게 유격대에 찾아갔는가 하는 사연을 젊은이가 못알아들을세라 곱씹고 또 곱씹었다.

그는 자기가 고집을 써서라도 놈들을 막아서지 못한걸 지금도 가슴아파 후회하는듯싶었다.

《난 유격대대장을 만난 다음 곧장 되돌파셨네. 별이어머니가 어떻게 되였는지 알지 못하구서는 한순간도 견딜수가 없더라말일세. 대장도 가슴을 치며 별이 어머니를 구원하라고 젊은이들을 불려주더군, 하지만 그땐 별씨…》

늙은이는 물렸던 숨을 몰아쉬느라 잠시 말을 끊었다.

그러자 귀를 강구였던 수림이 설레이기 시작했다.

그러다가도 불길처럼 솟구치는 늙은이의 목소리가 어둠을 들썩 나무숲을 헤집고 스며들면 수림은 다시 움쭉 숨을 죽였다.

죽다만 얼음덩이처럼 어설피고 창백하던 조각달도 강철빛을 뿌리는듯싶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놈들이 정신을 잃고 쓰러진 별이 어머니를 끌고 별씨 마을로 달아났더라말일세. 놈들은 가자바람에 누구한테 왔됐으며 그한테서 뭘 넘겨받았는가고 따지고들었네. 손톱을 뽑고… 팔을 비틀어 꺾고… 그 악마들은 시뻘겋게 단 인두로 젓가슴까지 지졌어, 갓난애가 밤마다 빠는 그 젓가슴을… 아… 아… 그 악귀들…》

늙은이는 걱정을 이길 길이 없어 허연 머리를 가슴앞으로 떨어뜨렸다. 사랑과 증오로 끓는 오열이 그의 가슴속 깊은곳에서 솟구치고 또 솟구치는듯 싶었다.

밤안개가 내리기 시작했다. 길도 사라지고 나무숲의 선명한 립곽도 보이지 않았다. 골개물소리도 어데론가 먼곳으로 흘러간듯 들리지 않았다.

그래도 마차는 무척 익은 길이여서 그런지 주

저없이 내달렸다.

향긋한 꽃향기가 어우러진 안개속에서 부드러운 모래불을 누르며 돌아가는 마차의 바퀴소리가 그칠줄 모르고 울려댔다. 그 다함없는 열정에 쫓기듯 안개는 다시 걷히고 달빛에 물든 숲이 황홀한 자태를 드러냈다.

풀개물소리가 살금살금 다가들더니 풀덤불밑에 숨어서 그 맑고 류창한 소리를 한껏 울려대기 시작했다. 밤새들이 무슨 꿈을 꾸는지 깃을 푸덕이였다.

그리고는 신비로운 환영에 놀란듯 환희의 웨침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 사람은 처녀의 이름을 종시 대지 않았네. 미쳐난놈들은 끝내 별이 어머니를 사형장에 끌어냈네, 그날은…그날은 별스레 눈이 많이 왔었지, 하얀 눈이… 그 눈을 맨발로 밟으며 별이어머니가 걸어나왔네. 아… 그 모습은 그대로 불덩이였네. 불덩이였어. 찢기고 지지워서 멍투성이가 된 온몸이 그대로 불덩이가 되어 타더란말일세. 그 사람은… 만세를 부르며 숨이 졌네. 장군님 만세를 부르며… 난 산에 숨어서 다봤네, 다 봤어. 아… 무슨 눈이 그렇게두 오던지… 그 깨끗한 눈우에서 보석같은 선혈이 빛을 뿌렸네. 보석같은 선혈이… 어이쿠, 다왔네, 다 왔어, 저기 마을이 보이지… 마을이…》

늙은이는 옷소매를 들어 눈굽을 누르고나서 불빛이 반짝이는 어둠속을 가리켰다.

하지만 젊은이에게는 그 불빛이 보이지 않았다.

늙은이의 거룩진 손이 그의 들먹이는 어깨를 어루만지였다.

《별이는 현심이라고 부르는 그 공작원처녀가 기르구있네. 여기서 학교선생을 하고있지. 전쟁전에 있던 극장에서 빨리 돌아오라구 재촉이 불같지만 자네가 오기전에 떠나지 않을 잡도릴세. 극장에서든 사연을 알고 독촉을 그만두었네. 별이가 벌써 네살일세. 그러니 그 앨 어떻게 떼놓겠나. 엄만줄 아는데… 며칠전에 극장사람들과 그 처녀의 부모들이 별이의 옷을 지어가지구 왔댔네. 참… 이 전쟁이 얼마나 훌륭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냈나. 우린 늘그막에 손자녀석들한테 들려줄 이야기가 많게 됐네.》

슬픔과 증오가 가득찼던 늙은이의 가슴속에서 행복에 취한듯한 목소리가 시름없이 울려나왔다.

《아하, 이놈의 안개… 또 밀려드는구나, 또… 그래 그래 올라서라. 이 녀석아 옳지, 네가 명물은 명물이다. 다왔네. 다왔어.》

늙은이는 하염없이 중얼거리며 마차를 몰아대더니 산비탈아래 작은 초가집앞에서 멈춰세웠다.

젊은이도 늙은이의 뒤를 따라 마차에서 내렸다.

그리고는 그 무슨 생각이 가슴을 치는지 걸음을 떼지 못하고 우뚝 굳어져버렸다.

늙은이가 기침소리를 내며 방문을 열어보고는 다시 돌아섰다.

《없구만, 별인 자구… 내 데려오지, 학교건설장에 나갔을거네. 먼저 들어가보라구, 별인… 자… 자네, 내… 얼른…》

늙은이는 또다시 울며 웃으며 허둥허둥 어둠속으로 사라졌다.

젊은이는 한동안 움직일념 없이 그대로 서있었다. 이윽고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였다.

언제 해세웠는지 술향기가 풍기는 대문을 넘어서자 세상떠난 녀인이 남긴 미소이런듯 발그레한 불빛이 피창에서 흘러내렸다.

젊은이는 방안에 들어서자 다시금 굳어졌다.

따뜻이 온기가 도는 아래목에서 토실토실 살이 오른 처녀애가 빨간 입술을 뽀주름히 내밀고 새근새근 자고있었다.

젊은이는 다리를 후들거리며 한동안 처녀애를 들여다보았다. 그의 두볼로 뜨거운 눈물이 구슬지어 흘러내렸다. 그는 오금을 꺾으며 주저앉더니 떨리는 두팔로 처녀애를 들어올려 품에 꼭 그리안았다.

《별이야!》

그는 처녀애의 볼에 자기의 얼굴을 비비며 마차우에서 쉬어버린 석식한 목소리로 나직이 속삭였다.

하지만 별이는 머리를 뒤로 젖히고 눈을 뜨지 않았다.

속눈섭끝이 때때로 초췌거리고 입술이 방실방실 열리는 품이 꿈을 꾸는게 분명했다.

젊은이는 별이와 함께 잠들어 그 달콤한 꿈속에서 만나고싶은듯 지그시 눈을 감았다. 그러자 기쁨이며 슬픔이며 사람이며 증오이며 희망이며 녀원이며 이 한순간에 체험할수 있는 온갖 감정들이 일시에 타올라 그의 가슴을 휩싸안았다.

(3)

다급한 발자국소리가 들려오더니 문이 열렸다.

무척 어여쁜 처녀가 문가에 나타났다. 타는듯 붉게 달아올랐던 그의 얼굴이 불시에 하얗게 질려버렸다. 그는 한순간 눈을 감고 굳어지더니 황황히 머리를 숙이며 인사말을 했다. 그리고는 쓰러지듯 주저앉아 별이를 부둥켜안았다.

《너 왜… 이러구있니… 너 왜… 아버지가 오셨는데… 아버지가…》

처녀는 별이의 어깨너머로 흘러내린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짐짓 담담한 목소리로 속삭이었다.

그는 떨리는 입술에 미소를 지어보려고 애를 썼다.

하지만 어느새 이슬같이 맑은 눈물이 눈부시게 흰 얼굴을 적시며 줄지어 흘러내렸다.

그 눈물너머 끝없이 깊어보이는 눈동자속에서 처녀의 낮인듯한 불꽃이 찬연히 타오르기도 하고 꺼지기도 했다.

그것은 기쁨인듯도 했고 슬픔인듯도 했다. 그 불꽃이 처녀의 심장속에 고인 말을 대신하는듯도 싶었다.

《아이참… 뭘 했길래 이리두 피곤해할까… 아버지 오셨는데 아버지가…》

처녀는 줄곧 입술을 떨며 같은 말을 되뇌이고 또 되뇌이었다.

별이가 반짝 눈을 떴다. 그리고는 낮선 얼굴을 뻗히 쳐다보더니 무슨 일인지 알만 하다는듯 방긋 웃었다. 그 웃음은 입가에만 남고 무거운 눈시울은 다시 감겨졌다.

《별일 키우느라구 정말 고생이 많았겠습니다. 당장 엘 데리구 떠나자니… 죄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젊은이는 앞에 있을 처녀와 별이와의 작별을 눈앞에 그려본듯 수심이 어린 어조로 말했다. 그는 어쩐지 자꾸만 피로와지는 마음을 녹갯힐길이 없어서 한시바삐 떠나고만 싶었다.

《떠나시다니요? 이제 무슨 차가…》

처녀가 흠칠 놀라며 이슬이 어린 눈을 쳐들었다.

《북으로 가는 아침차가 있습니다.》

《어쩌문 그렇게…》

절망이 어린 목소리가 금시 꺼져버릴듯 서글피 울리었다.

《전… 지금 급한 길을 갑니다. 전 사실…》

젊은이는 어떻게 해야 처녀의 마음을 위로할지 알길이 없어서 말꼭지를 떼놓고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별이와 떨어지기가 고통스러우리라는건… 알지만… 사실 갓난애 저렇게 정성스레 키웠으니…

그정이야… 하지만 어찌됐습니까. 전 지금 새 탄광으로 배치되어가는길입니다. 말이 탄광이지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삽 한자루, 곡괭이 한자루 없습니다. 사람두 없습니다. 제가 첫 파견장을 받았을뿐입니다. 나하구 별이하구 둘이서 심심산중에 첫 오솔길을 내야 합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젊은이의 목소리가 열기를 띠고 힘차게 울리자 처녀의 얼굴도 다시 싱싱해졌다. 캄캄한 봄밤에 울리는 첫 우뢰소리가 알길 없는 공포와 기쁨을 주듯이 젊은이의 말은 처녀의 가슴속에서 맑은

빛발이 되어 넘치는가 하면 무거운 그늘이 되어 고여들기도 했다.

처녀의 얼굴은 다시 해쓱해졌다. 별이의 얼굴에 떨어진 그의 눈길로 금시 이슬이 흘러내릴것 같았다. 불시에 그는 그 무슨 단호한 결심이라든 한듯 머리를 들었다.

《별이 어머니의 이야기는 다 들으셨지요?》

《예, 들었습니다.》

《전… 언니를 잊지 않겠어요!》

처녀는 말끝을 맺고는 서둘러 일어섰다. 그리고는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몰라 머뭇거리었다.

그는 다시 마음을 다잡은듯 별이옆에 주저앉았다.

《저… 별이는 자리가 잡힐 때까지 제가 데리고… 고생이 많으실텐데…》

처녀는 그것이 마지막 애원이기라도 한듯 간절히 말했다.

《사실은 그래서 데리구 가렵니다. 내가 힘들어서…》

젊은이는 부지중 흘러나온 자기의 말에 놀라며 얼굴을 붉히었다.

《그럼… 제가… 별일 깨우겠어요. 마지막 밤인데… 제가… 좀.》

처녀는 금시 쓰러질것처럼 두팔을 힘없이 내려뜨리고 별이의 앞으로 다가갔다.

《아… 아니예요.》

그는 갑자기 몸서리치듯 어깨를 떨며 하얀보를 뜨러운 벽에 얼굴을 묻었다.

《그냥 데리구 가세요. 그냥… 잘때……잘때데리구 가세요. 그 애가 …까면 데려가지 못합니다.》

이제 더는 멈출길이 없을듯싶은 흐느낌이 입술을 옥문 처녀의 가슴속에서 세차게 울렸다.

젊은이는 무겁게 머리를 떨어뜨리고 움짍도 안했다. 그의 눈에서 처녀의 눈빛보다 더 어두운 고뇌가 불탔다.

《그앤… …그앤 절 엄마로 알고있었요. …전》

처녀의 온몸의 진기가 다 뿔히고만듯 스르르 주저앉더니 후들후들 떨리는 팔로 별이를 부둥켜안았다. 허공을 향해 쳐든 아름다운 두눈에서 헤여지고야말 별이와 자기와의 운명을 인정하는듯한 절망의 빛발이 서글피 타올랐다.

처녀는 눈길을 떨구고 별이를 찬찬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러자 어둠넌 눈에서 그들이 걸히고 어머니다운 애무의 정이 따듯이 퍼여올랐다.

처녀는 별이의 작은 가슴을 자기의 가슴에 꼭 눌러 댔다.

그러자 별이가 해죽이 웃었다. 그 무슨 속삭임을 들은것 같았다.

처녀도 따라 미소를 지었다. 순간 부드러운 선이 흘러내린 그의 온몸에서 열렬한 힘이 느껴졌다. 처녀는 한순간 온갖 시름을 다 잊은듯싶었다. 하지만 그의 앞에는 별이 아버지가 있었다.

《이러는 절 나뻘 생각지 마세요. 아침이면 별일 보내겠어요. 전… 사실… 별이아버지가… 용서하세요. 전사하신줄 알았어요. 전사하신줄… 그래서 더 더욱…》

《웁습니다!》

시작을 때가 어려운 사연깊은 고백의 첫 울림인듯한 젊은이의 목소리가 무겁게 울렸다.

《별이 아버진 전사하였습니다!》

처녀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는 넋을 잃은채 멍하니 젊은이를 바라보았다.

기쁨으로 슬픔으로 끝없이 타고르고 끝없이 꺼지던 처녀의 아름다운 두눈에서 온갖 빛발이 다 사라지고말았다. 그 기쁨과 그 슬픔, 그 뜻모를 희망과 절망의 시달림속에서 심장도 육체도 홀가분히 벗어나고만듯 처녀는 힘없이 머리를 떨구었다. 행복의 순간은 고통과 더불어 지나가고말았다.

《동문… 누구세요?》

처녀는 입속으로 간신히 중얼거리었다.

《난… 별이 아버지의 전우입니다. 그는 1중대장이었고 나는 2중대장이었습니다.》

젊은이의 눈이 황황 불탔다.

하지만 기진한 처녀는 여전히 머리를 들지 못했다.

《용서하십시오.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젊은이는 처녀의 모습에 다시 주눅이 들어 스스로 말허리를 잘라버렸다.

침묵이 흘렀다.

젊은이는 피롭게 한숨을 쉬었다.

그는 그렇게 침묵을 지키는게 더 고통스러운듯 별안간 입을 열었다.

《난… 사실… 제 생각만 하다가니 동무의 가슴을 이렇게 찢어났습니다. 난 어려운 과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별이를 데려가려 했습니다. 별이의 친아버지가 되느라… 별이의 친아버지와 똑같은 사람이 되느라 난 당에서 준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할것입니다. 별이 아버진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는 죽지 않을수도 있었지요. 가슴에 부상을 입었을 때 위생지도원은 군의소에 후송하자고 했습니다. 별이아버진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다고… 수술만 받으면 살수 있다고… 사실 그는 살수 있었지요. 하지만 그는 고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순간까지 중대를 지휘했습니다. 전사들은 중대장의 마지막 구령소리를 들으며 사자처럼 용맹

하게 원썬들을 죽였습니다. 별이 아버지가 목숨을 바쳐 고지를 지켜냈기에 우리 중대는 적들의 지휘부를 요정내고 무사히 빠져나올수 있었습니다.

내가 달려갔을 때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내 손을 꼭잡고 그 무던해보이는 얼굴에 웃음을 담은채 시름없이 말하는것이었습니다.

《우리 별이가… 지금쯤은… 뭘 좀 알아들을가…뭘 좀…》

그게… 그게… 조국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사람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난 그 사람처럼 살고싶습니다. 그래서 별일… 하지만… 여기 와서 동물보니… 동무한테서 별일 떼낼것 같지 못하구만요. 사실 나 역시 별이 없인…하여튼… 제가 동물 너무 괴롭혔습니다.》

젊은이가 말을 마치고 머리를 떨구었다.

처녀는 그런듯 앉아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숨도 못쉬는듯싶었다. 다만 해쓱하니 질렸던 얼굴이 붉게 탈뿐이었다.

그는 부지중 뭐라고 웨치는듯했으나 입술밖으로 새어나오지 못했다.

《아니예요! 별인… 동무가… 그래야…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구 동무처럼…!》

한참이나 침묵이 흐른 뒤에야 처녀는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는 별안간 어깨를 떨며 입술을 옥물었다.

처녀의 기쁨과 절망에 찬 속삭임에 젊은이는 흠칫 놀랐다.

그는 자기가 또다시 죄를 짓는것 같아 가슴이 섬찝했다.

더우기 그가 놀란것은 그 순간에 처녀가 흐느껴울기 시작한탓이었다.

하지만 젊은이는 더 사죄할 말을 찾지 못하고 굳어져버렸다.

또다시 침묵이 흘렀다.

다만 처녀의 흐느낌소리만이 진정을 못하고 높아갈뿐이었다.

젊은이는 처녀의 물결치는 어깨를 가슴아피 바라보았다.

그는 지금 자기의 가슴이 왜 이다지도 아프며 왜 이다지도 설레는지 알길이 없었다.

처녀 역시 자기가 왜 우는지 알지 못했다.

기쁨과 괴로움은 똑같이 그들의 가슴속에 물결쳐들었다.

심장처럼 느끼는 별이를 잃을것만 같았던것이다. 별이를 넘겨줘야 한다는 생각이 두사람의 마음을 똑같이 찢어놓았다.

바로 그때 밖에서 대문이 열리는 기적이 났다.
처녀가 황황히 방문을 열자 마부령감이 토방에 올라섰다.

《참… 이런 희한한 일이라구야.》

늙은이는 주름살이 퍼이게 혼연한 미소를 짓고 무슨 자랑거리라도 생긴듯 큰소리로 말했다.

《여보게들, 별이 아버지가 또 한사람 나타났네.》

《예?!》

젊은이와 처녀가 일시에 외마디소리를 쳤다.

《중성이 세알씩이나 단 사람일세 어제 리당에 전화를 건 사람이야. 내 젊은이 애기두 이자 방금 그 사람한테서 다 들었네. 자네가 영웅이구 또 새탄광을 일떠세워야 할 지배인이라는것두… 별이 아버지가 어떻게 싸웠구 또 어떻게 목숨을 바쳤는가하는 애기두 다 듣구… 아까 여기서 나가다가 길에서 마침 만났네. 힘들게 찾아왔더군. 그래서 우리 집에 잠깐 지체시켰네. 곧 올걸세. 별일 데려가려구 옷가지랑 장만해가지구 왔더군.》

늙은이가 말을 마치기도전에 대문밖 어둠속에서 승용차발동소리가 들려왔다.

길을 끌라오느라 부르령거리던 그 발동소리가 꺼지자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세사람이 함께 일어섰다.

처녀가 문을 열었다.

토방아래에 키가 크고 우람진 사람이 우뚝 서 있었다.

방안에서 흘러나온 불빛이 그의 희숙한 귀밑머리를 비쳤다.

《련대장동지!》

젊은이가 환성을 울리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철규동무!》

마당에 서있던 사람도 맞받아 올라오며 소리쳤다.

두사람은 손을 잡고 꺄꺄 웃어댔다.

《이게 얼마만이요?》

《련대장동지가 우리 대대를 떠난게 52년도 여름입니다.》

《참… 세월두, 그러니 한해가 됐구만, 1중대장동무의 령전에서 조총을 쏘던 때가 어제같은데… 전쟁이 끝나니 못견디겠더구만, 1중대장동무 생각이 나서… 별이가 욕심나지… 그래서 어제 부랴부랴 옛 대대를 찾아갔소. 거기서 동무소식두 듣구… 별이 행처도 알아냈지. 하지만 이렇게 동무한테 선크메운줄은 몰랐단말이요.》

두사람은 다시한번 꺄꺄 웃었다.

처녀가 다소곳이 인사를 했다.

련대장이 처녀의 손을 힘껏 잡았다.

《난 이 철규동무랑 별이 아버지랑 함께 싸운 사람입니다. 별일 데리러 왔는데… 참… 여기 와서 듣구보니… 별이문제가 간단할것 같지 않구만요.》

련대장의 말에 모두들 따라웃었다.

그 웃음들에서 하나같이 불안이 내비치였다.

처녀가 련대장의 손을 끌고 방안에 들어섰다.

《이 애가 별이구만!》

련대장이 별이의 머리말에 앉아 나직이 중얼거리였다.

주름살이 엉킨 그의 눈귀에 이슬이 맺혀 반짝였다.

별이는 자기를 놓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줄도 모르고 쏘근쏘근 잠만 자고있었다.

련대장이 밖으로 나가더니 승용차에 싣고온 보꾸레미를 들고 들어왔다. 그속엔 술도 몇병 들어있었다.

누가 그렇게 꾸러보냈는지 인사차림이 여간 찬찬하지 않았다.

처녀가 상을 차리자 바람이 불어들게 방문을 활짝 열어제쳤다.

남정네들은 상열에 둘러앉고 처녀는 별이곁에 다소곳이 앉았다.

늙은이가 먼저 이슬같이 맑은 술이 삼실거리는 옥색의 사기술잔을 가슴앞에 쳐들었다.

《련대장동무, 영웅동무, 나한테 늙은이대접할생각은 아예 마시오. 난 인민유격대원이였소. 이처녀도 나보다 더 용감한 대원이였구… 공로의 차이는 있지만 우린 다 동지들이요.》

참… 좋구만 좋아, 미국놈들을 쳐부셨겠다, 이렇게 훌륭한분들이 별이를 찾아왔겠다… 마십시오. 동지들!…》

늙은이가 수염발을 갈라붙이고 단숨에 술잔을 비워버렸다. 그리고는 호기있게 꺄꺄 웃었다.

련대장과 젊은이도 따라마셨다.

늙은이는 련대장과 젊은이가 부어주는대로 몇잔 사양하지 않고 받아마셨다.

동그런 달이 대문밖의 정자나무우에서 빙글거리였다.

《오늘은 기쁜날이요. 이렇게 모두들 다 왔으니… 모두들… 그 사람들은 죽지 않았지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별이 아버지가 되려는 련대장이왔지, 영웅이 왔지, 별이 어머니가 되려는 처녀도 않았지… 우리도 오래오래 삽시다. 그 사람들처럼…》

70고령을 눈앞에 둔 늙은이는 취기가 오른 얼굴을 높이 추켜들었다. 그는 스르르 눈을 감고 웅글고 석씩한 목소리로 나직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태백산맥에 눈내린다
총을 메여라 출진이다

승엄한 감정이 런대장과 젊은이의 가슴을 휩싸 안았다.

처녀는 머리를 숙이고 함함히 땀에 젖은 별이의 머리만 쓰다듬고 또 쓰다듬었다.

젊은이는 런대장이 부여주는 술을 또 한잔 단숨에 마셨다.

《난… 여생에 별일 곁에 두고 즐기구싶네. 별이 어머니랑 같이 미국놈과 싸우던 때를 추억하면서말일세.

그래… 그렇단말일세. 런대장두 영웅두 처녀두 나두 다 이런 마음일세. 하지만… 이제 멀지 않아 날이 밝을걸세. 자네들은 떠나야 하구… 참 일은 딱하게 됐소.》 젊은이는 말을 마치고나서 혼연한 미소를 지었다.

《난 이 철규동무보다 늦었습니다. 별수없이 물러서야지요. 하지만 한가지 요구조건은 있습니다. 별이도 이제 멀지 않아 학교에 다니게 될겁니다. 방학때마다 별일 우리 집에 보내줘야 합니다.》

런대장이 뜻밖에도 순순히 나오는 바람에 모두들 눈이 둥그래졌다.

《그야 뭐 어려울게 있겠소. 난 벌써 물러선게구… 그러니 이젠 젊은이들만이 남았소.》

젊은이가 기분 좋게 껄껄 웃었다.

젊은이도 처녀도 머리를 들지 못했다.

그들도 똑같이 무엇인가 시원스레 말하고싶었으나 그것은 말할수 없는 것이었다.

《어허참… 어쩌면 이리두 더운 밤일가.》

젊은이가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리며 런대장에게 눈을 끔찍 했다.

그들은 잠간 바람을 쐬겠다고 하면서 밖으로 나갔다.

가슴을 움켜쥐는듯한 고요가 흥성거리던 방안에 가득차들었다.

두사람의 가슴은 세차게 고동쳤다.

런대장과 젊은이는 무슨 애길하는지… 정말 더워서 저렇가…

이젠 좀 들어오지… 이젠…

《엄…마…》

그때 별이가 이불을 걷어차며 태질을 했다.

두사람은 동시에 별이한테 손을 뻗쳤다.

불타는 두눈이 마주쳤다.

《현심동무!》

철규가 뜨거운 입김을 뿜으며 부르짖었다.

현심이도 아까부터 가슴속에서만 울리던 말을 입밖에 내어 속삭이고싶은 충동을 강렬히 느끼었다.

하지만 온몸의 피가 순간에 멎는듯하여 아무런

말도 할수 없었다.

어느새 들어섰는지 런대장과 젊은이가 호탕스레 웃어댔다.

《아이… 이 애가… 이 애가…》

현심은 별이를 부둥켜안으며 황황히 덤벼쳤다.

젊은이가 현심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다정히 말했다.

《같이 가라구. 이 사람이 어려운 임무를 맡았는데 …》

《아버님!》

현심이가 젊은이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심통하군… 심통해… 꼭 1중대장이야.》

런대장은 별이를 들여다보며 줄곧 중얼거렸다.

×

해뜰무렵에 별이네가 마을을 떠났다.

철규는 가던길에 현심이네 집에 들리기로 하였다.

현심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자기만 먼저 떠날 작정이었다.

산속에 길이나 낸 다음에 현심이와 별이를 데려가는데 옮을것 같았다.

떠나기전에 두 젊은이가 마을어른들에게 큰 절을 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펄쳐나서서 그들을 배래웠다.

아낙네들이 큼직한 보구레미를 가면서 먹으라고 별이한테 안겨주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떠나는 별이에게 무얼 좀 시원스레 못해준게 가슴이 아프다고 끝끝 혀를 찼다.

그러면서 래년가을엔 별이를 데리고 한번 꼭 왔다가라고 신신당부들을 했다.

조무래기들이 섭섭해하는양이 어른들의 눈에 더더욱 이슬이 고이게 했다.

승벽내기로 별이를 업어주던 계집애들이 현심의 등에 업힌 별이한테 매달려 떨어지질 못했다.

드디어 승용차는 부르릉부르릉 흥을 울리며 마을을 떠났다.

《별이야, 잘 가!》

《별 … 이… 야.》

아이들의 랑랑한 웨침소리가 눈부신 해살을 타고 하늘높이 날아올랐다.

마부령감은 팔을 추켜들고 오래오래 흔들었다.

그는 기나긴 인생에서 가장 뜻깊고 행복한 시각을 맞은듯 기쁨이 어린 목소리로 하염없이 중얼거리었다.

《그래 우린 이겼어. 저런 사람들이니까 이길수 밖에 …

어허, 우린 앞으로 얼마나 회한하게 살텐가!》

련시

충성의 대를 이어...

한기운

어머니의 심장

직포공의 한생은
실이음 련습으로 시작되고
직포공의 삶은
실이음 련습으로 빛나는가

이 밤도
우리 어머니 돌보기너머
오리오리 실오리
이어보시고, 또 이어보시고...

아, 한생 직포공으로 살아
실이음 나무랄데 없고
한생 직기바다 갈매기로 날아
짜는 비단결 흠할데 없건만

아득히 흘러간
외래머리 처녀시절
기대앞에 서던 첫날처럼
오리오리 날실을 이어보시는
우리 어머니

이젠 그 나이에

쉬시라고 여쭙니
이 딸의 손목 꼭 잡으시며
15억미터고지가 앞에 솟아있다고
돌보기 벗어나며 조용히 속삭이시네

-어버이수령님께선
오늘도 아니 쉬시고
공장과 농장 들길을 걷고계신다!

아, 한생
어버이수령님을
비단으로 받들어 온 어머니
그 마음 그 걸음
나이말에 묻히면 어찌랴

이 밤도
천리마대고조
그날의 이음실속도에
《80년대속도》를 이어가시고
한생을 끝은실처럼
꼭게 이어오신 그 매듭속에
충성의 대를 이어주시고...

초소의 오빠에게

오빠
글쎄 담임선생님도
다정한 동창들도...
내가 무용대학에 가리라 믿었대요
타고난 재간둥이라고

어머니도
품은 소원 있었건만
학교의 추천을
언뜻 막지는 못했대요
이 딸의 작은 재간을 두고

나도 그때는
희망도 재능도 다 바쳐
어머니 충성에 대를 잇는다면서
공장으로 간다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안전교양 마치고
기대배치 받던 날
공장구내 사적비앞에서
가슴깊이 새긴
어버이수령님 교시

-방직은 하나의 예술입니다

그날부터 천을 짜며
나날이 꽃천을 짜며
가슴가득 넘쳐나는 보람
삶의 궁지

아, 사철 흐르는 꽃비단
가무단 무대에서 볼수 없는
그 아름다움 여기에 다 있어

가무단 무대에서 느낄 수 없는
그 숨결 여기에 다 있어

어버이수령님
예술로 꽃피워주신
직기바다는 나의 무대!
나는 한생토록

비단꽃피워가는 행복한 주인공!
그래요
초소에 계시는 오빠
예보다 더 아름다운 무대는
세상에 없어요
나보다 복받은 예술가는
세상에 없어요

충성의 대를 이어

어머니 품에 안겨
탁아소로 가던 구내길로
이 아침 함께 걸으니
귀밀에 내린 흰머리오리
그 모습 새삼스러워

아, 내 어릴제
나비리봉 달고
방직공장 찾아
축하공연 나갔을 땐

직포공 우리 어머니
새까만 머리우에
하얀 이음실오리
사뭇이 없었더니

어느덧 귀밀엔
흰머리오리 내려
젊으신날의
그 이음실오리인듯

아, 해방의 그 봄
피눈물만 짜던 원한의 도루마리에서
모진세월 영원히 끊어주신
은혜로운 수령님 해빛아래
비단으로 꽃피워온 어머니의 삶

어려있구나, 그 흰머리오리엔
포화의 나날
전선으로 보낼
승리의 군복천을 짜던
어머니의 그 마음이

천리마대고조의 갈기를
비단필로 날리며
수령님 안겨주신
주체의 《비단나라》를
온 세상에 꽃피워온
어머니의 그 걸음이야...

그 한생 다 어려있어
그 흰머리오리는
저무는 생의 서리가 아니라
샘같이 맑고 깨끗한
삶의 비단실!

아, 《80년대속도》창조의 이 아침
작업준비 끝내고
귀밀머리 쓸어올리시는 어머니
그리고 맑은 미소 나란히
휴게실 거울속에
나도 조용히 함께 웃는다

수령님 해빛 우러러
비단으로 꽃핀
그 한생
더없이 아름다와
어머니 모습속에 내가 웃고

당의 해발 우러러
충성의 대를 이어 빛내갈
이 딸의 첫걸음
더없이 기뻐
내 모습속엔 어머니가 웃고...

강바람

조동서

출근무렵이면 화학종합공장정문앞은 항상 분주하다. 강건너 청춘도시에 살고있는 수천명의 노동자들이 거의 같은 시각에 통근열차와 빠르게 또는 자전거로 이곳을 향하여 밀려들곤한다. 이럴 때는 마치도 명절행사에 펼쳐나선 행렬이 물결쳐오는듯했다.

이럴 때 누구보다 바빠 지내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공장울타리밖에 닭공장처럼 길고 산뜻하게 지은 은빛합석지붕밑에서 일하는 자전거차고관리원 박덕삼로인이었다. 한것은 공장종업원의 팔구십프로가 이십대의 청년들이는데 그들모두가 《완행차》(청년들은 통근열차와 통근빠스를 그렇게 불렀다)를 타지 않고 자기들의 《급행차》인 자전거로 청춘다리를 건너다녔기때문이다. 한창 혈기에 아침저녁 싱그러운 강바람을 쏘이며 긴 다리를 건너다니는게 그들에겐 더 없는 즐거움이였다. 그런데 이들모두가 박덕삼로인과 《아침인사》를 꼭듯이 나누고서야 공장정문으로 들어설수 있었다.

다른데서는 볼수 없는 이런 일이 이 공장에서는 깨뜨릴수 없는 관례로 되어있었던것이다.

어느날 아침.

그 많은 공장노동자들이 박덕삼로인과 반갑게 《아침인사》를 나누고 공장안으로 들어간지도 퍼그나 지나서였다.

공장정문으로부터 청춘다리와 잇닿아있는 큰 길로는 강쪽에서 서드러운 바람이 불어올뿐 사람 그림자 하나 열씬 않는다. 이제부터 퇴근무렵까지 자전거차고안은 적적하달만치 조용하기마련이다.

이때 웬 청년이 자전거를 옆구리에 끼고 혈떡거리며 차고안으로 쑥 들어섰다.

자전거들을 돌아보던 박덕삼로인은 방금 들어선 청년을 보자 흠칫 놀라 그자리에 굳어졌다.

《아니 임자 그게 웬일인가?》

청년은 죄를 지은듯 바람 빠진 자전거를 붙잡은채 아무 말도 못한다.

《이걸 한갓 자전거루만 생각해서야 되나. 이게 어떤 자전건가 엉!...》

로인은 너무도 억이 막혀 말끝을 흐리며 부러진살 하나를 붙잡고 온몸을 후들후들 떠다. 로인의 두눈에서 금시 눈물이 쏟아질것 같았다.

청년은 몹시 당황하여 어쩔바를 몰라했다.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로써는 사태를 수습할수가 없었던것이다.

《...그 은정을 벌써 잊었나. 다리준공식날 이

자전거를 타고 다리를 건느며 모두가 목이 메여 울던 그날을 잊었나말이야!...》

청년은 그 소리에 가슴이 찢렸던지 고개를 푹 떨구고 슬그머니 돌아서고만다.

아무리 철딱서니없는 녀석들이라고 한들 어쩌면 이럴수 있을까!

그는 아픈 심정으로 불쌍 사납게 된 자전거를 점도록 지켜보았다. 제 살점이 찢겨나가도 이렇게까지 아플것 같지는 않다.

(이걸 어쩌면 좋을까?...)

자전거를 그대로 차고에 갖다세울수도 없었다. 그는 구부러든 바퀴살을 매만지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박로인이 차고일을 맡아보기 시작한것은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니다.

...공장구내에 봄별이 아물거리던 어느날 공장당비서가 그가 일하는 현장에 내려왔었다.

박덕삼로인은 그날 지구의처럼 생긴 원료저장고인 뿔탱크에서 고물직장으로 건너간 가스관을 돌아보고있었다.

《박아바이 년로한 몸에 수고가 많겠습니다.》

《수고랄게 있습니다. 소풍삼아 이렇게 돌아보군하는걸요.》

둘이는 푸른 주단을 펼쳐놓은듯 파릇파릇 새끼이 돌아난 잔디밭에 앉았다. 구내길을 내놓고는 공장안의 넓은 공지가 모두 푸른 잔디로 덮여있었다.

《아바이 좀 의논할 일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의논이라니요!》

당비서는 박로인을 웃음어린 눈길로 지켜볼뿐 인차 말을 꺼내지 않는다.

박로인은 이상한 예감을 느꼈다.

《판 일을 좀 말아주시지 않겠습니까?》

《판 일을 하다니요! 여기서 또 밀려나란말입니까?》

《아바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당비서 역시 놀라 두눈을 홉떴다.

《어제밤 공장당위원들이 모여앉아 심중히 토론하다가 오랜 당원인 박아바이한테 그 일을 맡기자고 합의를 보았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로인은 당조직의 결정이란 소리에 짐짓 엄숙해졌다.

실은 그가 배관순회원을 하는것도 오래 된 일이 아니였다. 노소비료직장의 한다하는 출하공으

로 일하던 그가 여기로 올 때도 당비서의 이런 담화 끝에 왔던 것이다.

《공장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비서동문 저를 이리로 보낼 때도 그렇게 말씀했지요.》

《하하, 아바이가 단단히 방패를 들 잡도리군요. 터놓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뜻을 잘 받들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렇니다...저길 보십시오.》

당비서는 폭넓은 구내의 한 곳을 가리켰다. 거기엔 자전거들이 질서없이 서있었다. 자전거는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눈길 가 닿는 곳마다 여기저기에 서있었다.

《저 귀중한 자전거들이 사곳에 널려있는 게 볼썽도 사납구 또 허투루 다룰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장밖에 집이나 한 채 지어놓고 노동자들이 출근할 때 맡겼다가 나갈 때 찾아가도록 하자는 겁니다.》

《자전거관리원을 하라는 거군요.》

박로인은 섭섭한 기색을 지으며 말했다.

《그런 일이야 경리과의 녀인들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당비서는 박로인의 심정이 심분 이해되는지 얼굴에 미소를 그리며 말했다.

《물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린 책임 높은 로당원아바이가 그 일을 맡아줬으면 해서 그렇니다.》

박덕삼로인은 선뜻 입을 열지 못했다.

당비서가 믿고 하는 말이겠지만 어쩐지 가슴 한구석엔 서운한 생각이 서려있었다.

《생각해보십시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이런 현대적인 공장을 지어주시면서도 공기가 나쁘지 않을가 염려하시어 강건너에 문화도시를 펼쳐주셨지요. 그러시고는 통근빠스를 보내주시고...》

당비서는 잠시 말을 끊고 감회깊은 추억에 잠겼다.

노동자들은 더는 바랄 것이 없었다. 하기에 그 후 공장을 찾아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화학공장이라고 하여 건설초기에는 적정이 되었는데 다룬데 못지않게 공기가 좋다고 얼마나 만족해하시었던가!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밤낮 기차나 빠스만 타고다니면 매우 갑갑해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노동자들이 시원한 강바람을 마시며 출퇴근을 하라고 저 강에 육류교 못지않은 다리도 놓아주시고 자전거도 수천대나 한날 한시에 보내주시지 않았던가!...

강쪽을 점도록 바라보는 박로인의 눈앞에는 그 사랑을 받아안던 나날들이 영화화면처럼 떠올랐다.

《제 생각이 짧았던가 봅니다.》

박로인의 감동에 젖은 목소리였다.

그후부터 박로인은 자전거차고관리원이 되었다. 일에서 자못 보람도 느꼈다...

그러나 박로인은 이날 아침 자기 일에 빈구석이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잘못을 보고 잔소리하기는 누구나 쉬운 것이다.

박로인은 어깨가 축 처지며 맥없이 공장안으로 터벅터벅 들어서는 청년을 보자니 마음속이 좋지 않았다. 더우기 이빠진 살과 터져 훌쩍해진 자전거바퀴를 보니 가슴이 저려났다.

박로인은 그달음으로 공무직장으로 달려가 자전거수리에 필요한 도구를 여러점 얻어왔다.

저녁녘, 청년이 차고안에 들어섰을 때 새 자전거가 주인을 맞아주었다.

이날부터 박덕삼로인은 받아두었다 내주는데 그치지 않고 아침에 받을 때 일일이 보아두었다가 바람 빠진 바퀴에는 바람을 넣어주고 간단히 수리할 것은 깐지게 고쳐 내주곤 했다.

이렇게 되니 젊은이들한테 무척대고 잔소리만 할 때와는 달리 자신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곤 했다. 이것은 그만인 느끼는 남모르는 기쁨이었다.

며칠이 지난 어느 하루 박덕삼로인은 어느날과 같이 아침 일찍 나와 차고안을 한바퀴 빙 돌아보고 강기슭과 잇닿은 큰길쪽을 지켜보았다.

동방산위에 방금 솟아오른 해가 강변위에 그물 거리는 물안개를 연분홍으로 물들이고있다. 수백명의 젊은이들이 자전거수마냥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안개발을 헤치며 청천다리를 건너고 있었다. 그들은 빛이 그리도 좋은지 자전거를 타고오면서도 가만 있질 못한다. 어떤 녀석인지 파아란 수건을 쓰고 달리는 처녀앞에서 위태롭게 이리비틀 저리 비틀 지긋게 장난질을 한다. 그때마다 처녀는 심술꾸러기를 피하느라고 무척 조심하여 자전거를 몬다. 총각녀석이 왼쪽으로 몰면 처녀는 오른쪽으로 가고 또 오른쪽으로 총각이 몰면 처녀는 왼쪽으로 몰아간다.

박덕삼로인은 젊은것들 노는 게 부럽기도 하고 한편 불안스럽기도 했다.

(그러다 짓쫓기라도 하면 어쩔려구 저런! ... 저녀석이 어느 직장 뉘더라?)

그러나 아직 먼 거리여서 가려볼 수가 없었다.

박덕삼로인은 아슬아슬한 마음으로 지켜본다.

《파란수건》이 어느썹에 그 휘방군의 틈을 비집고 쑥 빠져나왔다. 그리고는 제비처럼 안개속을 헤치며 쏜살같이 달린다. 한참후에 처녀는 뒤를 돌아본다. 아마도 막을 울려주느라 생글생글 웃는 모양이다.

그래서인지 까마득히 떨어진 총각녀석이 뭐라고 소리를 치며 주먹을 내흔들었다.

박로인은 은근히 처녀편이 되어 마음속으로 손벽을 쳤다.

(허허 녀석 꼴탕을 먹는군.)

까닭 모르게 마음이 즐거웠다.

박로인에게 그들모두가 집안에 한구들되는 손
자손녀들처럼 대견하게만 생각되었다.

젊은이들은 꼭 공장의 얼굴이라고 할수 있었
다.

공장일이 잘되면 젊은이들 얼굴에 저렇듯 밝은
웃음이 떠날줄 몰랐고 간혹 일이 뜻대로 안되면
저 애들의 얼굴에 묵묵한 침묵과 함께 피로한 빛
이 나타나곤했다.

그러므로 박덕삼로인은 공장울타리를 벗어난
자전거차고안에 앉아있으면서도 어느 직장 뉘작
업반의 일이 잘되고 못되는것까지 손금보듯 알고
있었다. 박로인은 그럴 때면 근 사십여년간에 쌓
은 로동경험을 가지고 조언도 주고 힘이 될 말도
해주곤한다.

아침에 이렇게 웃음 안고 들어서는 젊은이들을
맞아들이고 저녁에 다시 기쁨 안고 돌아가는 그
들을 바래올 때면 자신도 삼십대의 청년으로 되
돌아오는듯싶었다. 이것 역시 그만이 남모르게
느끼는 기쁨이었다. 박로인 자신은 젊은이들을 위
해서라면 그들을 떠받드는 주추돌이 되고싶은 심
정이었다...

어느새 《파란수건》과 《장난꾸러기》가 차고
앞에 나타났다.

그들은 방금 있는 일은 감감 잊은듯 무슨 이야
긴가 다정하게 나누며 자전거를 밀고 나란히 들
어오다가 박로인을 보자 일시에 인사를 했다.

《음, 임자였구만!》

《장난꾸러기》는 이제 보니 합성직장의 조작공
창작이었다.

《덜된녀석. 그러다 사고라도 치면 어쩔려구 그
래? 》

박로인은 일부러 두눈을 부릅뜨고 성을 냈다.

그러나 총각녀석은 배심줄계 처녀를 마주보며
별썬 못더니

《그썬한걸 뭘 그러니까!》라고 말했다.

《뭘라구! 이녀석 말하는걸 보지...》

박로인은 싱겁게 노는 《장난꾸러기》앞으로 다
가갔다.

《자전거나 인내라구.》

박로인은 진정 성을 내는듯싶었다. 그는 자전
거를 우에서부터 아래로, 또 아래서부터 우로 잔
잔히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 눈길은 의례히 쇠사
슬의 째새기와 바퀴살구멍에까지 가닿기마련이
다.

로동자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박로인과의 《아
침인사》는 이렇게 진행된다.

여기서 그의 눈에 들어야 《합격》되어 차고에
세울수 있고 그렇지 못할 때는 《퇴짜》를 맞고
한구석에 나앉게 된다. 그것은 레외없이 박로인
의 손길이 가야 할것들이다.

때문에 굴레벗은 망아지처럼 멋없이 자전거를

타고 돌아치던 청년들도 이럴 때면 흡사 지휘관
앞에 무기를 검열받는 전사들처럼 자못 심중해진
다.

《이것 보지. 어제까지 뽕뽕하던 뒤통이가 왜
이렇게 물렁바가지가 됐어? 》

청년은 그 소리에 좀 주눅이 드는지 코를 찡긋
하고는 우습강스럽게 입술을 비죽이 내밀었다.
그러나 겁먹은 두눈은 뒤통이에서 허둥거렸다.

《갓다 세워.》

그제서야 청년은 벌썬 웃는다. 로인이 트집을
잡아 우야 해보는 소리였다는걸 안 모양이다.

다음은 처녀 차례였다.

청년뒤에서 자전거를 붙들고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서있던 《파란수건》이 조심스럽게 다가왔
다...

잠시후 자전거를 차고에 세우고 나오던 그 청
년이 또 히죽벌죽 하며 한마디 했다.

《아바이 보는데서 그러는건 아무것도 아닌줄
아십시오. 남들은 자전걸 타고다니며 정신없이
련애를 다 거는데...》

《뭘! 자전거를 타고 련애질을 해!...》

《그럼요.》

《그건 또 어느 녀석이냐? 사랑애기 할데가 없
어서 자전걸 타고다니며 련애질을 한단말이냐!》

《그게 더 재미있어 그러겠지요뭘... <주단안장>
을 달구쳐보십시오.》

그녀석은 이런 희떠운 소리를 하고 나가버렸
다.

(《주단안장》이라니, 그건 또 무슨 가을빠꾸기
같은 소린가?)

듣고도 모를 소리였다.

《애. <주단안장>이란게 누구냐?》

《저...》

처녀는 입을 벌리려다가 인츰 오무리고 까만
눈썹을 차분히 내리깔았다.

《그게 누구냐말이다.》

《빨간 <주단안장>이 있지 않아요...》

처녀는 얼굴에 앵두같은 입술을 벌렸다.

《그게 누구냐구 묻질 않냐?》

《저도 잘 몰라요...》

처녀는 깜짝하게 발뻘하고는 생긋 웃더니 나가
버린다.

(허, 모를 일이군.)

한동안 갑자기 조용했다.

이곳을 벗어난 젊은이들이 때를 지어 공장정문
으로 밀려가고있었다.

방금 나간 《장난꾸러기》와 《파란수건》이 유
쾌하게 웃으며 공장정문으로 들어선다.

(녀석들, 좋은 때 청춘을 만났지! 자기네가 얼
마나 행복한지 알기나 할가?)

박로인은 느닷없이 값없이 흘러간 청춘시절을
회고했다...

그는 차고안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자전거들이 아침햇빛에 유난히 반짝인다. 어느것 하나 흠잡을데가 없다. 짧은것들한테 늘 잔소리한게 효력을 내는상싶다. 그는 흐뭇한 마음으로 노소비료직장, 암모니아직장, 아닐론직장, 고폴직장... 이렇게 순번대로 차고를 돌아보고있었다.

그러다 박로인은 한곳에서 흠치 놀라 그자리에 굳어졌다.

웬 처녀가 이쪽으로 등을 돌려대고 자전거바퀴에 험상하게 게발린 빨간 흙덩이를 꼬챙이로 떼내고 걸레로 박박 닦아내군한다.

저런 자전거가 어떻게 차고안으로 숨어들었는지 알수 없었다.

그쪽으로 급히 다가가던 박로인은 또 한번 흠치 놀라 그자리에 굳어졌다.

뜻밖에도 기술과 실험공으로 일하는 둘째손녀 선옥이었다.

《너, 게서 뭘 하느냐?》

처녀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섰다. 삽시에 얼굴이 빨갱게 달아올랐다. 고운 얼굴에 땀이 한벌 내배였다.

일곱이나 되는 손자손녀들중 누구보다 박로인의 총애를 받는 선옥이었다.

처녀는 용기를 내어 고개를 쳐들고 할아버지를 쳐다본다. 한가닥 기대를 건 그 눈길...

그러나 할아버지의 엄엄한 눈길에 부딪치자 그 새별 눈은 삽시에 긴 속눈썹에 가리워버렸다.

처녀는 그자리에 팔짝 주저앉는다. 그리고는 땀을 닦아냈다. 이런 딱한 사정을 미리 피하려던 애초의 계획이 뒤틀어진 이상 될대로 되라는 듯...

처녀는 그래도 허물을 통채로 드러내기는 몹시 싫은 모양, 흙물은 뒤바퀴를 온몸으로 가리우고 바지런히 흙을 툰다.

박로인은 대뜸 그것이 손녀의것이 아님을 눈치챘다. 직장마다 차고가 따로 있고 사람마다 제것 세우는곳이 엄격히 정해져있는데 손녀가 이곳에 자전거를 세울리 없지 않는가!

의심쩍은 생각이 부쩍 들었다.

《아니, 그게 누구거길래 거기 붙어 그러느냐 영?》

박로인은 노염을 토했다. 그리고는 부리나게 자전거 세운곳으로 다가가 명찰판을 들여다보았다.

김명남...아연도철판에 쓴 세 글자가 해빛에 반짝 드러났다.

(음...)

박로인은 못볼것을 본 때처럼 쓴입을 다시며 고개를 돌렸다.

(이녀석이 또 이런단말인가!)

애초부터 그녀석한테는 티끌만큼도 정이 가지 않았다. 짧은 녀석이 얼굴에 늘 그늘을 지고 다

녔다. 언제 봐야 속내를 알수 없는 녀석이였다.

달포전 일이 불현듯 떠올랐다.

...그날은 마침 휴식일이여서 열살잡이 막내손자를 데리고 이른새벽 강에 나갔었다.

강녘에 젖빛 안개가 뽕얇게 서려있었다. 박로인이 습습한 안개발을 헤치며 낚시터에 나타나자 먼저 나와 고기를 낚던 사람들이 저마다 반겨맞으며 좋은 낚시터들을 내주었다.

《허, 열성들이 대단하구만. 어땠가. 바람 한점 없는게 꽤 물건 같은데...》

《바로 맞혔수다. 이걸 보시우.》

공무직장의 배관작업반장이 벌쭉거리며 고기궤미를 들어보인다.

《허허, 그러다간 오늘 지고 갈 일이 걱정되겠는걸!》

그는 안개에 축축히 젖은 풀숲의 이슬방울을 말끔히 털어버리고 자리를 틀고앉았다. 그는 검푸른 물속에 낚시를 던지며 생각했다.

(곰같은 일이지... 왜정때 같으면 생각이나 할 일인가!)

이렇듯 큰 화학공장은 고사하고 강근처에 제지 공장이나 염색공장 하나만 있어도 강물고기가 멸종되곤했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고 공장건설시초부터 얼마나 넘려해오셨던가!

이 땅에 화학공장을 건설했다고 우리 나라의 맑은 공기, 맑은 강물이 절대로 흐리게 해서는 안된다고 하시며 그 방도를 일일이 가르쳐주시느라 이강녘에 얼마나 자주 나오셨던가!

그이께서 다녀가신 그날에도 강바람은 지금처럼 싱그럽게 불어왔지...

그날의 영상이 우렷이 떠올라 눈곱이 뜨거워올랐다.

《할아버지, 물었어요!》

손자의 새된 목소리에 박로인은 생각에서 후닥닥 깨어났다.

《저런 누친거웨다. 당기라우요!》

이쪽 저쪽에서 연방 소리쳤다.

박덕삼로인은 그제서야 종대가 깊은곳으로 꺾어져가며 끌려가는것을 보았다.

채기 바쁘게 낚시대가 휘청거렸다.

《저런... 천천히 천천히...》

옆사람들이 손에 땀을 쥐고 급한 소리를 질렀다.

시퍼런 강물위로 강아지만한게 허연 배를 드러내고 퍼들쩍거리며 끌려오고있었다.

《됐다! 이놈...》

모래밭에 나뻗어진 물고기가 한길이 넘게 펄쩍 펄쩍 올리뛰었다.

《히야, 거 굉장히 크웨다!》

낚시꾼들이 우르르 밀려와서 부러운 눈길로 구경을 한다.

《거 펄펄 끓여놓고 저녁에 한잔 했으면 좋겠수다!》

《아무렴, 노는 날이겠다. 생각 있으면 저녁에 건너오게나.》

박로인은 흥그러운 심정에 잠겨 다시 낚시를 던졌다.

이때였다. 강변으로 웬 젊은이가 자전거를 끌고 오고있었다. 그가 한걸음 두걸음 내짚을 때마다 왈가닥거리는 자갈소리가 요란스럽게 났다.

낚시군들의 시선이 일시에 그쪽으로 쏠렸다. 숨소리를 죽여가며 종대들을 지켜보는 낚시군들에게는 여간 방해가 되지 않았던것이다.

그래서인지 깜박거리던 종대들이 잠잠해졌다.

젊은이는 그러거나말거나 이쪽엔 고개 한번 돌리지 않고 더욱 부산스럽게 자갈소리를 냈다.

《저 사람은 눈이 없는가! 눈치가 없군.》

누군가 들으라고 큰소리로 말했다.

그제서야 그 사람은 우뚝 서더니 이쪽으로 고개를 꺾 돌렸다.

안개속에 드러난 젊은이는 뜻밖에도 정화직장의 그 청년, 언젠가 바람 빠진 자전거를 옆에 끼고차고안으로 들어서던 그 사람이었다.

박로인의 눈길은 대뜸 청년의 자전거에 가서 멎었다. 자전거 뒤좌석에는 옷뚜껑을 콕 막은 퍼그나 큰 초롱이 앉아있었다.

《음!...》

빛에 쓰는 초롱인지 짐작이 갔다.

《임 잔 온밤 이런곳으로 자전거를 끌고다니며 물고기사냥을 하였는가!》

《저, 불일이 좀 있어서...》

청년은 주눅이 든듯 말끝을 흐렸다.

자전거도 사람도 말이 아니었다. 자전거는 앞바퀴에 바람이 빠져 납작해졌고 그 사람은 바지가랭이와 랑팔소매가 폭 젖어 후줄근했다.

《그게 어떤 자전거라구 이런곳으로 끌고다니며 그 지경을 만들어 영! 나는 임자가 그날 채심을 했는가 했더니...허 참.》

박로인은 삽시에 즐겁던 마음을 잡치고말았다.

그는 언젠가 청년의 못쓰게 된 자전거를 고쳐주면서 청년한테 이런 일이 다시는 없으리라고 믿었었다.

(어쩌면 사람이 저럴수 있을까?)

청년은 낚시터에서 멀어져갔으나 박로인의 마음은 점점 무거웠다...

그날의 김명남이 또다시 그런 물골로 박로인앞에 세번째로 나타난셈이다.

그런데 어인 까닭으로 그녀석은 달아나고 저에가 덜된 그녀석의 자전거를 불안고있을까?

무슨놈의 감투끈인지 알수 없었다.

《그녀석은 어딜 갔느냐?》

《바빠서...》

《뭐 바빠! ...밤마다 낚시질이나 다니는 녀석이

바빠!...》

박로인은 노하여 소리쳤다.

《낚시질이러니요?》

선옥의 두눈이 갑자기 놀람에 커졌다가 점차 깔끔한 눈초리로 변했다.

박로인은 뭔가 말을 할듯말듯 방싯거리는 손녀의 입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선옥의 입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그럼, 뭐란말이야! 내 눈으로 직접 봤는데 두...》

그러자 손녀는 더 참을수 없는듯 고개를 들었다.

《할아버진 그럼! ...》 선옥은 울음을 터칠것처럼 박로인을 쳐다보다가 《그 동물 모욕하질 마세요.》 하고 총알처럼 내쏘았다.

했으나 아직 진정되지 않는지 그의 불룩한 앞가슴이 세차게 오르내렸다.

둘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선옥은 흠을 다릴지 못한 자전거바퀴를 야릇한 눈길로 지켜보다가 자전거 뒤안장에 실은 철통을 냉큼 안았다. 손녀는 나가면서 한마디 했다.

《미안해요. 할아버지-》

《뭐, 미안해! 허...》

박로인은 혼자 허거픈 웃음을 지었다. 그녀석편에 은근히 서는 손녀가 꽤 씹하게 생각된다...

하지만 그는 손녀가 하던 일손을 붙잡았다. 쓰든달든 그 일은 어차피 자신이 해야 할 일인것이다.

이녀석이 밤중에 어딜 싸다녔을까?

참한 선옥이가 그토록 사색이 되어 항변하는걸 보면 낚시질을 다닌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그놈의 초롱은 빛이길래 그 애가 꼴단지처럼 소중히 불안고 갔을까?

까닭 모르게 불안한 생각이 자꾸 머리를 추켜들었다. 생각할수록 선옥의 처사가 껄름직하기만 했다.

손을 툭툭 털며 일어서던 박로인은 펄쩍 놀라 그자리에 굳어졌다. 로인은 그때야 자전거안장을 보았던것이다.

그는 차분한 촉감을 주는 빨간 안장에 손을 가져갔다가 가시에라도 찢린듯 흠칫하며 손을 뗐다.

(가만, 내 이런 주단천을 어디서 봤더라?)

두눈을 지그시 내리감고 생각을 쫓던 로인은 소스라치듯 놀랐다. 로친네가 농 짝을 들출 때마다 눈에 띄우던 천과 신통기도 같았다.

(그럼 그 애가!...)

가슴속이 갑자기 활랑거렸다.

박로인은 방금 떠오른 불안을 애써 털어버리려고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그럴수야 없지. 아무렴 우리 선옥이가 그런 녀석하구 붙어다니며 말밥에 오를라구!)

로인은 손녀에 대한 공장사람들의 평판이 얼마나 좋은가를 모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박로인 자신의 위안에 불과했다. 그가 생각을 어떻게 하든 현실적으로 빨간 주단안장은 눈앞에서 불꽃처럼 어룡거리고 불안의 그림자는 가슴속 깊은곳에서 널름거렸다.

문득 합성직장청년이 하던 그 목소리가 귀전에 다시금 울렸다.

《…남들은 자전걸 타고다니며 런애를 다 거는 데… <주단안장>만 달구쳐보십시오.》

그 말을 하며 벌룩거리던 그 얼굴이 떠오른다.

(이제 이걸 어쩌면 좋을까?...)

뜻밖의 일이 박덕삼로인의 마음을 괴롭혔다.

그날 박로인은 하루 해가 다 갔으나 불안스러운 심정에서 헤어나갈 수가 없었다.

저녁녘이 되어 퇴근하는 사람들이 밀려드는 바람에 얼마간은 그 일을 잊을 수 있었다.

그러나 차고안을 돌아보면 로인의 불안은 곱절로 커졌다. 텅빈 차고안에 유독 두대의 자전거-명담이와 선옥이것만이 당실 남아있었다.

박로인은 가슴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로인은 저도 모르게 공장안으로 스택스적 걸음을 옮겼다. 구내는 조용했다.

그는 무심중 고개를 들었다. 하늘중천에 높이 솟은 해불탑이 바라보인다. 폐가스 연소되는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 암모니아직장에서 쿵쿵거리는 대형압축기의 소음이 은은히 울린다. 심장의 박동소리처럼 느껴지던 그 소리도 오늘은 로인을 기쁘게 못했다.

목적 없이 구내를 거닐자니 맹랑하기 짝이 없었다.

로인은 다시 차고에 돌아와 접수실에 털썩 주저앉았다. 가슴만 답답했다.

(음, 바람이 단단히 들었어!)

로인은 이렇게 생각하고있는데 선옥이가 바람처럼 차고안으로 달려왔다.

《할아버지, 그 동무 안왔어요?》

손녀는 밀도끝도없이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박로인은 침묵을 지켰다.

《할아버지!》

선옥은 안타까운듯 발을 동동 굴렀다.

《그 동무란 도대체 누구냐?》

《아이참, 그 동무말이에요. 정화직장의...》

(음, 저게 언제부터 저렇게 됐을까? 머리속엔 온통 그녀석 생각뿐이구나!)

박로인은 긴숨을 담배연기와 함께 내뿜었다.

《네가 모르는걸 내가 어떻게 안단말이냐!》

선옥은 금시 울상이 되었다.

그러는 손녀를 보니 마음이 산란해졌다. 그러나 말은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박로인은 피우던 담배를 비벼 끄고 손녀앞으로 다가왔다.

《애, 툭 터놓고 말해보자. 그녀석하군 어떤 사냐?》

《참, 할아버진 남은 속상해죽겠다는데 무슨 그런 소릴...》

선옥이 말은 이렇게 했으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걸 로인은 감촉했다.

《뭘라구! 내 다 안다. 지금 무슨 소문이 도는지 알기나 하고 그런 소리냐!》

할아버지의 성난 얼굴을 의아쩍게 쳐다보던 선옥은 《소문이라니요!...》 하며 초조한 눈길로 박로인을 지켜본다.

《웬 일인지 말을 해야지, 할아버지앞에서 거짓말을 하다니.》

박로인은 마음을 녹잡히며 은근히 물었다.

《그 동무 일이에요.》

《그 동무 일이자 그거야 네 일이겠지...》

《그렇지만 전 그거...》

선옥은 다소곳이 고개를 숙였다. 빨갛게 상기된 손녀의 가름한 얼굴이 불빛에 숨김없이 드러났다.

(허, 틀림없구나!)

박로인은 이렇게 생각하며 실망조로 물었다.

《그래 어찌 됐다는거냐?》

《그 동무가 연구하던건데 방금 실험결과가 나왔어요. 그것두 모르구 그 동문 실험해서 나왔는데 폐수가 나가는 랑곡리에 또 가자구...》

《아니 그럼 ?!...》

《떠났는지도 모르지요 뭐, 그래서 속이 타서들 찾는데...》

《그러니 그 사람이 뭘 연구했단말이냐!》

《야, 그럼 할아버진 그것두 모르고계셨나요!...》

선옥은 박로인을 원망스럽게 쳐다보았다.

《할아버진 그래서 그 동물...》

선옥의 입에서 웅천 말들이 쏟아져나왔다. 박로인은 할 소리가 없었다.

선옥은 이래저래 속이 타는지 간다소리도 없이 차고울타리밖으로 사라져버렸다.

박로인은 너무도 크나큰 충격에 온몸이 매시시해졌다. 자신이 지금껏 생활의 신념으로 생각해온 마음속의 기둥이 넘어진것만 같다.

(허, 내 살아가다 이런 일은 처음 당해보지 않는가!)

박로인은 손녀가 사라진쪽을 멍하니 바라본다. 마음속이 허우룩 빈것 같다. 미치도 품안에 안겨있던 사랑스러운 새가 그 품에 환멸을 느끼고 창창한 하늘로 영영 날아나버린것만 같다. 서운했다.

그는 별무리 흐르는 밤하늘을 초점 잃고 바라보다가 발걸음을 내짚었다.

그러나 그는 얼마 못가서 문득 섰다.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손녀는 명남이가 랑곡리로 갔다고 울상이 되어 말하지 않았던가! 이 밤에 그 먼길을 걸어서 갔다면 그것은 자신의 죄가 아닐수 없다.

(그녀석이 밤마다 그 먼델 다녀오자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늙은걸 또 얼마나 원망했을까... 그러면서도 나는 젊은것들을 떠받드는 주추돌이 되겠다구 항용 생각해오지 않았던가!)

박로인은 자전거에 급히 올랐다. 그리고는 구부정한 허리를 꼴꼴이 폈다.

사람들이 낮에 이렇게 달리는 박로인을 보았다면 혀를 차며 놀랐을것이다. 하지만 힘든줄을 몰랐다. 자기자신도 어디서 이런 힘이 생겨나는지 알수 없었다. 귀바퀴에서 바람이 휘휘 일었다. 가벼운 안개발이 얼굴에 축축히 휘감긴다. 길게 누운 청천강물결위에 무수한 별들이 내려앉아 반짝인다. 어느 포전에서인가 익은 참외냄새가 향긋하게 풍겨온다.

박로인은 절로 호뭇한 심정에 잠겨들었다. 늦게나마 젊은이들의 기특한 소행을 알게 된게 무척기뻐다.

랑곡리가 가까와오고있었다. 그가 배관관리원을 하며 자주 다닌고장이다. 전조등빛에 진탕질이 언뜻언뜻 나타난다. 떡반죽처럼 진득진득한 빨긴 흙이다. 앞뒤바퀴에 걸릴기게 붙어돌아가는 흙은 떨어질줄 모른다.

박로인은 급히 자전거에서 내렸다. 희끄무레한 달빛에 보이는 진창길은 진흙에 곤죽이 되어있었고 도랑에서 흘러내린 물은 여기저기에 고여서 야광에 번뜩이였다. 얼마전 다녀갈 때만 하여도 이길은 미끈하게 다져져있었는데 요즈음은 장마철이라 물도랑의 물이 넘어나서 이렇게 된것이였다.

달빛에 드러난 자전거는 언젠가 손녀가 차고안에서 명남의 자전거에 묻은 흙덩이를 털어내던 그때와 신통히도 같았다.

(이런걸 모르고 이 늙은건 애들한테 욕만 했으니...)

박로인은 물이 질벽한 우묵우묵한 길을 묵묵히 지켜보며 생각한다. 마치도 자신의 마음속에 저런 진탕길이 나있기라도 한듯...(웁 이놈의 진탕길이 그 귀중한 자전거를 못쓰게 만들었던말이지.) 로인은 잠시후 허리를 구부정하고 진창길구간을 돌아보았다. 앞으로 한 열걸음을 더 가니 길이 꽤 단단해보였다. 그러나 인저드문 보퓌길이라 발견하는 사람이 없이 그냥 두면 그 구간이 점점 넓어질것이 아닌가.

밤마다 급한 걸음을 하는 젊은이들이 언제 이 길을 수리할 생각을 하였겠는가? 자전거가 못쓰게 된다는 꾸중을 듣고 안타까와 이 먼길을 걸어 다닐줄 알면서도... 그런데 자전거관리원이란 자신은 원인을 캐고 자전거 관리방법을 대줄 대신에 나무라기만 하였지. 잔소리만 하는것이 자전

거를 책임진 사람의 자세라고 하랴. 그는 뼈저린 자책을 안고 강퓌를 내려섰다.

로인은 더 생각할새 없이 작업복 옷웃을 벗어 던지고 자전거 뒤안장에 버릇처럼 가지고 다니던 공구보자기를 꺼내어 잘잘한 자갈과 모래를 퍼담았다. 그리고는 부지런히 날랐다. 우묵하게 들어간 진탕길과 빨긴 흙이 드러난곳을 모래와 자갈로 골고루 덮었다. 그는 그걸 푹푹 밟았다. 자신의 마음속에 남은 그 어떤 공백을 메꾸어나가듯 반반하게 밟아나갔다. 어느덧 쪼각달도 높이 떠서 푹푹 다져지는 보퓌길을 비쳐주고 검푸른 창공에 휘뿌려진 별들도 천만의 등불인듯 반짝이며 로인을 동무한다. 로인의 뜨거운 마음을 노래하는듯 밤벌레의 울음소리속에서 밤은 고요히 깊어가는데 어디선가 불어오는 선들바람은 푹 젖은 이마전을 부드럽게 식혀준다.

박로인은 그날 새벽녘에야 랑곡리에서 명남이를 만나본후 자못 생각이 깊어졌다.

(그런 젊은이를 놓고 내 어찌자구 그런 쓸개빠진 생각을 했을고!...) 하는 자책이 수시로 들군다.

...김명남이가 그 일에 달라붙은것은 반년전이었다.

그는 공장에서 무심히 날려보내는 폐가스에 잔혹 조작을 잘못하여 유해물질이 섞여나올 때가 있다는걸 알게 되었다. 그렇다고 그것이 대기중의 공기를 오염시키거나 생물에 주는 영향은 결코 없는것이다. 하지만 그는 어버이수령님께서 그토록 넘려하시는 이 나라의 맑은 공기에 령점 령일프로의 유해물질이 섞여도 안된다고 자각하고 그것을 없앨 결심을 가졌었다. 하늘로 날려보내던 폐가스를 액체로 전환시킬 결심이였다.

이렇게 되면 폐가스에서 아무런 원료와 자재도 들이지 않고 질 좋은 안료도 얻을수 있었다. 안료공장을 공짜로 하나 얻는셈이니 썰먹고 알먹는 격이였다.

그는 신심을 안고 이 일에 달라붙었다. 동창생인 선옥이가 그를 적극 도와나섰다. 하나의 지향속에 둘의 관계는 자못 깊어졌고 남다른 사이로 번져갔다.

한달전 그들의 피라는 노력끝에 실험은 성공했다. 하지만 그들앞에는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겼다. 액체화된 폐수에서 물을 분해해낼 때 정제되지 못한 오염물이 조금이라도 강물에 흘러들지나 않겠는가?

공기를 맑게 하자고 하다가 강물을 흐리게 한다면 그 일은 부질없는 일이 아닐수 없다. 까닭에 명남은 일 끝난 저녁이면 랑곡리를 다녀오곤 했다.

그날도 명남은 선옥이가 실험실동무들과 같이 그곳에 올라가 진종일 수질검사를 했다는걸 모르지 않았다.

명남을 보는 사람마다 누구나 기뻐했고 진심으로 축하했다. 성공은 몰보듯 뻔했던것이다.

하지만 명남은 그들의 눈을 피해 슬그머니 현장에서 나왔다. 그는 몹시 피로왔던것이다.

며칠전 수질검사과정에 이상한 반응현상이 일어났었다. 생화직장에서는 이온이란 생물체를 번식시켜 폐수로 내보내는데 그것이 더러 죽은게 나타났다. 물론 수십번의 수질검사과정에 단 한번 나타난 현상이었다. 또 그것이 실험과정에 내보낸 폐수의 영향이라고는 누구도 단정할수가 없었다. 거기서부터 강상류는 수백리되는만큼 외부의 작용일수도 있다. 그런만큼 문제시될것은 없었다. 공장기술자들도 그것을 론증했다.

그러나 명남은 그것을 자기 량심에 받아들일수 없었다. 나타난 현상은 강물고기생육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지 않았다. 그걸 외부의 영향이라고 생각했다가 혹 정화직장폐수때문이라면 어떤 후자가 빚어지겠는가!

명남은 불안의 실마리를 잡기전에 성공이란 말을 입밖에 결코 꺼낼수 없다고 생각했다.

명남의 말을 다 듣고난 박로인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아무 말도 못했다. 무거운 침묵... 아침노을이 붉게 타는 강둑에 나란히 앉은 그들은 서로가 다른 생각을 하고있었다.

(저 가슴속에 지닌 량심은 얼마나 깨끗한것인가!)

박로인은 앞에 놓인 물초롱을 감회에 젖은 눈길로 묵묵히 지켜본다. 물고기초롱으로만 알아왔던 그 통에 지금 정화된 물이 그득히 담겨있다. 새벽이슬이 맺혀 반짝이는 물초롱안의 물은 거울처럼 얼른거린다.

강수면에서 침병소리가 났다. 손바닥같은 물고기 한마리가 뛰어올랐다가 떨어졌다. 수면위에 파문이 일었다. 강녘은 다시금 아침의 고요에 잠긴다.

명남은 수면위에 눈길을 준채 꼼짝않고 앉아있다.

《여보게, 출근시간이 늦어지겠네. 빨리 식사나 하구 직장예... 내려가 의논을 좀 해보세.》

박로인은 이런 청년을 도울수 없는 자신이 민망했고 안타까왔던것이다...

그때로부터 여러달이 지났다. 하지만 박로인은 그날 새벽에 받은 충격을 가슴속에 가라앉힐수 없었다.

로인은 그후에도 랑곡리를 여러번 다녀왔었다. 젊은이들을 어떻게 도울수 없을가 해서였다. 그러나 갈 때마다 현대기술의 속내를 모르는 자신이 한스럽고 안타깝기만 했다.

로인은 오늘도 노을이 질어가는 강변쪽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에 골몰해있었다.

이때 선옥이가 차고안으로 불쑥 들어섰다. 외출복차림에 즐거운 기분이었다.

《아니 네가 어찌된 일이나?》

손녀는 웃기만 했다.

《벌써 퇴근하는 길이나?》

《좀 나갔다 오려구 그래요. 그 동무가 며칠째 식사를 영 못한다구 공장당비서동지가 여간 걱정 아니예요. 그래서 저보구...》

《그래!...》

로인은 느슨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런 일이야 네가 알아서 할게지 당비서가 그런 걱정을 다 하게 한단말이야!》

선옥은 생긋 웃었다. 아마도 손녀에겐 그런 핀잔도 즐겁게 들리는 모양이다. 그러는 손녀를 보니 박로인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다.

《오늘도 방도를 못찾구 그러구들있느냐?》

《예, 그렇지만 성공은 확정적이에요. 정화직장에서두 그렇구, 기술자들도 이젠 마감짓자구 야단들이예요.》

《명남이 의향은 어땀냐?》

박로인은 바짝 긴장해서 손녀를 바라본다.

《그 동문 괜한 고집이지요 뭐. 그날 수질분석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전 그날 나타난 현상은 우연이란걸 장담해요.》

《아니 그럼 네가 직접 그곳엘 나갔었냐!?...》

《.....》

《그렇다면 너는 어디서 나간 폐수인지 잘 알게 아니냐?》

박로인은 미심쩍은 생각이 들어 다우쳐 물었다.

《우리 공장에서 나간 폐수예요.》

《뭘라구!? ... 그걸 명남이한테 얘길 했냐?》

《못했어요.》

《너 그게 무슨 소리냐!》

로인은 펄쩍 놀라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지금 그사람은 외부의 영향인지 너희가 내보낸 폐수의 영향인지 그걸 알자구 속이 타서 돌아가지 않느냐.》

《다 된 일에 괜히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그후 수십번 수질분석을 했지만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손녀의 입에서는 그 소리가 뿔뿔하게 흘러나왔다.

《음, 그렇단말이지!》

박로인은 자전거수리대우에 털썩 주저앉았다. 가슴이 아프고 온몸이 떨렸다.

(저게 어찌면 저럴수 있을까?)

손녀는 뭔가 리치를 따져가며 말했지만 로인에게 그 소리가 자기를 가리우기 위한 변명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았다. 설사 자기네가 내보낸 폐수가 아니라 해도 공장에서 나간 폐수때문에 그런일이 생겼다면 그 원인을 까밝혀야 하지 않겠는가!

로인은 마치도 손녀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난 네가 그런줄은 꿈에도 몰랐구나!》

박로인은 절망적으로 부르짖으며 고개를 돌렸다.

침통하게 울리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손녀의 마음에 짙었다. 선옥은 겁에 질린 눈길로 할아버지를 쳐다본다. 퍼렇게 질린 로인의 주름잡힌 얼굴이 푸들푸들 떨고있었다. 손녀는 이런 할아버지를 처음 본다.

선옥은 까딱않고 서있었다. 그는 무서웠다. 자기가 생각해온 그것이 그토록 량심에 저촉되는 일일줄은 지금 비로소 온몸으로 깨닫고있었다. 그는 자기에게 한없이 너그럽고 살뜰하던 할아버지를 두려운 눈길로 바라보며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전 그 동무가 고생하는걸 더는 볼수가 없었어요.》

선옥의 눈과 목소리에는 울음기가 섞였다. 로인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한듯 눈을 감고 잠잠했다. 이윽해서 입을 뗐다.

《그 사람은 그걸 고생으로 생각할 사람이 아니다. 네가 그걸 모르고 그 사람과 마음을 같이했다는게 유감이지.》

로인은 움쭉 일어섰다.

(그런 눈먼 사랑으로 그 젊은이의 량심을 흐리게 한다면 그건 최악이다! 남녀간에 오가는 사랑도 로동계급의 량심처럼 깨끗해야지 그렇지 못할때 그제 어찌 참된 사랑이 될수 있으랴!)

박로인은 이것이 가슴아팠다. 손녀의 처사는 로동계급의 량심을 지니고 청백하게 살아온 자기 가문에 티를 앓힌 그 어떤 수치로 여겨졌다.

선옥은 물기 머금은 두눈을 조심히 들었다.

《할아버지!...》

선옥은 무너지듯 박로인의 품에 와락 안겼다. 로인은 손녀의 까맣고 함지르르한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가봐라. 지금 그 사람한테 진수성찬보다도 그걸 아는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손녀를 명남이한테 떠밀어보냈다...

이런 일이 있은후, 박로인의 마음은 늘 무거웠다. 손녀를 볼 때마다 그 마음은 더했다.

손녀는 요즘 풀이 죽어 다녔다. 손녀는 할아버지와 마주서기를 꺼려했고 것처럼 명랑하던 애가 집에 와서도 말 한마디 없었다. 명남이와의 사이에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게 험등했다. 요즘 공장에는 명남이와 선옥이가 결별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차고안에 들리는 젊은이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어보면 그것은 분명했다. 그럴 때마다 로인은 못들은척했으나 가슴은 저머내는듯

아팠다.

어느날 저녁 선옥은 퇴근복차림으로 일찍 나왔다. 해는 아직 서쪽하늘에 걸려있었다.

박로인이 있는 접수구앞을 조심히 지나친 선옥은 곧바로 차고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웬일인지 선옥은 점도록 나오지 않았다.

박로인은 접수실을 나섰다. 그는 손녀와 마주앉아 속터놓고 이야기를 나누어보리라 마음먹었다. 그러나 로인은 얼마를 못가서 흠칫하고 그자리에 굳어졌다.

손녀는 명남이의 자전거주단안장에 한손을 얹은채 고개를 꼭 떨구고 까딱않고 서있었다. 로인은 코마루가 시큰해져 급히 외면했다.

(저게 오죽가슴이 아프면 저럴가!)

그러나 참된 량심앞에 언제건 손녀가 저런 고통을 받는데 웅당하다고 생각되었다.

로인은 손녀가 제혼자 생각에 잠겨있게 돌아서려고 했다. 그 찰나에 고개를 쳐드는 손녀와 눈길이 마주쳤다. 손녀는 할아버지를 보자 황황히 그자리를 뜨려고 서둘렀다.

《애, 선옥아...》

그 소리에 선옥은 주춤 섰다. 그러나 돌아서지 않았다.

《그 일은 어떻게 돼가고있냐?》

《전 몰라요.》

《모르다니!?...》

노한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손녀는 껍 돌아섰다. 손녀의 두눈엔 금시 눈물이 쏟아질듯 가랑가랑했다.

《할아버진 그 동무가 저한테 계속 분석실험을 시킬줄 알았어요? 》

손녀는 자기자신에 대한 노여움보다도 할아버지를 더 원망하는듯싶었다.

《그래서 물려앉았던말이지!...》

《.....》

박로인은 격하여 숨을 토했다.

《어떻게든 도울 생각을 해야지. 그렇다고 물려나다니...》

로인은 혼자소리로 중얼거리며 꺼지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누굴 탓할수가 없었다. 손녀인들 왜 그런 생각을 안했을까싶었다. 갑자기 손녀가 측은하게 생각된다.

깊은 생각에 잠겨 서성거리며 로인은 문득 선옥에게 말했다.

《애, 너 오늘저녁 나하구 랑곡리엘 한번 가보지않겠니?》

《할아버지가요!》

선옥의 얼굴에 순간 기쁨이 어렸다. 하지만 인츰 실망의 그늘이 비졌다. 할아버지가 간들 무슨수가 있으랴 하는 생각이 든 모양이다.

그러나 박로인은 끝내 손녀를 데리고 랑곡리로 향했다.

그들은 밤늦도록 랑곡리의 강기슭을 오르내리고 있었다.

《그러니 네가 시료를 뜯קות이 예가 분명하단말이지.》

《예.》

《저 합수목에선?...》

《거긴 안했어요.》

《음-》

고개를 기웃거리던 박로인은 그나이답지 않게 흥분하여 강둑에서 벌떡 일어섰다. 뭔가 짙이는 게있는 모양이었다.

《가만 그 사람이 침전못으로 나가는 폐수관을 살펴봤더냐?》

《그런 말은 안했어요.》

《그렇다면 이러구있을 때가 아니다. 어서 가보자.》

로인은 성급하게 서둘렀다.

유난히 달이 밝았다. 박로인은 이슬맺힌 풀쭈을 헤치며 성큼성큼 앞서 걸었다.

공장의 기본폐수는 생화학공정을 거쳐 생물체까지 번식시켜 강으로 흘러들게 되어있었다. 그러나 공장의 서너개 보조직장에서 나오는 폐수도 있었다. 그 폐수처리를 위해 마련한 침전못이 하나 있었다. 명남이네가 시험과정에 내보낸 폐수에서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면 분명 그것은 그 쪽에서 나간 폐수일것이었다. 선옥이가 시료를 뜯겼도 그 방향이었다.

관을 따라 침전못에 이른 두사람은 대뜸 사태를 짐작했다.

침전못에서 강녘으로 가면서 멍기오리 같은 물흙이 패워져있었다. 그것이 달빛에 뻥히 드러났다. 지금은 물이 흐르지 않았다. 장마통에 비물이 습새어들면서 폐수가 약간 넘쳐났던 모양이다.

박로인은 솟구쳐오르는 기쁨을 지그시 누르며 손전지로 재확인했다.

《야! 이런걸 모르구 할아버지!...》

선옥은 두손을 가슴우에 모아붙이고 어린애처럼 울리뛰며 좋아하였다. 웃고있는 두눈에 눈물이 번쩍였다.

박로인도 흠족했다.

(어이구, 저렇게 좋을가!)

박로인은 뜨거운것이 목구멍을 콕 메워 아무 말도 못했다.

그 내막을 미리 알았다면 젊은이들의 얼굴에 벌써 저런 웃음을 줄수도 있지 않았던고... 모든 게 자신의 잘못처럼 생각되었다.

박로인은 자전거에 오르며 말했다.

《어서 가봐라. 그녀석이 이 일을 알면 얼마나

좋아하겠니!...》

손녀는 얼굴을 활짝 붉히더니 자전거에 올랐다.

박로인은 물찬 제비처럼 내달리는 손녀를 오래도록 지켜보았다.

다음날아침 공장안팎은 명절일색으로 흥성이었다. 청천다리로부터 공장구내까지 근 5리길이 넘는 길 양옆에 수천명의 사람들이 서있었다. 공장종업원들은 물론 삼십여리 떨어진 로동자구의 가정부인들, 학생들, 나 어린 유치원어린이들까지 달려온것이다.

공장기동선전대원들이 울리는 흥성거리는 쾅과리와 북소리, 학생들이 부르는 노래소리가 한데 어울려 맑은 하늘에 울려퍼진다. 방송차가 몰매미처럼 사람들의 물결속을 재빨리 오르내린다. 젓빛안개가 피어오르는 강반으로 방송원처녀의 목소리가 랑랑히 퍼져나간다.

《공장종업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다리던 김명남, 박선옥동무들이 대교를 건너셨습니다. 기술혁신에서 놀라운 기적을 창조한 혁신자들이 출근길을 다그치고있습니다...》

일시에 사람들의 눈길이 그쪽으로 쏠렸다. 그러나 이때도 그 들끓는 사람들의 눈길과는 달리 자전거바퀴와 살에 눈길을 박고 바빠도는 사람이 있었다. 그것은 뻥질나게 닭공장같은 은빛합석지붕밑을 드나드는 박로인이었다. 그는 자기앞에선 청년로동자와 복잡한 《아침인사》를 한후에야 또 익살스럽게 찌릉찌릉 방울을 울리며 다가서는 총각에게 《흠》하고 큰가래를 떼며 다가서군한다.

(음. 그자식들, 이젠 자전거를 관리하는 솜씨가 늘었군, 그래야지. 이게 어떤 자전거라구.)

박로인의 입가에는 느슨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러나 툭 부릅뜬 눈은 바늘구멍같은 흠집을 두고도 놓치지 않을양 자전거를 따라 오갔다.

이때 일시에 노래소리, 박수소리가 터져올랐다. 꽃레프, 꽃보라... 그속에 에워싸여 명남이와 선옥이가 자전거를 밀고 박로인앞에 다가섰다.

남녀들이 꽃목걸이를 들고 그들옆에서 걸으며 깔깔거렸다. 첫눈에 그들이 합성직장의 《장난꾸러기》와 《파란수건》이란걸 로인은 알았다.

꽃목걸이를 건 명남이와 선옥은 어쩔줄 모르다가 자전거를 밀어 로인앞에 나란히 세운채 신랑신부처럼 고개를 들지 못한다.

《자, 바퀴를 돌려보아라. 음 꺼꾸로...》

박로인은 혼자소리로 중얼거리며 또 안장을 당겨본다. 류다르게 빨간 주단안장이 로인의 눈에 안겨들었다.

《음, 들어다 세워라.》

《고마와요 할아버지...》

귀전에서 돌연 손녀의 물기어린 속삭임이 들려왔다.

《고맙긴, 어서-》 일부러 거칠게 재촉하는 로인의 목소리는 저르기 떨렸다. 박로인은 또 감장눈 통계원처녀와 마주섰다. 엄숙한 《아침인사》는 계속되고있다.

때마침 강바람이 선들선들 불어오고 있었다. 밝고 푸른 강수면을 활으며 불어오는 신선한 바람이다. 그것은 이 나라 땅에서만 불수 있는 그 령듯 밝고 청신한 바람이었다.

강바람은 남모르게 바쳐지는 박로인의 깨끗한 그 마음도 실고 쉬임없이 불어오고있었다.

사랑과 증오의 노래

문기창

노래로 다 부를수 없다
빛나는 삶의 진리를 간직한
그 심장의 불을 터진
월미도의 불타는 웨침소리
《적 함선을 향하여
쫓...!》

한사람이 쓰러지면
또 한사람
포신이 되고 포탄이 되어
오직 한마디
《쫓...!》

이 땅에
그 아무리 아름다운 노래
서리찬 증오의 노래 부른다 해도
이 가슴 이리도 뜨겁지 못하리

그 누가
빛나는 말 고른다 해도
사랑과 증오로
이리도 가슴을 흔들지 못하리

아, 한치의 땅
이 땅의 한순간이
목숨보다 귀중한
장군님의 품인줄
가슴깊이 간직한
신념의 그 웨침소리

불바다에 잠긴
하늘땅을 한가슴에 안고
오직 한마디
《쫓...!》

살아온 나날보다 창창한 미래를 두고

죽음을 맞받아 그 미래를 지켜
오직 한마디
《쫓...!》

길지 않은 그 한마디
그 얼마나 뜨거운 사랑
그 얼마나 불타는 증오로
이 가슴을 뚫어주는것인가

어머니조국을 위해
원썬들앞에
신념의 불을 터친
월미도의 그 웨침소리

그대들은 남기였다
생의 빛나는 인덕을 마주 향해
승고하고 아름다운 전사의 그 모습
이 땅에 영원할
사랑과 증오의 노래

그 노래 부르며
우리 살리라
그날의 삶이 만발한
저 하늘 한끝까지

그 노래 부르며
우리 가리라
그날의 념원이 꽃핀
이 땅 한끝까지

숨결의 마지막 시각이 온다 해도
우리 그 노래 부르며
삶의 절정우에
거연히 서리라
더 높이 부르리라

인간관계의 옳은 설정과 깊은 해명

김홍섭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을 지침으로 하여 창작완성된 예술영화 《군당책임비서》의 높은 사상에술적성과의 하나는 인간관계를 잘 설정하고 그것을 깊이있게 밝힌데 있다.

인간관계를 잘 설정하고 그것을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해명하였기때문에 영화는 당정책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발휘할데 대한 작품의 주제사상적내용을 깊이있게 해명할수 있었으며 주인공과 박우필, 엄광순, 차수영 등과의 갈등을 비롯하여 기타 인물들의 비교적 복잡한 갈등관계를 옹게 풀어내갈수 있었다.

인간관계의 독창적인 설정과 심오한 해명으로 하여 작품에는 생활이 참신하고 풍부하게 펼쳐지게 되었으며 군당책임비서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가 이미 나온바 있어도 새로운 맛이 나는 걸작으로 사람들을 공감시킬수 있게 되었다.

이 영화의 구성은 비교적 복잡하다. 작품에는 중심인물의외에도 선명한 개성들이 적지 않으며 매우 생동한 인물군상들이 등장하고있다. 사건도 여러 갈래가 얹혀돌아가며 의의있는 세부들도 많다.

그러나 모든 형상요소들은 일관한 지향성을 가지고 종자와 주제사상을 해명하는데 하나와 같이 복종되고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전적으로 구성이 빈틈없이 짜였기때문이며 그 짜임새를 결정적으로 보장하고있는 인간관계의 옳은 설정에 있다.

이와 같이 인간관계의 옳은 설정과 그에 대한 깊은 철학적해명은 이 영화에서 커다란 형상적기능을 수행하고있다.

예술영화 《군당책임비서》가 주체적구성론의 미학적요구를 구현하는데서 이룩한 성과는 무엇보다도 인간관계의 조직을 통하여 당의 정책적요구를 철저히 관철하고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의 매 시기 우리 당이 내놓은 로선과 방침이 다 명백한것만큼 당의 로선과 방침에 근거하여 사실자료를 가지고 인간관계를 설정하고 예술적으로 잘 형상하면 될것입니다.》

작품에 그려지는 인관관계는 사회관계의 반영이므로 그를 진실하게 설정하려면 사회계급관계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에 맞게 인간관계를 설정하고 풀어나가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당의 방침을 철저히 구현하여 정책적인 대를 바로 세우는것이다.

이것은 다른 주제분야보다 사회주의현실들에서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서며 당일군을 형상하는 작품의 경우에는 특히 더욱 그러하다.

그것은 우리의 사회주의현실은 어느 분야나 할것 없이 말그대로 당정책을 관철해나가는 사람들의 보람찬 투쟁과 생활로 충만되어있으며 사회생활에서 사람들의 호상관계는 당정책을 관철하는 투쟁과정에서 맺어지며 심화되고있기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당일군은 당정책집행의 조직자이며 지휘성원이며 그의 사업과 생활은 시종일관 당정책을 관철하는 투쟁속에 있기때문이다.

이 영화가 인간관계조직에서 당의 정책적요구를 옹게 구현하고있는것은 당정책관철을 위한 당조직의 움직임을 옹게 보여주고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차석빈의 형상을 통하여 훌륭히 보여주고있는데서 잘 나타나고있다.

당일군을 형상하는 작품에서는 당조직선을 설정하지 않을수 없으며 당일군의 전형적성격은 당조직선에서 맺어지는 인간관계를 통해서만 옹게 그려질수 있다.

군당책임비서 차석빈은 전력생산을 정상화할데 대한 당의 요구를 절대성, 무조건성의 자세를 가지고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군당집행위원회를 열고 토의하며 초급당조직들을 움직이고 군당지도원들을 아래 당조직들에 내려보내며 3대혁명소조원과 협의하기도 하고 오랜 당원들의 의견을 듣기도 하며 생산자대중속에 직접 들어가 그들을 발동하기도 한다.

영화는 당일군이 이러한 당사업과정에 맺게 되는 인간들 호상간의 관계를 기본으로 설정하고 그것을 당조직선상에서 심화시키고있다.

주인공이 발전소 기사장, 탄광 지배인과의 관계를 통해서는 당일군이 행정간부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지며 간부들과의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당정책의 요구에 맞게 보여주고있으며

3대혁명소조원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당일군이 3대혁명소조원들과 어떻게 사업해야 하는가를 당사업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보여주고있다.

차석빈과 최관배로인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당조직이 오랜 노동자를 어떻게 대하여야 하며 또 로당원들은 당조직에 의거하여 정치적생명을 어떻게 빛내어야 하는가, 태성목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당일군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며 사람과의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당의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의 요구에 맞게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이와 같이 당일군이 당사업과정에 맺게 되는 사회생활의 전형적인 인물들로 인간관계를 조직하고 그것을 당정책의 요구에 맞게 해명하고 있기때문에 주인공의 정치사상적품모가 깊이있게 부각되고 영화의 정치사상적내용이 심오하게 밝혀질수 있었다.

영화가 인간관계조직을 통하여 당의 정책적요구를 옹호 구현하고있는것은 또한 모든 인간들 호상간의 관계가 다 그것이 비록 부차적인물들의 관계라 할지라도 현시기 당이 절실하게 해결하려는 문제를 민감하게 반영하고있는데서도 나타나고있다.

공업부문을 지도하는 군당책임일군이나 행정경제일군들의 생활에서는 당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절박한 문제들이 적지 않으며 심각한 사회적문제들이 다른 분야보다 더 많이 있을수 있다.

영화는 인간관계를 다양하게 설정하면서 그 다양한 인간들의 호상관계속에 우리 당이 당사업에서 절실하게 해결하려는 현실적문제들을 예리하게 체현시키고있다.

차석빈과 박우필, 차수영 등과 같은 중심인물과의 관계에서는 더 말할것도 없고 지어 화면에 단 한번만 나오는 인물들과의 관계에서조차 사회적문제성과 당정책적요구들을 예리하게 제기하고 있다.

차석빈은 《창광원》식 목욕탕에서 도시경영과장에게 지도원을 보낼것이 아니라 과장이 직접 영예군인 아빠트를 찾아가라고 충고를 주며 식료공장을 찾아가서는 지배인에게 1등상품을 우선적으로 탄광에 보내라고 과업을 준다.

한번 스치는 짧은 화면에서조차도 영화는 이처럼 봉사일군들에 대한 당의 정책적요구를 예리하게 드러내고있다.

영화가 인간관계조직에서 이룩한 성과는 또한 주인공이 자기 위치를 똑바로 차지하고 주동적역할을 하고있는것이며 부정적인물들과 뿔뿔히 떨어져

수 없는 밀접한 인간관계를 맺고있는것이다.

인물관계가 명백하고 탄력성이 있게 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주인공선을 어떻게 살리는가에 달려있다.

긍정적주인공 차석빈과 부정적주인공 박우필의 관계가 잘 설정된것은 그들사이가 떨어질수 없는 친구간으로, 잊을수 없는 전우관계로, 갈라질수없는 사돈사이로 되게 한것이며 서로 손잡고 일해야 하는 당일군과 행정경제일군과의 관계로 만든데 기초하여 서로 공부정인물집단의 대표적인 인물로 되게 한데 있다.

떨어질래야 떨어질수 없는 친근한 관계에 있으면서 가장 무자비하게 투쟁하지 않으면 안되는 인간관계속에서 예리한 극성이 나오고 심각한 생활이 탐구되고있으며 주인공의 높은 정신세계가 펼쳐지고 관중의 심장을 격동시키는 고상한 정서가 분출되고있다.

단둘이 만나서는 《자네, 자네》하면서 서슴없이 서로 반말질도 하고 허물없이 대하던 차석빈이가 《충신도 우리 곁에 있구, 간신도 우리 곁에 있소!》라고 절규하면서 이렇게 웨칠 때 박우필은 머리를 감싸쥐고 심각한 자책에 빠진다.

《우리 당에서는 동무와 같은 사람이 필요없소! 필요없단말이요.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일신의 출세나 개인의 향락을 다 버리고 당과 운명을 같이 할 사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로지 당중앙을 따라서 하나의 신념을 가지고 영원히 한길을 따라갈 사람만이 필요한것이요!》

당조직을 우롱하는 박우필의 교만성과 개인영웅주의를 가차없이 비판한후 차석빈은 가슴이 아파 밤새 잠들지 못한다.

이런 박우필이가 개조된것을 보는 차석빈의 얼굴색은 티없이 맑고 환하다.

차석빈과 박우필사이에 벌어지는 다양하고 풍부하며 의의깊고 대조되는 생활은 그들을 친우관계로 되게 하고 그속에서 생활을 땀기때문에 찾을수 있었던것이다.

또한 이렇게 차석빈과 박우필의 관계를 맺어주고 그것을 심화시켰기때문에 주인공의 견결한 당적원칙성과 진정한 혁명적동지애가 부각될수 있었을뿐아니라 인간성도 풍부하게 보여줄수 있었다.

다음으로 영화는 차석빈과 수영이를 혈연적관계로 설정하는것이 필요하였으며 그로하여 영화의 정서적흐름은 더욱 절절하고 뜨거운것으로 될수있었다.

외동딸 수영이를 따뜻한 자기 집 아래방에 두

고 육친의 사랑을 끝없이 기울이고싶은 심정이 어찌 차석빈에게들 없었겠는가.

아니 군안의 모든 사람들의 생활을 따듯이 보살펴주고 이끄러진 한 노동자의 성격도 바로잡아 주고 어린 학생들의 학습장도 보아주는 다감하고 인정에 넘친 차석빈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인간에 대한 사랑과 딸에 대한 애정이 극진하였다.

그러나 일구이언할수 없는 당일군인 그는 사랑하는 딸을 기어이 탄광으로 가라고 설복하고야 만다.

가장 사랑하면서도 《넌 내 딸이 아니다!》라고 가장 랭혹하게 선포하지 않을수 없는 부녀간의 심각한 관계를 설정하고 그들의 심중에서 극을 찾고 그것을 철학적으로 깊이 해명하였기에 영화는 철학성을 심오하게 보장하면서도 인정선에서 풀수있는 생활들을 시종일관 풍만하게 형상할수 있었다.

우에서 본바와 같이 정치조직선상에서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사이에서 맺어지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작품의 정치사상성과 함께 인간성을 다같이 부각함으로써 주인공 차석빈의 성격에는 정치성과 인간성이 풍부하게 형상되게 되었다.

주인공의 성격에서 정치성과 인간성은 밀접히 결합되어있으며 그것은 작품의 주제사상적내용을 실현하며 높은 사상예술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되었다.

인간관계의 설정과 전개에서 이 영화의 빛나는 창조적경험의 하나는 빈구석이 없고 겹놓인 인물이 없으며 중요인물은 더 말할것도 없고 지어 부차적인물들에게까지도 알맞춤한 형상과제를 주고있는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물배치에서 빈구석이 형상의 함정으로 된다면 쓸데 없는 인물의 설정은 형상의 뒤편으로 된다. 함정이나 뒤편이나 형상을 죽여버리는데서는 매한가지로 해로운 작용을 한다.》

이 영화는 단부작으로서는 등장인물이 많은 작품이지만 인물배치에서 함정도 뒤편도 없다.

화력발전소 기사장이 나오는 조건에서 탄광기사장을 따로 설정하지 않은것이라든지 탄광지배인이 나오는 형편에서 발전소지배인은 학교에 간것으로 처리한것이라든지 화력발전소 초급당비서를 보여주고있기때문에 탄광비서를 출현시키지 않은것들은 다 류사한 뒤편을 맡은 인물들을 겹놓지 않으려는 세심한 구상을 보여주고있다.

많은 중요인물들과 인물군상이 나오는 인간관

계조직의 특성으로 하여 영화는 인물설정에서 있을수 있는 반복을 피하고 매 인물에게 정확하고 차이나는 과제를 맡고루 주고있다.

이렇게 빠지거나 중첩되는 인물성격이 없게 하였기때문에 인간관계가 짜이고 탄력성이 있게 되었다.

그렇지 않고 군당책임비서의 사업대상이 넓고 공장에서 벌어지는 중요한 사건을 취급한다고 하면서 지배인이나 기사장, 당비서들을 공장, 기업소마다 끌고루 등장시켰다면 그것은 실무적인 그 무엇으로서는 될수 있어도 예술적품위가 높은 예술작품으로서는 될수 없었을것이다.

영화는 매 인물들에게 형상과제를 적당하게 주고있다. 형상과제가 너무 아름답다면 그 짐에 눌리어 인물성격이 생동하게 살아나지 못할것이며 그 짐이 너무 가벼우면 성격이 무뎡해지고 없어도 무방할 인물이 되고말것이다.

그러므로 전형적성격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강조하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인물들에게 형상과제를 알맞춤하게 주는것이다.

화력발전소 초급당비서에게 차례진 형상의 뒤편은 적중하다.

그는 당조직을 움직이고 사람과의 사업을 하며 행정경제일군들과 협동작전을 벌리면서 군당의 지도밑에 당사업을 옹계 전개한다.

그는 당일군으로서의 당직원칙성과 정치적인무를 가지고있으며 신중한 자세를 지니고있다.

그러면서도 화력발전소 초급당비서의 형상은 주 인공인 군당책임비서의 형상을 부각하는데 복종되고있다.

만일 이렇게 하지 않고 화력발전소 초급당비서의 성격을 살린다고 하면서 그에게 과중한 형상과제를 주었다면 주인공 차석빈의 형상은 더 살아나지 못하고 꺾였을것이며 초급당비서와 박우필기사장과의 관계에서는 당과 행정을 대립시키는 결과까지도 빚어낼수 있었을것이다.

이 영화의 인간관계조직의 특징의 하나는 등장인물의 수가 많으면서도 그들이 한사람처럼 다 종자와 주제사상을 밝히고 주인공의 성격의 어느 한측면을 부각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는데 있다.

매 인물들이 뚜렷한 형상의 뒤편을 가지고 구성에서 자기 위치를 똑바로 차지하여야 할뿐아니라 모든 인물들이 주제와 사상을 밝히는데로 하나같이 합류해 들어가야 한다.

영화는 단부작이지만 중요인물까지 포함하여 자기의 직무와 이름 얼굴을 가지고 나타나는 성

격형상만도 무려 20여명이나 헤아리게 된다.

등장인물의 수가 많고 인간관계를 다양하게 조직하게 된것은 작품의 종자와 주제사상의 필연적 요구였으며 주인공의 풍부한 성격창조의 필수적 요구였으며 영화의 인식교양적기능을 더욱 높이려는 창작의도가 낳은 산물이라고 볼수 있다.

영화는 공업부문 당사업을 지도하는 군당책임비서의 전형적성격을 폭넓은 사업과 풍부한 생활속에서 다면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주인공의 다면적이고 풍부한 성격창조의 요구가 아래 당일군들의 출현을 제기하고있으며 행정경제일군들과 기술일군들과의 관계를 필요로 하고있으며 로당원뿐아니라 무언가 해보려고 애쓰나 아직 조직적단련이 부족한 노동자도 나오게 하고 3대혁명소조원도 등장시키고 교육부문일군들과 봉사부문일군들도 요구하고 지어 가정까지도 보여주게 한것이다.

작품을 통하여 혁명과 건설의 경험과 방법을 배워줄수 있게끔 그의 인식교양적기능을 높이는것은 주체적영화창조리론의 중요한 요구이다. 우리 영화예술의 현대성은 이토록 높은 수준에 오른것이다.

이 영화는 우리 당일군들이 따라배워야 할 당사업독본과 같다.

영화를 통하여 당일군들에게 당사업독본을 안겨주는것과 같은 높이에서 경험과 방법을 배워줄수있도록 생활내용을 전형화하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여러종의 인물들이 등장하고 다양한 관계를 맺게 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렇게 놓고보면 인간관계의 다양한 조직은 이 영화의 생리적요구이며 작가의 독창적인 창작의도와도 관련되어있는것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문제는 그 많은 복잡하게 얽

힌 인물들을 하나의 흐름속에 잘 이끌어가고있는데 있으며 바로 여기에 인간관계 설정과 해명에서의 세련된 기교가 있는것이다.

많은 인물들을 다 이야기줄거리에 극적으로 얹히게 하고 그들이 모두 자기의 개성과 몫을 가지고있으면서도 한사람처럼 주인공의 성격형상 부조에 복무하고있는것이 바로 그것이다.

인물선을 하나로 합류시키는데서 중요인물들을 련결시켜주고 그들사이의 투쟁을 촉발시켜주는 인물들이 자기의 기능을 특히 원만히 수행하고있다.

주인공의 딸 수영이만 보아도 그가 설정되었기 때문에 차석빈과 안해, 박우필과 그의 조카 원철이, 지어 탄광지배인까지도 다 말려들어가면서 자기의 성격과 정신상태를 드러내며 투쟁을 벌리게된다.

예술영화 《군당책임비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밝혀주신 인간관계조직에 관한 주체적창작리론을 훌륭히 구현함으로써 인물성격들을 정치사상적관계에서뿐아니라 경제관계와 료리도덕관계에서 특히 혁명동지와 혈육의 관계속에서 정치적의의가 있게 해명하고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그리하여 영화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새로운 자질을 갖추고있는 현시기 당일군들의 빛나는 풍모를 풍부하고 생동하게 보여주고있으며 주체적영화예술의 찬란한 발전모습을 과시하게 되었다.

이 영화가 인간관계조직에서 거둔 자랑스런 성과는 앞으로 주체적문학예술을 더욱 훌륭하게 발전시키는데서 귀중한 창조경험으로 될수 있을것이다.

가사

비날론꽃비단 강산에 수놓아가세

리영백

비날론실을 뿔아 꽃송이 피워볼가
필필이 비단우에 온갖 새 불러볼가
아, 수령님 안겨주신 주체의 비날론
행복의 꽃비단 넘실 폭포쳐쏟아지네

언제나 많고많은 내 나라 자원으로
비단필 짜는 마음 자랑도 끝없어라

아, 수령님 안겨주신 주체의 비날론
락원의 거리마다 꽃으로 만발하네

따사론 해빛 담아 사랑단 수놓구요
은혜론 별빛 담아 은덕단 펼쳐가네
아, 수령님 안겨주신 주체의 비날론
꽃피는 비단나라 세상에 자랑하세

행군길에서

리상식

류봉삼중대는련대의후위에서행군하고있었다.

엿저녁에내린첫눈이깊은골짜기를따라우불구불흘러간오솔길을하얗게덮어놓았다.눈바람탓인지새벽녘이되면서날씨가퍼그나쌀쌀해졌다.귀뿌리가제법알알해왔으나류봉삼은전혀추위를느끼지못했다.

새로갈아입은솜옷이온몸을포근하게감싸주어서인지아니면가슴속에벅차오르는후더운생각탓인지도몰랐다.

류봉삼이뒤에는중대의마지막사람으로신호수검련락병인명길이가따라서고앞에는윤호가걸어갔다.그는해방된서울거리에서부터중대를따라나선신입병사였다.아직애티를벗지못한그에게는부모도없고살발은형제도없다.고향마을이전라도의어느시골이라는말을아득한추억속에간직하고있는윤호에게는고향에대한희미한표상마저도사라졌다,의지가없는고아로사람들의못발길에채우고부대끼면서막돌처럼굴러다니던윤호에게는중대가그대로정든집이고고향이였으며전우들이그의형제나다름없었다.

류봉삼을엄한만형처럼어렵게대하면서도때로는아버지같은옹심깊은정에이끌려가슴속깊이묻어두었던이야기도다털어놓지않고는배기지못하는윤호였다.중대오락회때면의례히동무들을떠들썩하게웃겨놓기가일썩였다.

코맹맹이소리로열치기바이올린수의흥내를내다가는갑자기팔을쩍벌리고빙빙돌아가면서청산류수로한참쥘어내릴때는종로네거리의약장사도왔다울고갈형편이었다.구두닥이요,껌장사요담배장사의흥내까지기발하게재현할때는도저히웃지않고는견딜수가없었다.그래서어떤친구는윤호에게《유쾌한명배우》라는해학적인별명까지달아주었었다.

전사들은그를몹시사랑했고서로도와주려고애썼다.윤호역시그것을기꺼이받아들이곤했다.

그런데오늘은웬일인지입을다문채통말이없었다.무슨생각을하는지머리를수긋하고발

끝만내려다보며걸었다.중대장이그의기분을돌려보려고일부러우스개소리를해봐도들은듯만듯그저묵묵히발걸음만옮겨놓을뿐이었다.

중대는드디어가파로운령길을치달아오르기시작했다.행군속도가떠졌다.

다리를쩍벌리고번갈아끌어올리는윤호의발길이봉삼의눈앞을얼씬얼씬스치였다.류봉삼은윤호의배낭을지그시밀어올리면서입을열었다.

《힘들지?윤호동무.》

《일없습니다.놓으십시오.》

윤호는배낭을한번추슬러올리고는또말없이발걸음을옮겨놓았다.

《이령을넘어가서휴식하자구.》

《힘들지않습니다.》

역시윤호답지않은대답이었다.

사실중대는지금힘겨운행군을하고있었다.

경애하는최고사령관동지의새로운작전적방침을실현하기위하여열세시간안에180리가넘는험한산길을꺾질러서새작전지구에도착해야했다.런일계속되어온행군과전투의피로로해서병사들은지칠대로지쳐있었다.

중대는어제저녁행군도중에새동복을갈아입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적후천리준령을넘어자동차수송편대를파견하시어적후전선부대들에은정깊은사랑의솜동복을보내주시었다.전혀예상할수도,기대할수도없었던일이였다.최고사령관동지께서보내주신군복을받아안은병사들의가슴가슴은한량없는기쁨과행복,숫구치는격정으로하여후덥게젖어들었으며원썩죽멸의불타는일념으로세차게끓어번지였다.

새로운전투명령을받아안고밤늦게야또다시행군길에오른류봉삼중대는단숨에험한령을세개나넘고50리를줄달음쳐와서야첫휴식을하게되였다.

류봉삼은중대를돌아보기위해서대오의앞쪽으로천천히걸어갔다.

긴장을늦춘대원들이눈덮인풀밭우에다리를을길게뻗치고앉아서담배를피우며쉬고있었

다.

눈지방이 퍼렇게 꺼진 병사들의 얼굴에 피로의 빛이 짙게 어리였으나 그들은 무엇이 그리 유쾌한지 노상 입을 다물지 못하고 웃고 떠들었다. 배낭을 걸머진채 비스듬히 기대앉아서 총창을 닦는가하면 한쪽에선 보병삽을 땅바닥에 쓱쓱 문질러 갈고있었다.

소나무가지에 앉았던 눈이 소슬바람에 흩날려 땅우에 내려앉았다. 은가루를 뿌린듯 아침해빛을 받아 무수히 반짝이는 눈가루가 속눈섭을 간지럽히는지 어떤 대원은 얼굴을 잔뜩 찌프리고 입을 반쯤 벌린채 황홀하게 올려다보고있었다. 이것을 윤호가 보았으면 또 한바탕 떠들썩하게 웃겨놓았으련만 그는 보이지 않았다.

류봉삼은 대오를 다 돌아보고 자기 위치로 돌아오고있었다. 그런데 언제 나타났는지 련대장이 뒤집를 지고서서 등을 돌려대고 앉은 한 병사의 어깨너머를 기웃이 넘겨다보고있었다. 그의 한 발뒤에는 낮익은 부관과 신호수인 명길이가 서있었다. 류봉삼은 발길을 재게 돌려 련대장한테로 뛰어갔다.

련대장앞에 앉아 무엇인가 글을 쓰고있는것은 윤호였다. 어찌나 글쓰기에 몰두했는지 그는 자기 뒤에 련대장이 서있는것도, 중대장이 급하게 뛰어가는것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있었다. 련대장이 먼저 류봉삼을 알아보고 마주 다가오면서 팔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중대장도 반사적으로 시계를 보았다. 어느새 벌써 그렇게 됐는지 출발시간이 1분밖에 남지 않았다.

류봉삼은 한초가 새롭게 목적지에 가닿아야 할 중대의 전투임무를 다시한번 상기했다. 전투의 운명이 많은 경우 시간에 의하여 좌우된다. 단 5분, 아니 1분때문에 중요한 작전이 실패할수도 있다. 더구나 오늘 중대는 어떤 일이있든지 제정된 시간에 목적지에 가닿아야 한다.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류봉삼이었다.

눈치빠른 명길이가 어느새 중대장의 생각을 알아맞히고 신호나팔을 입으로 가져갔다. 그러자 련대장이 얼른 손을 들어 그것을 제지시키며 보고하려는 류봉삼이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오른손 둘째손가락을 꺾듯이 펴서 입술우에 눌러대고 조용하라는 암시를 주었다.

류봉삼은 거수경례를 한채 어리둥절해 서있었다.

《조금만 더 쉬었다 갑시다.》

련대장이 봉삼이앞에 바짝 다가서면서 빠른 말로 속삭였다.

《윤호동무가 편지를 쓰고있소.》

《아니, 그 동무에게 편지를 쓸데가 없습니다. 련대장동지.》

《알고있소. 하지만 보시오. 쓰고있단말이요. 편지를...》

련대장의 말뜻을 도저히 이해할수 없었던 류봉삼은 대뜸 눈이 쾅해졌다. 련대장은 뜻있는 웃음을 히죽이 입가에 띠면서 윤호쪽으로 돌아섰다. 중대장도 련대장을 따라 윤호한테로 눈길을 돌리었다. 그때까지도 윤호는 세워짚은 무릎우에 화습장을 받쳐놓고 편지를 쓰느라고 여념이 없었다.

류봉삼은 못견디게 유혹하는 호기심에 끌려 발끝걸음으로 살금살금 다가가서 목을 길게 빼들고 윤호의 어깨너머를 넘겨다보았다. 윤호의 왼쪽 손에 낮익은 종이쪽지가 쥐여져있었다. 그것은 새 군복안주머니에 들어있던것이였다. 그런 쪽지는 윤호에게만이 아니라 봉삼이 자기에게도, 명길이에게도 모든 중대병사들이 새로 갈아입은 군복주머니에 다 들어있었다.

류봉삼은 저도 모르게 얼른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보았다. 손끝에 종이장이 빨갛빨갛 각 만져졌다. 그는 그 쪽지에 씌여진 단 몇자밖에 안되는 글을 동글동글하게 박아쓴 획까지 생생히 기억하고있었다.

《평안북도 정주군 광산면 X리 X반 오금실》

그 이름은 류봉삼이 자기가 입고있는 이 군복을 손수 지어보낸 저 멀리 서해바다가 어느 한너동무의 이름이다.

명길이의 군복주머니에는 벽동군 오북면의 서분녀라는 소박한 어머니의 이름이 적힌 쪽지가 들어있었다. 쪽지들에 씌여진것은 이름도 각이하고 보내온 주소 역시 서로 같지 않았다.

후치령골짜기의 귀에 익은 처녀 이름이 있는가 하면 천마군 립산마을 어머니의 투박한 글씨도 있었다.

전전너머 머나먼 후방의 어머니들과 누나들이 정성껏 누벼보낸 군복에는 자기 이름과 함께 《잘싸워주세요》 하는 간절한 부탁의 말을 적어보내기도 했다.

류봉삼은 쪽지를 펴들고 들여다본 첫순간 그 이름이 어찌면 그리도 따듯하고 친숙하게 안겨오는지 명치끝이 찌르르하게 저러들었다. 하지만

그는 새로 받은 전투임무의 긴박성에 정신이 팔려 한동안 그 이름조차 감감히 잊어버리고말았었다.

윤호의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장옥순동무에게

나는 동무가 지어보낸 군복을 갈아입고 적후의 어려운 행군길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나는 동무를 만나본 일도 없고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순간 어째서인지 동무가 나에게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친누나처럼 생각됩니다.》

류봉삼은 느슨한 미소를 띠고 다음줄을 또 읽어 내려갔다.

《한뼘 한뼘 정성껏 누빈 이 군복의 갈피마다에는 아직 얼굴조차 모르는 옥순동무의 따뜻한 입김과 다심한 정이 깊이깊이 스며있는것이어서 그렇게 느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얼굴을 모릅니다. 아버지의 얼굴도 모릅니다. 어린 오누이를 거칠고 험한 땅에 남겨놓고 일찌기 세상을 떠난 우리 부모, 부모의 사랑과 얼굴조차 모르는 나는 그때 열한살이었던 어린 누나의 잔등에 업혀 동냥젖을 얻어먹으며 자랐습니다.

너무도 철부지였던 나에게 단 하나밖에 없는 누나, 그 누나마져 잃은 뒤에야 그 누나가 나에게서는 얼마나 살뜰하고 귀중했던가 하는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일곱살에 잡히는 어느해 봄이었습니다. 고무공장의 소녀인부로 일하던 누나가 갑자기 앓아누웠습니다. 어느 때 한번 자리에 누울줄 모르던 누나가 며칠째. 열에 떠서 신음소리만 냈습니다.

꼬박 두끼를 굶은채 거지새끼라는 놀림만 받다가 집으로 돌아온 나는 앓는 누나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은커녕 오히려 화풀이를 하고말았습니다.

무릎이 벌겋게 드러나는 토스레웃을 발기발기 찢어버리면서 이제 다시는 밥동냥을 하지 않겠다고 투정질을 했습니다.

이튿날아침 늦게야 잠을 깬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밤 누나는 단 한벌밖에 없는 자기의 치마를 뜯어 밤새도록 내 옷을 지어놓고 영원히 눈을 감고말았던것입니다.

아, 그때 내가 왜 그렇게도 철이 없었던지...

토스레웃이나마 한벌 제대로 해입히지 못하고 이미 오래전에 한많은 세상을 떠나간 나의 누나, 그 누나의 희미한 얼굴이 마치 동무의 얼굴처럼 자꾸만 나의 눈앞에 떠오릅니다.》

편지를 읽어내려가는 류봉삼의 얼굴에 어느덧

웃음이 가셔지고 윤호에 대한 깊은 동정과 연민의 정이 짙게 어리더니 그것이 점점 숭엄한 빛으로 변해갔다.

류봉삼은 지금껏 윤호에 대해서는 자기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너무도 몰랐다. 너무도 피상적으로 윤호를 이해해왔다.

성미가 좀 거친것 같으면서도 의협심이 강하고 남들을 웃기기 좋아하는 그 밝은 웃음의 밑바닥에 이렇듯 서글픈 눈물이 고여있고 따뜻한 정이 소용돌이치고있다는것을 류봉삼은 알지 못하였다.

류봉삼은 저도 모르게 또 편지에 눈길이 끌리었으나 더는 읽지 못하였다.

윤호는 편지를 다 쓰자 그것을 네겹으로 접어서 얼른 봉투안에 집어넣는것이였다.

류봉삼은 돌아서서련대장앞으로 걸어갔다.

《다 썼소?》

《다 썼습니다, 련대장동지.》

《다음번 휴식할 때는 모든 전사들이 다 편지를 쓰도록 조직해보시오. 다들 쓸거요.》

련대장은 힘겨운 전투를 앞두고 확고한 결심이 생겼을 때 항용 그러하듯 눈을 가늘게 쏘프리고 미소어린 아래입술을 잘근잘근 씹으면서 휴식하고있는 전사들을 미더운 눈길로 쪽 훑어보다가 다시 중대장쪽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입을 열었다.

《윤호동무에게도 이제 누나가 있소. 누나를 찾았단말ियो.》

류봉삼은 지금껏 가슴속에서 맴돌고 굶이치던 하나의 생각이 강렬한 빛을 뿜는 번개불마냥 한순간에 확 떠오르는것을 느끼었다.

(아, 그것이였구나.)

류봉삼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이 군복의 갈피갈피에 스며있는 사랑하는 어머니들과 누나들의 따뜻한 정과 간절한 부탁이 조국의 뜨거운 숨결인양 가슴속깊이 후덥게 흘러드는것이였다.

류봉삼은 련대장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힘있게 대답했다.

《조국의 은혜로운 사랑을 한가슴에 받아안은 우리 전사들은 그 조국앞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끝없이 충실할것입니다.》

《됐소. 이제 떠납시다.》

련대장의 확신에 찬 구령에 화답하듯 행군개시를 알리는 신호나팔소리가 산골짜기에 메아리치면서 류랑하게 울려 퍼졌다.

축 복

신리섭

이날 간석지마을의 나지막한 둔덕에 자리잡고 있는 숙영이네 집은 사람들로 북적 끓었다.

문을 활짝 열어젖힌 부엌에서는 성수가 나서 두드려대는 경쾌한 칼도마소리가 그칠줄 몰랐다.

애정에 넘치는 화락한 가정분위기와 한데 어울려 흘러나오는 웃음소리... 마치나 명절날인듯 흥성거렸다.

《어이구 꼭 새머느리 맞는 집같구만.》

뒤마을 순이네 할머니가 오리알이 무드기 담긴 파란 비닐소랭이를 안고 부엌에 들어섰다.

《할머니두, 아들이 군대입대하는 경사가 났는데 새머느리맞는 집에 비기겠나요. 호-》

한 녀인이 던지는 인사말에 또 웃음판이 터졌다. 티없이 맑은 웃음이었다. 뒤결 미루나무우에서 재잘거리던 참새때가 와르르 날아올랐다.

그저 모든게 즐겁기만 했다.

숙영은 사이문너머로 아들을 올려다보았다. 얼마전만 해도 체포래들과 어울려 다닐 때는 철부지로만 보이던것이 저렇듯 군복을 입고 동무들속에 앉아있는게 여간만 어른스럽고 대견스럽지 않아 자석에라도 이끌리듯 눈길이 저절로 미치는것이였다. 아들의 모습을 정찬 눈길로 더듬던 숙영의 낯색은 굳어졌다. 벽에 걸린 시계와 바다가쪽을 번갈아 더듬는 아들의 얼굴에는 초조한 기색이 진하게 어려있기때문이었다. 섬에 건너가있는 아버지를 기다리고있음이 분명했다.

(뭘하느라고 아직 오질 못하누.)

숙영은 노을이 피어오르는 바다가를 내다보았다.

《이 집에선 안나갈려우?》

지나가던 녀인이 문밖에서 소리쳤다.

벌써 다른 집에서는 떠나는 아들을 앞세우고 역으로 나가있었다.

《글쎄 이 애 아버지가 오지 않아서 그러지않수.》

숙영의 타는 눈길이 또다시 바다가를 더듬었다.

《그래요? 우리 집에선 오늘 대휴를 받았던데...

아이, 이제 오시겠지요 뭐.》

《글쎄 오겠다구 어제 기별은 왔던데.》

《그럼 기다리다가 함께 나오세요. 전 그럼》

《어서 먼저 나가보라구.》

그들을 먼저 바래고난 숙영은 행주에 손을 문대며 옷방으로 올라갔다.

《금평아 이러다간 차시간 늦지 않겠니? 먼저 나가자꾸나.》

렐차는 8시 30분에 떠난다. 벌써 8시가 됐던것이다.

금평이는 마지못해 배낭을 집어들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지요.》

아들의 얼굴에는 아버지에게 대한 그리움이 한가득 실리였다. 간절한 빛을 띤 아들의 눈빛을 받은 숙영의 마음은 찢터해졌다.

《아버지가 오시면 역전으로 나오시지 않으리. 걱정 말구 어서 가자.》

순이할머니가 그의 잔등을 떠밀었다.

동네사람들은 동구박까지 따라나오며 금평이를 바래주었다. 그들의 지성은 뜨거웠다. 그중에서도 각별한것은 체포래동무들이였다. 그들은 배낭아구리를 벌리고 여러가지 기념품들을 넣어주었다. 만년필, 수첩, 하모니카, 새하얀 목달개, 당과류... 그것들을 보는 숙영의 눈굽은 젖어들었다. 어느새 저들도 이제는 다 자랐구나 하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뭉클해지는 심정을 어쩔수 없었다.

금평이는 바다쪽에 헛눈을 파느라고 동무들의 지성마저 일일이 간참하지 못했다. 안타까이 아버지를 기다리는 아들의 정상을 보니 숙영은 가슴이 저리였다.

(아직두 오지 않으니 어찌된 일인가?)

숙영은 다시한번 망망한 바다우를 더듬었다. 밀물이 들어온 바다에는 저녁먹이를 찾아 갈매기들만 분주히 날아였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난게 아닌가? 약속까지 하구서두... 안온다는 기별도 없이...)

하지만 숙영은 남편이 꼭 오리라고 믿었다. 그 래 아들에게로 얼굴을 돌리고

《너의 아버진 그렇게 사람의 간을 태우길 잘하느니라. 거 언젠가 소라를 잡아올 때 일이 생 각 나지 않니?》 하며 의미있는 눈길을 보냈다.

언제인가 아들은 학교에서 박제품을 만들게 소라를 잡아다달라고 한적이 있었다. 그러자 남편은 《어디 소라잡이를 할 시간이 있니.》 하고 더 말을 못하게 했다. 그런데 아침에 섬에 건너갔던 남편이 다음날 한밤중에 조롱박만씩한 소라를 세개나 안고 나타났다. 소라를 받아들고 기뻐서 어쩔줄을 모르는 아들의 모양을 흐뭇이 바라보던 남편은 움쭉 일어나 섬으로 건너갔다. 아들을 위해 일부러 건너왔던것이였다.

《어머니두 참.》

아들도 그때 일이 생각키웠던지 두눈에 따뜻한 빛을 담으며 빙그레 웃었다.

서천으로 기운 해가 부드러운 빛발로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져주고있었다. 햇빛을 받은 빨간 령장빛이 랑쪽볼에 물들어 아들의 얼굴은 더 사랑스러웠다.

아들이 웃는것을 본 숙영은 마음이 한결 누그러졌다.

《너의 아버진 한번 한다고 하면 꼭 그대로 하는 성미란다. 네가 군대나가는게 우리 집에선 제일 큰 경사라고 하시면서 어제 영일의 아버지가 기별을 전하지 않던. 아마 이제 차시간이 림박해서야오지 않나 봐라. 빨리 가자.》

남편은 아들에 대한 잔정을 걸으려고 아니라 늘 맘속에 웅심깊이 묻어두고 사는 사람이였다. 지금 금평이를 앞세우고 걸어가는 숙영의 눈앞에는 지나간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금평이가 신체검사에서 합격되어 돌아온 날 섬에서 남편도 마침 물으로 건너왔다. 아들이 군대나가게 됐다는 말을 듣더니 염전에 타고 화약내에 끄슬린 남편의 얼굴은 갑자기 환해졌다.

《군대에 입대한단말이지! 여보 그럼 우리 집도 이젠 후방가족이 되였구려! 응- 허허... 아들은 조국땅을 지키구, 아버지는 아들이 지키는 조국 땅을 넓혀나가구!》

남편의 환희에 넘친 모습을 보니 숙영은 저절로 가슴속에 기쁨이 차올랐다.

《헌데 이 일을 어쩐다? 너하구 조개잡이 가자구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실은 그래서 건너왔더니만. 요즘 사리물 때가 돼서 술섬앞바다에

조개가 많더구나.》

《가자요. 지금...》

워낙 아버지와 같이 고기잡이가는것이라면 오금을 못쓰는 아들인지라 두말없이 따라나섰다.

(당치 않게 조개잡이는 원.)

숙영은 즐겁던 집안이 남편때문에 썰렁해지는 것만 같아 욕이 갔다. 하면서도 혼자 있기가 싫어서 따라나섰다.

그들은 썰물이 진 감탕판으로 나가 조개며 소라등속을 줍기 시작했다.

《이제 아버지가 하는 대발파랑 성공하면 이 여름철안으로 까치섬까지 제방을 문제없이 건너막을수 있다.》

남편은 저녁운무속에 잠긴 까치섬을 가리켰다.

《여기서 조개잡이하는것두 이번이 마지막이겠군요.》

《그렇게 되지, 래년부터는 여기에다 버를 심게 될테니까.》

(조개잡이를 나와선 웬 말장단만 하누.)

숙영은 조개를 캐다말고 어이없이 쳐다보았다.

남편은 조개를 집어들며 말을 계속했다.

《저 까치섬까지만 건너막으면 여기에 두개 군쯤은 새로 생길게다. 네가 제대돼 올 때쯤이면 우리집은 저 까치섬쪽으로 일곱번째 이사를 가게 될게다. 다음엔 저 앞섬을 건너막아야 할테니까.》

남편과 아들은 끝간데없이 펼쳐진 간석지를 오래도록 바라보며 서있었다.

숙영은 남편의 말이 그저 범속하게 들려오지 않았다. 그는 이들이 지난날 고기잡이를 나와서는 거의나 빈손으로 돌아오군하던 까닭을 인제야 깨달았다.

그날밤 남편과 아들은 자리에 누워서도 잠들줄 몰랐다.

《이 아버지는 군대나가는 너에게 무엇을 선물하면 좋을가?》

《괜치않아요. 저- 아버지가 말하시던 계획은 어떻게 됐어요?》

《대발파말이나? 래달 중순까지 끝낼 예정인데...》

《그래요- 그럼 난 못보게 되겠군요?》

아들의 목소리는 어딘가 서운하게 들렸다...

그들의 말은 끝이 있을것 같지 않았다.

처녀적부터 초저녁잠이 많다고 놀림을 받던 숙영의 눈두덩은 천근 쇠돌을 달아맨듯 무겁게 내리드리웠다. 솔곳이 달콤한 잠에 빠져드는 숙영의 귀전에 《약속》, 《축복》이라는 남편의 거울진 말마디가 토막토막 들려오다가 그것마저 가뭇없이 사라지고 깊은 잠에 취하고말았다.

숙영이가 새벽녘에 일어나 보니 방안에는 담배연기가 뽕얇게 떠돌고있었다. 언제 일어났는지 남편과 아들이 또 마주앉아있었다. 숙영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날 분명히 집에 돌아와 굉장히 축하연회라도 차려줄것처럼 《약속》하더니... 이제 역전으로 나오겠지.)

하지만 시간이 박두해올수록 숙영의 가슴에는 점점 초조감이, 불안이 차올랐다. 아들은 맨 나중에야 흠으로 나갔다.

바다가의 봄날씨치고는 보기드문 잠풍하고 밝은 저녁이었다. 역사 앞마당에 있는 아름다리 방울나무잎새는 한창 푸르러가기 시작했는데 참새떼가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옮겨앉으며 분주히 재잘거리고있었다.

역장실에서 붉은테를 두른 모자를 쓴 조역이 한손에 신호기발을 잡아쥐고 흠으로 나왔다. 연기빛운무가 서린 저쪽 언덕너머에 불시에 기적소리가 울렸다. 순간 흠은 마지막 작별을 앞두고 뭉비였다.

《금평아!-》

숙영은 아들의 곁으로 다가섰다.

《아버지가 어떻게 된 일일까? 꼭 오시겠다고 하시더니... 널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게...》

아들은 거뭇하게 보이는 술섬에 초조한 눈길을 보낼뿐 대답이 없다.

숙영은 다시한번 혹시나 하여 마을로 통한 행길을 초조히 바라보았다. 반반한 행길에는 기대를 가져볼만한 비슷한 사람의 그림자조차 볼수 없다.

드디어 렬차는 숙영의 가슴속에 남아있는 실오리같은 마지막 미련을 끊어버리며 광택이 번쩍이는 푸르고 시원한 머리를 높이 든채 거침없이 역구내로 들어섰다. 작별과 상봉, 기쁨과 환희의 맥박으로 구내가 설레었다.

숙영은 군복입은 아들의 모습을 눈으로, 가슴으로 들이키듯 바라보았다. 보고 또 보아도 싫지

않은 아들이었다. 숙영은 언제나 마음속에 아들을 소중히 없어두고 사는 다심한 어머니였다. 하기에 동네사람들은 자식에 대한 숙영의 사랑이 류다르다고 말하곤한다. 옳은 말이다. 하지만 그 사랑속에는 자식에게만이 아닌 남편에 대한 뜨거운 사랑도 깃들어있다는것을 그들은 다는 모른다.

일레로 간석지건설자들은 섬에 건너가 일하가는 한주일에 하루는 휴식을 받고 물으로 건너오거나 물때가 맞을 때에는 아침저녁 집에서 다닌다. 하지만 그의 남편은 섬에서 옷이나 갈아입으려고 건너오는 정도였다.

그러나 숙영에게는 이 모든것이 레상사로 되었다.

20년전 방금 제대해온 남편과 신혼생활을 시작한 숙영이는 도건설사업소에서 맞춤형 직업도 얻게 되었고 남편은 것처럼 소원하던 기계화사업소에 배치받았다. 그들의 생활은 실로 꿀을 쏟아부듯 달콤하였다.

아침마다 함께 가군하던 즐거운 출근길, 어스름 저녁마다 속삭이며 거닐던 수성천 모래사장에서의 산책, 그리고 첫 아기를 가지게 된 숨막히는 신비로움과 기쁨...

해산을 앞둔 며칠전 숙영은 밤늦게 돌아온 남편의 눈길에서 이상한 광택을 보아냈다.

《여보,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지금 우리 나라 땅을 넓혀가는 천지개벽의 웅대한 설계도를 내놓으셨소. ...그런데 아직 둘이 걸렸단말이요. 여보 나는 공병이요. 전선에서 제일 앞장선 공병이란 말이요.

지금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바로 나와 같은 공병들을 간석지건설의 발파장으로 불러주셨단말이요. 알겠소. 바로 조국의 땅을 넓혀가는 돌격대원으로 말이요...》

자랑스럽게 울리는 남편의 목소리를 들이며 숙영이는 남편의 마디굵은 큰손을 꼭 쥐었다.

그리하여 그 다음날 남편은 제대배낭을 다시 짊어지고 떠나갔다.

얼마후 미래에 태어날 첫 아이에게 지어줄 이름을 담은 소금기 배인 편지 한장을 보내온 남편은 아들이 태어났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도 돌아오지 못했었다.

그러나 숙영이는 남편을 나무라지 않았다.

땅 한뼘기 없는 바다가에서 조개로 연명하여오던 남편의 어린시절의 쓰라린 이야기를 너무나도 가슴깊이 받아안은 숙영이었다.

그때부터 남편은 이 섬에서 저 섬으로 옮겨오며 수많은 섬들을 날려버리면서 물과 떨어져 살다싶이 해오고있었다. 하기에 결혼한후 조국의 서북단 끝에서부터 해안선을 따라 여섯번째로 이사를 해왔지만 숙영은 조금도 부담으로 여긴적이 없었다. 오히려 이사집을 꾸릴 때면 큰 경사로 여기였다. 한것은 자기네가 이사를 한다는것은 조국의 땅이 그만큼 넓어지는것을 의미했고 넓어지는 조국땅에는 바로 남편의 흘린 땀도 스며있다고 생각하고있었기때문이다. 그래서인지 물을 떠나있다가 오래간만에 집에 들리곤하는 남편에게 조금치라도 자기가 게을리하여 가정적부담을 주거나 자식교양때문에 마음걱정을 끼칠가보아 모든것에 전심전력을 다해오는 숙영이었다.

허지만 이번만은 남편이 야속스러웠다. 민망스러웠다. 그러나 이것도 일순간의 생각에 불과했다.

섬에서 돌아오면 어린 아들을 목마에 태워주던 남편, 소라를 잡아가지고 한밤중에 건너왔다가 섬으로 되돌아가던 남편, 조개잡이를 나가서는 아들의 마음속에 고향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심어주던 남편... 유년시절, 소년시절, 아들한테 아버지로서 얼마나 너그럽고 부드러웠던가, 그 깊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웅심깊고 다심한 남편이 어찌 지금 군대로 떠나는 아들을 축복해주지 않겠는가. 이제 차가 떠나는 순간에라도 나타나겠지.

《군사복무란 행군으로 시작되고 행군으로 끝난다. 발이 부르르치지 않게 주의하거라.》

《이건 아버지가 사회주의경쟁총화때 탄 만년필이다. 기념으로 받아두어라.》

《.....》

떠나는 사람, 바래우는 사람들사이에 오가는 부탁들은 뜨겁고 절절했다. 더구나 아버지들의 부탁이란 의미심장하면서도 웅심깊은것이였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던 숙영은 아들에게로 돌아섰다.

《금평아, 군대나가면 지휘관들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아버지가 말하지 않던.》

숙영은 늦어나오게 될 남편의 뒤통으로도 무슨

부탁이나마 해주고싶었다.

그러나 숙영은 자기가 한 말이 생각과는 달리 어딘가 모르게 공허하다는것을 느끼였다. 그것은 누구나 할수 있는 범속한 부탁의 말이였다. 보다 군사복무에 꼭 필요한 말을 해주고싶었으나 그 말이 도저히 떠오르지 않았다. 지금 숙영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것은 바로 이것이였다. 그로서는 도저히 대신할수 없는 아버지들만이 할수 있는 부탁을 떠나는 아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지 못하는게 안타까웠다. 역시 아버지가 할 부탁이 따로 있고 어머니가 할 부탁이 따로 있는가보다. 숙영은 아들의 어깨를 다정히 어루쓸었다.

《그리구 음식을 짜게 먹는 버릇을 버려라.》

《알겠어요, 어머니.》

금평은 어머니의 손을 확 그러쥐었다. 하면서도 바다가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아들을 돌아보는 숙영의 눈길에는 형용할수 없는 착잡한 표정이 어리였다. 이 자리에 남편만 있다면 저 애 얼굴이 얼마나 환해질것인가. 그래서 더 기다려지는 남편이였다.

이때였다. 거대한 지각의 변동이 일어난듯 숙영은 딛고 선 발밑이 움썹하는것을 느끼였다. 뒤이어 먼 바다쪽에서 굉장한 소음이 일어났다.

썩- 짜르릉- 짜르릉-

수천년 쌓이었던 땅속의 용암이 한곳으로 터져나간듯 역사건물이 흔들거리고 열차차장들이 썩르릉-썩르릉- 울렸다. 우유빛 안개속에 잠겨있던 술섬이 시꺼먼 연기속에 가리웠는데 먼지구름이 곱들거리며 하늘로 꾸역꾸역 솟구치고 무수히 날아떨어지는듯 돌쪼박들로 주변바다가 죽가마처럼 끓어번지였다.

《발파다! 대발파다!》

《성공이다!》

흙에서 환성이 터져올랐다. 군대에 입대하는 자기 아들을 잊고 술섬을 향해 두팔을 추켜들고 쟁충쟁충 뛰는가 하면 서로 부둥켜안고 돌아가기도 했다. 차장으로 려객들이 웬일인가 하여 열광에 들뜬 사람들과 화약내와 흙먼지에 잠긴 먼 바다의 술섬에 호기심 많은 눈길을 보낸다. 열차전무도, 신호기발을 잡아쥔 조역도...

하지만 숙영은 발파소리에 넋을 잃은듯 한자리에 우두커니 서있었다. 여태까지 품어오던 믿음이 술섬에서 울려오는 발파소리로 하여 물먹은

토담처럼 흩어져버리고 텅빈 가슴속에는 공허가 깃들었다. 저 대발파를 하느라고 오지 못한게 분명했다. 이제는 올 시간조차도 없었다.

(끝내 못오는구나.)

숙영의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왔다. 눈앞이 뿌옇하게 흐려졌다.

(어쩌면 성스러운 초소로 떠나는 아들에게 축복의 말 한마디 못해준단말인가. 발파가 중요하다는거야 누구인들 모르랴. 그렇지만 계획을 보름이나 앞당겨한다는데 역에라도 나와 아들을 축복해주고 건너가서 하면 몇시간 늦었다고 탓할 사람이 어데 있으랴... 내 마음이 이렇게 피로운데 떠나는 저 애의 마음이야 오죽하랴...

당신은... 당신은 너무나 무정하구려...)

숙영은 아들의 얼굴을 볼수가 없었다. 그토록 기다리는 아들한테 아버지는 꼭 온다고 이야기해준 자기가 이제 무슨 말로써 아들의 마음속에 생긴 빈구석을 메꾸어줄수 있단말인가.

《아버지-!》

순간 들려오는 아들의 목멘 부름소리에 숙영이의 원망도 삼시에 달아나버렸다.

(저 애가 얼마나 안타까우면...)

가슴찌르는 생각에 몸을 말기고 숙영은 그만 한 자리에 못박힌듯 서버렸다. 발파소리 여운이 채사라지지 않은 섬을 향해 아들이 군모채양에 손을 울리며 거수경례를 하는 모습을 보았던것이다.

《아버지...이 아들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습니다. 고마와요!》

《아니 축복이라니?》

숙영은 놀란 눈길을 아들에게 보냈다. 아들은 그제서야 돌아섰다. 두눈에 환희의 빛이 번뜩이였다. 순간 숙영이의 뇌리에는 일찍 세월의 흐름속에 자취를 감추었던 해산전에 받았던 편지장속의 글발이 꿈결인듯 안겨왔다.

《...여보, 내가 만일 못가게 되면 나는 첫 발파의 우렁찬 폭음으로 태어나는 우리 보배에게 아버지의 축복을 안겨줄것ियो.》...

(아! 그것이구나.)

숙영은 정신없이 아들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아들이 그토록 애타게 기다린것은 바로 저 대발파소리였단말인가! 섬에서 올라오는 대발파소리가 먼곳에서 아들에게 보내는 남편의 목소리란 말이지! 사랑하는 아들을 초소로 떠나보내는 남편의 웅심깊은 축복이라는것을 숙영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이제까지 원망스럽던 남편에 대한 고까움은 가뭇없이 사라지고 가슴은 불독을 안은듯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라더니... 원 자식두, 진작 그렇다구 말을 할게지...》

숙영은 축축히 젖은 두눈을 습벅이며 아들의 배낭끈을 바로잡아주었다.

《어머니, 아버지의 넓혀가는 땅을 이 아들이 피로써 지키겠다구 아버지에게 꼭 전해주세요!》

《전하지!...전하구말구!》

뿡-렬차는 출발기적을 울린다. 아들은 승강대에 올랐다. 그리고 화약내가 서서히 가셔지는 숲섬을 향해 붉은 오각별이 빛나는 군모를 벗어 흔든다. 렬차는 다시한번 기적을 울리더니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른 녀인들은 렬차를 따라가며 손을 젓지만 숙영은 여전히 한자리에서 움직일줄 몰랐다. (진정 자식을 사랑할줄 안다는건 얼마나 힘든 일인가.)

바로 그것을 일깨워주는듯 섬에서 남편이 울린 대발파의 여운이 아직도 가슴속에서 세차게 메아리치고있었다. 숙영은 저쪽 굽인돌이로 사라져가는 렬차를 바라보며 아들이 옆에 있더라도 한듯 조용히 속삭이였다.

《아들아... 아버지의 축복을 잊지 말어라!》

동트는 수도의 아침에

리성철

동녘에서 빛발쳐온 새벽노을
줄줄이 창가마다 흘러내릴 때
꽃물결이 흐른다 굽이친다
저멀리 림진강 초소를 떠나
평양을 찾아온 병사들을 감싸돌며
거리에 물결치는 행복의 모습들아...

전우들과 함께 떨쳐나선 이 거리
보통날 레사로운 새벽이건만
누구나 명절옷 차림이구나
정든 집 요람의 창가를 떠나
위훈이 기다리는 일터로 굽이치는
아 출근길 출근길

저 걸음 재우치는 어깨넓은 청년은
수도의 창가마다 불빛을 주리
이제 발전소의 화실에 불을 지피리
마주오는 머리흰 로박사는
만풍년의 들판에 새 씨앗을 안겨주려
그쫄한 실험실에 서둘러 들어서리

누구나 행복의 집이 있고
삶의 닳을 내린
위훈의 일터가 있어...
이 땅을 지켜 눈비속에 밤새우며
식을줄 모르던 수호자의 이 심장
터질듯 부푸는구나 벅찬 환희로
기쁨은 온몸을 휘감는구나...

진정 생각 뜨거워라
이 새벽 조용히
거리를 지나치는 우리 수령님
저 출근길을 보시며
기쁘시여 기쁘시여 집무실 창문을 여시리
저 힘찬 걸음들을 살피시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또하루 위대한 작전
을
구상하시리

아, 기쁨에 활랑거리는 가슴
달도 없는 초소의 밤 눈오는 행군길에도
사무치게 그리워 안고살던 이 거리
뛰어들어 어린 꼬마를 열싸안고

함께 가고싶구나 층높은 장대재 소년궁전으로!
저 건설자의 보배손
힘껏 마주잡고싶구나 썩살배긴 이 손으로!

아이적부터 병사시절 오늘까지
꿈결에도 못잊던 평양
그대는 이 새벽 병사의 눈앞에
얼마나 큰 행복상을 펼쳐보이는가

와본적 없어도
이미 정붙은 모란봉아 대동강아
근무의 밤과 낮이 늘어갈수록
수호자의 영예속에 한층 두층 높아가던
락원의 빛발치는 창문들이여...

미처 몰랐구나 초소에선
물결푸른 대동강 휘늘어진 버드나무
살구꽃 곱게 핀 대성산기슭
그것만 정다웁게 그려본 병사...

아니였구나 정녕 아니...
혁명의 재부를 안아일떠세우며
인간의 존엄을 누리에 떨치며
충성을 바쳐가는 시대의 영웅들
저 사람들의 환희찬 꽃물결이
우리 평양의 모습이 아니던가

진정 출근길 출근길은
내가 지키는 조국의 뜨거운 숨결
병사의 숭고한 의무를 더 불태워주며
가슴에 일렁이는 열정의 파도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해빛아
래
피여난
주체시대의 꽃바다가 아닌가

아, 동트는 수도의 아침
오고가는 걸음은 서로 달라도
수령님께 기쁨 드릴 그 한길로 굽이치는
저 뜨거운 마음의 흐름앞에서 수호자는 심장에
새겨안노라
내가 지키는 인민의 소중한 모습들을
목숨바쳐 수호할
어머니조국의 뜨거운 숨결을!

당원의 모습

김완중

우리는 종종 취재과정에 좋은 사람을 만나는 때가 있다.

참으로 그때에 느끼게 되는 희열이 얼마나 큰 것인지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도 다는 모를것이다.

그래서 예술영화 《열네번째 겨울》에서 리당비서가 주인공 유설경을 두고 당일군은 좋은 사람을 찾았을 때가 제일 기쁘다고 자기의 진정을 토로했는가싶다.

물론 나는 당사업을 전문하는 당일군은 아니다. 그러나 당일군이 인간의 정치적생명의 기사이고 작가를 인간정신의 기사라고 할 때 이런 점에서 서로 공통되는바가 없지 않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근로자들은 사회주의건설의 어떤 초소에서 무엇을 하든지 개인의 명예나 보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당과 혁명의 이익, 사회와 인민의 이익을 위하여 누가 보건말건 자신의 모든 것을 다바쳐 꾸준히 일하고있으며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혁명적열의와 창조적극성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습니다.》

나는 좋은 사람을 찾았을 때 느끼는 기쁨을 강한 충격속에 체험한적이 있다.

그것은 얼마전에 어느 한 제철소에 갔을 때였다.

나는 그곳 강철직장에서 일하고있는 오랜 용해공아바이를 취재대상자로 소개 받았다.

나는 그 어데서나 흔히 볼수있는 평범한 노동자인 그를 만날수 있었다.

나는 짧은 쇠물을 지켜보며 한생을 바쳐가는 그의 이글거리는 눈빛이며 걸음걸이, 행동거지와 말투 그 하나하나를 빠짐없이 관찰하면서 며칠 동안 용해장을 떠나지 않았다. 물론 그것만으로는 쇠물을 다루는 사람의 뜨거운 심장과 마음속 지향을 알기에 거리가 멀었다.

원래 말수더구가 적은 그는 묻는 말이나 겨우 대답하는 성미였다. 그렇다고 하여 조금하게 취재를 서둘러 수첩을 펼쳐든다고 하여 일이 원만하게 될것은 아니었다.

그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도 스스로 하고 집안이 야기까지 마음 터놓고 다 쏟아놓을수 있게 나는 그와 친숙해지려고 하였다.

나는 하루 생활을 그와 거의 같이 하였다.

그와 벌써 며칠간 같이 생활하면서도 나는 그가 어느 시간에 출근을 하는지 전혀 알수 없었다.

나는 다음날부터 좀 더 아침 일찌기 출근했다. 하지만 그는 그날도 남먼저 용해장에 나와 일손을 잡고있었다.

다음날 나는 이른새벽에 공장정문안에 들어섰다.

날이 푸름푸름 밝아올무렵, 공장구내는 조용했다. 다만 여기저기서 쇠가 부딪치는 소리, 쇠물납비를 끌고 오가는 구내기관차의 바퀴소리, 배관으로 증기흐르는 소리가 들려올뿐이었다.

시원하게 넓게 트인 구내길로 천천히 걸어가는 나의 마음은 더없이 상쾌했다.

그런데 나는 구내길을 가로질러 건너간 공중배관아래에 서있는 웬 사람의 그림자를 보고 놀랐다.

공중에 걸려있는 배관에 눈길을 떼지 않고 한참이나 서서 지켜보던 그 사람은 손에 든 작은 수첩에 무엇인가 열심히 적어넣는것이였다. 책임성 높은 배관관리공이겠거니 생각하며 나는 그결으로 무심히 지나가려 했다.

인기척을 감촉했는지 그도 고개를 돌려보는 순간 나는 깜짝 놀랐다.

그는 다름아닌 강철직장의 오랜 용해공아바이였던것이다.

그도 나를 알아보고 반겼다.

기쁨에 젖어 내가 먼저 인사를 했다.

《밤새 안녕하십니까? ... 헌데 그건 뭘 적습니까? 》

한참만에야 그는 피염피염 말했다

《예-... 저길 보시우! ... 증기가 약간씩 새나오는게 알리지요.》

나는 그가 손을 들어 가리키는곳을 올려다보았다.

한참동안 자세히 봐서야 배관의 용접 이음짚사

이로 알릴듯말듯 증기가 새어나오는것이 보였다.

나는 가슴이 뭉클해짐을 느꼈다.

용해장에 있는 설비도 아닌데 그는 공장의 모든설비들을 얼마나 주인다운 눈으로 보고있는가.

얼핏 보기에는 그 누구도 스쳐지나칠수 있는것이다. 아니 젊은이들의 눈에도 잘 알리지 않는 미세한것을 찾아낸다는것은 밝은 마음의 눈을 지니지 않고서는 해내기 어려운것이였다.

이렇듯 그는 나의 인상속에 공장설비를 주인답게 돌보는 알뜰한 살림꾼으로 찍혀졌다.

그후 며칠이 지났다. 그동안에 용해공아바이와 퍼그나 친숙해진 나는 압연직장에서 일한다는 그의 아들과도 통성하게 되였다.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한 어느날이였다. 저녁 무렵부터 부슬부슬 내리던 비는 이튿날 아침까지도 그칠줄 몰랐다.

나는 출근하자마자 습관적으로 아바이부터 찾아보았다. 그러나 이 아침만은 종시 그를 볼수 없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여기저기 찾으러다니던 나는 용해장입구에서 아바이의 아들을 만날수 있었다. 그의 옷은 비에 후줄근히 젖어있었다. 나는 무작정 그를 이끌고 불길이 길길이 뛰고있는 로앞으로 갔다.

그에게 아버질 못봤는가고 물으니 그는 대답대신 빙긋 웃고마는것이였다.

잠시후 그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아버진 어제밤에 비를 맞고 퇴근하시다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대신 아침일과를 집행하게 됐지요.》

《아침 일과라니?》

나는 다우쳐 물었다.

《그건...》

그는 다시 말을 이을듯하더니 입을 다무는것이였다.

거기에는 확실히 그 무슨 사연이 있는듯했다. 나는 그것을 알고싶었다.

몇번이고 갑자르기만 하면서 말을 하기가 딱해 하던 압연공청년은 한참만에야 마지못해 그 《비밀》을 이야기하는것이였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30여년전 조국해방전쟁시기로 거슬러올라갔다.

미제침략자들의 야수적인 폭격이 날로 심해

지자 아바이가 속한 당세포에서는 대형전동기를 비롯한 공장의 중요설비들을 특별히 보호할 대책을 토의하는 세포총회를 열었다고 한다.

바로 이 회의에서 아바이는 공장안의 여러곳에 안전하게 모아둔 설비와 자재들이 이상 없는가 매일아침 한번씩 돌아본 분공을 받았던것이다.

그때로부터 그는 오늘까지 30여년간을 빠짐없이 남먼저 출근하여 공장구내의 설비들을 돌아보는것부터 하루일과를 시작하였다는것이다.

아바이의 아들은 오늘날 해도 그를 대신하여 불가피하게 이 일과를 집행하게 된것이였다.

그는 이 사실이 자기 아버지와 자신밖에 모르는일이니 《절대비밀》을 지켜달라는 신신당부를 하고 자리를 떴다.

나는 한참동안 그자리에 못박힌듯 굳어진채 움직일줄 몰랐다.

가슴속에서 이루 헤아릴수 없는 걱정이 세차게 휘몰아쳤다. 마치 로안에서 길길이 굽구쳐오르며 사품치는 쇠물을 그대로 안은듯 나의 마음은 뜨거워졌다.

이날 아침만 해도 용해공아바이는 온몸이 열에 뜨고 기침이 심해 자신이 일어설수 없게 되자 아들을 시켜 밤새 원료장에 파철이 얼마나 들어왔고 슬라그무지는 다 처리되었는지, 1호로에 고장났던 장입기중기는 제대로 돌아가는지 돌아보고 알려달라고 했다는것이였다.

이때부터 나는 용해공아바이가 다만 알뜰한 살림꾼으로서만이 아니라 뜨거운 심장을 지닌 당원의 모습으로 눈앞에 안겨왔다.

전쟁이 끝난지도 어언 30년이 된 오늘까지 그 준엄한 나날에 분공을 준 세포위원장은 미제원수놈들의 폭격속에서 쇠물을 끓이다가 장렬한 최후를 마쳤으며 그때 당세포총회에 참가했던 당원들도 여러곳으로 소환되어 지금 그 누구도 이 사실을 알수 없다.

그러나 그는 오늘도 티없이 깨끗한 당원의 양심으로 자기의 분공을 영원한 고정분공으로 여기고 성실하게 수행하고있는것이다.

정녕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끝없이 충직한 전사-이런 당원들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당은 위력한것이며 이들이 끓여내는 쇠물빛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리라.

인간내면세계의 탐구와 몇가지 묘사문제

장정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의 문화예술작품은 어떤 생활을 반영하든지 반드시 사람들의 혁명적의식이 자라나는 과정, 정신세계의 변화발전과정을 깊이있게 그려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적문예리론에는 인간성격창조에 관한 독창적인 리론들, 특히 인간의 내면세계를 진실하게 그릴 데 대한 리론들과 그 구현에서 나서는 제반원칙들과 방도문제들이 전면적으로 심오하게 밝혀져 있다.

인간의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형상할데 대한 주체적문예리론의 제반요구들을 실지 창작에 옮겨 구현해나가는 과정에 우리 문학은 지난 시기 상당한 전진을 가져왔으며 적지 않은 사상예술적성과들을 이룩하였다.

우리는 그러한 성과들을 (비록 그것이 일부 측면에서는 아직 짝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도) 귀중히 여기고 제때에 일반화함으로써 더욱 공고한것으로되게 하여야 한다.

1

남의것을 모방하려 하지 않고 실무적요구에 따라 작품을 쓰려 하지 않으며 자기의 작품을 통하여 하나의 새로운 세계를 펼쳐놓으려는 의욕에 충만한 작가는 언제나 이렇게 생각한다.

…생활에서 내가 본것, 알고있는것 내가 생각했고 내가 느꼈고 내가 체험했고 분노했고 사랑했던 모든것을 나혼자만 알고있는것은 싫다.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그들이 나와 함께 생각하고 나와 같은 감정을 가지고 느끼고 말하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되게 하고싶다. 이 생각, 이것이 곧 작가의 개성에 바탕을 두고있는 창작적흥분이며 충동이다.

먼 백두밀림에서 나라의 대들보를 마련하고있는 벌목공들, 천길막장에서 석탄을 캐내고있는 탄부들, 그들의 가슴속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충성심이 어떻게 불타고있는가를 그들은 쓰고싶어한다. 용광로의 쇠물빛은 왜 그리도 아름답고 원해어장에서 맞는 아침해는 어찌하여 그처럼 장쾌한지 이 생활의 온갖 사연들을 적어가는것은 그들에게 차례진 가장 큰 행복이며 기쁨이다.

시대적 자각, 흥분, 충동 이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만큼 작품의 성공은 더욱 확실한것으로 된

다. 소설은 사색과 탐구로 하여 축적된 생활적내용들과 그로부터 환기된 강렬한 흥분상태의 필연적산물이며 정열, 멈춰세울수 없는 정열의 거대한 창조물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누가-당신이 만약 소설을 구상했으나 그것을 쓰지 않을수도 있다면 그것을 쓰지 마시오. … 라고 말했다고 하면 그것은 정당하다.

왜냐 하면 쓰지 않을수도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큰 사상을 안은 작가는 쓰지 않을수 없다. 또 그렇게 씌여진 작품이라야 성공을 기대할수 있는것이다.

쓰지 않고는 도무지 참을수 없는 그러한 강한 충동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안되는것이다.

그것은 대체로 진실한것, 아름다운것에 대하여 자기가 알고있는 감정을 누구에게나 꼭 말하고 싶다는, 말해야 한다는 그러한 인간의 감정에서 출발된 충동인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진심을 쓰는 작가는 언제나 재능있는 작가로 되는것이다.

진실성, 그것은 문학적형상 전반의 질을 좌우한다.

또 그것은 새로운 종자의 발견과 동반될 때 가장 큰 견인력을 나타내게 된다.

중편소설 《병사의 고향》이 그처럼 작가자신을 흥분시키고 그처럼 독자들을 감동케 한것은 이 때문이다.

들판, 아지랑이가 피어오른다. 대지는 말없이 누워있다. 물어보자. 병사의 고향은 어딘가. 왜 다른곳이 아니라 바로 그곳이 그의 고향으로 되는가. 누구나 그리고 어느때든지 자기의 고향에 대하여 떳떳하게 말할수 있으며 자랑할수 있는가.

작품은 이렇게 제기하고있다. 그리고는 그에 대해-병사의 고향, 그것은 나서자란 땅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의 땀과 로력이 스며있고 땀수 없는 인연으로 맺어진 잇을수 없는 사람들이 살고있으며 소원하는 래일의 모든것이 꿈으로 간직되어있는 땅, 그래서 총알이 비발치는 속에서도 그것을 지켜 피와 목숨을 서슴없이 바칠수 있는 바로 그러한곳이 병사의 참된 고향이라고 대답한다.

이것은 오래동안 생활체험과정에 현실속에서 체득하게 된 생활의 진리이며 작가의 철학적인 주장이다. 그것은 생활에서 찾은것이나 거기에는 작가자신의 몫이 많다.

자기자신을 솔직하게 쓸줄 아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신을 기만하는 거기에서는 필연코 형상의 빈약성이 따르기 마련이며 독자들의 의혹과 불만이 야기되지 않을수 없다.

내부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어떤 동기로 탄생되는 소설들 말하자면 빌려온것, 효과를 노린것, 흥미본위로 된것, 또는 《박식》에 대한 자랑, 조화로우나 넓이 없으며 따라서 독자들을 《감탄》케 하면서도 그들의 심장까지는 움직이지 못하는 소설들을 써낼 필요가 있겠는가.

산 인간을 그려야 한다. 그런데 만약 작가가 조종하는 꼭두각시에 불과한 그런 인물이 작품세계안에 뛰어들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작품의 주인공들은 말도 하고 웃을줄도 알며 너그럽기도하고 원칙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느낄줄은 모른다. 그런데 문제는 이 느낄줄을 모르는 거기에 있는것이다. 작가 자신이 자기 주인공의 생활로 살면서 형상을 그 내부적감촉으로부터 묘사할때 비로소 주인공은 자기의 성격에 의하여 말하고 자기의 감정에 의하여 느끼는 그런 산 인간으로 그려질수 있다.

2

정열의 열매는 정열의 태양아래 자래워지고 무르익는법이다.

중편소설 《병사의 고향》은 작가의 정열의 기록이다.

작가는 소설을 통하여 자기만이 알고싶지 않은 탄부들과 탄광마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세상에 남기고싶었다.

그러한 지향은 소설의 갈피마다에 어려있다.

작가는 이 소설을 읽는 어느 알지 못할 독자에게 이렇게 말한다.

《먼 후날에라도 당신이 만약 안덕탄광에 오는 기회가 생기면 이 룡천갱지름길을 꼭 걸어보라, 멀지 않은 길이 얼마나 우물구불하고 복잡한가를 쉬 알게 될것이다. 그러나 하찮게 여겨지는 그 지름길이 한평생 이 길을 걸어다니는 룡천갱탄부들의 꼭절많은 운명과 련결되어 있음을 부디 잊지 말기를 바란다.》

나라에서 통근버스와 렬차를 보내준 이후에도 웬일인지 탄부들은 이 지름길을 좀처럼 버리려 하지않았다. 무엇때문일까. 물론 개중에는 차시간을 놓치거나 앞당겨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래서만도 아니였다.

《어둠속에서 땀에 뜨고 비에 젖으며 힘겹게 일한 그들은 자기가 흘린 땀으로 더워지고 기쁨져가는 아름다운 조국의 대지를 마음껏 걷고싶어하는것이다. 조국의 생신한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시고싶고 푸른 하늘을 한껏 쳐다보고싶어하는것이다. 그때문에 하루일을 마치고 걸어가는 그들

에게는 밤하늘의 별도 졸졸거리는 논두렁의 물소리도 무심치않다.

꼭절많은 운명들은 걸어가며 늘 무엇인가 조용히 사색하고싶어했던것이다. 기쁨과 피로움을 안고 때로는 웃으며 때로는 울며 탄부들은 이 길을 걸었다.》

이것은 하나의 시다. 그것은 순간에 떠오른 시가 아니라 탄광의 오랜 력사와 더불어 끓어지고 이어지며 혹은 구부러지기도 하고 퍼지기도 하면서 오늘까지 걸어온 룡천갱사람들의 생활의 지름길에 대한 시다. 과연 룡천갱탄부가 되어보지 않고 이렇게 쓸수 있겠는가. 작가는 소설에서 탄부들의 심정을 절절히 대변한 그들자신의 시를 그토록 읊고싶었던것이다.

그것은 작가로 하여금 도저히 무관심할수 없었던 사연들, 그들이 무엇을 갈망했고 무엇을 사랑했으며 무엇을 바랬는가. 무엇을 위해서 그들이 갱속에서 한생을 바치려고 했고 무엇을 그토록 기뻐했는가. 이것을 사람들이 몰라서는 안된다는 투철한 자각으로부터 출발하고있다.

때문에 소설에는 탄부들과 그들의 생활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동정심, 그들처럼 애타하고 그들처럼 고민하고 사랑하고 기뻐할줄 아는 작가의 뜨거운 숨결이 스며있다.

소설이 우리를 주목케 하는것은 인간관계의 췌임새나 이야기줄거리의 흥미있는 진전과 같은데 있는것이 아니다. 사실상 《병사의 고향》은 구성미로써 독자들을 경탄케 하는것은 극히 적다. 반면에 다른 측면이 그것을 보충해주고있다.

이 소설에서 특징적인것은 상대적이긴 하나 그것이 줄거리문학이 아니라 성격과 감정의 문학이라는 거기에 있다. 작중인물들과 교락을 같이 하고 그들과 시련을 같이 이겨나가면서 작가는 온넛으로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을 옹호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립장에 항상 서있다. 때문에 소설에서는 무엇보다 그들의 정신, 그들의 내면세계의 탐구에 각별한 주목이 돌려지고있다.

3

예술의 주요목적은 인간정신의 진실을 말해주는데 있다. 인간미는 외형이 아니라 그 정신에 있는것이다. 때문에 내면세계의 미와 결합되지 못한 인물들의 외모는 독자들의 미감에 만족을 주지 못한다.

중요한것은 사상의식, 정신적아름다움을 밝혀내는데 있다.

중편소설 《병사의 고향》의 주인공 태삼이는 작가가 묘사하고있는것처럼 미남자는 아니다. 그는 얼굴이 꺼멥고 키도 그닥 크지 않으며 상등병령장을 단 제대군인이다. 그러나 그는 남달리 룡

부하고 심오한 정신생활을 소유하고있다.

당의 요구, 당의 의도를 자기의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하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해나가는 그의 드팀없는 의지는 사람들의 심장을 움직인다.

독자들이 주인공에게 공감을 가지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그의 성격형상의 이 면에 있다.

인간심리의 새로운 면은 그의 성격의 개성적인 측면과 많이 연결되어있다. 남다른 운명과 곡절의 길에 놓인 인간의 심리는 그만큼 복잡하고 특이한 측면을 가진다. 그 인물의 체형, 생활을 잘 그리는것이 중요하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인물들의 내면세계를 드러낼수 있는 생활구면들을 잘 조성해야 하는것이다.

태삼은 평범하나 그가 간직한 지향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열렬하고 완강한 인간이다.

그는 남이 할수 없다고 하는것은 할수 있다고 생각하며 남이 가지 못한다고 하는곳은 기어이가내고야만다. 그처럼 그는 그것이 당의 요구라면 자기의 반대자들을 물리치고 현실성과 가능성은 같은 개념이라고 주장하여나서는것이다. 여기에 심리묘사의 깊이를 가능케 한 그의 성격의 개성적인 면이 있다.

작가는 그러한 개성을 어느 한 성격의 개별적인 발현으로만 보여준것이 아니라 일관한 성격적 특징으로써 각이한 계기와 정황들에서 강조하고 있다.

어린시절 광풍이 일고 우뢰우는 밤이면 우정되마루에 나가누워 자기의 용감성을 시위해보던 태삼이었다.

남이 끌어내온 종합굴진기를 그는 막장으로 끌고들어갔으며 남이 못한다는 제대군인통장을 그는 그처럼 잘 리용했으며 막장에서 남들은 생각도 못하는 씨름판을 벌리는가 하면 그리도 오랜 기간 짝사랑으로 가슴태우던 장미에게 조금도 내색을 하지 않던 그가 이번에는 수많은 탄부들이 모인 중앙원회의연단에서 《사랑을 고백》하는것이다.

그렇게 그는 고향 아닌 고향을 병사의 고향으로 선포하기도 한다.

이러한 성격의 소유자는 반드시 내면생활에서 남다른 특징들을 가져오지 않을수 없다.

4

우리는 소설의 매 장과 절들에서 주인공의 내면생활의 모태감과 그 심리적변화과정의 착취들을 력력히 볼수 있다.

그는 생활의 구체적인 정황들과 계기들마다에 자기 마음의 고충들과 흔적들을 뚜렷이 남기면서 간고분투하는, 그러면서도 보람차고 희열을 느

끼는 그러한 삶의 길을 걸어갔다. 고향을 두고 한생을, 아니 대를 물려가며 탄광에 산다는것이 또 그러한 결심을 가진다는것이 간단한 문제겠는가.

태삼이가 제대되어 처음으로 탄광에 왔을 때의 그의 감정상태는 밝고 명랑했다. 그것은 연도환영의 꽃보라, 나팔소리, 북소리, 따듯한 미소와 정다운 인사말들, 그것들로 하여 떠있던 기분과 신생대의 《원시림》에서 받은 유쾌한 호기심 등과 같은 인상들의 작용에 기인하고있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것은 제대되는 길로 당에서 부르는 새 초소, 탄광에 왔다는 자부심, 그로부터 오는 기쁨과 긍지때문이었다.

인간의 심리는 고정불변하지 않다. 그것은 부단한 운동과 모순, 변화와 굴곡속에 존재한다.

밝은가하면 어둡기도 하며 그런가하면 또 그 반대로도 되는것이다. 그것은 인간심리의 특징이기도하다.

고향을 떠나는 렬차칸에서의 태삼의 기분은 울적하다. 그것은 무덤고 침침한 그 차창밖의 밤하늘과도 같이 좀처럼 가시지지 않는것이였다. 한생의 결심앞에서 어찌 인간의 심리가 단순할수 있으랴.

리해할수 없는 어머니에 대한 불만, 덕훈이가 탄부이기때문에 딸을 줄수 없다고 하는 한 녀인에 대한 말없는 항변, 고향에 대하여 뿔뿔이 말 못하는 자신에 대한 번민... 번거로운 생각들이 그를 괴롭힌다.

렬차칸에서 만난 사람들, 그중에서도 신희려행을 하는 한 젊은이의 류달리 회고 가는 손이 그의 비위를 거슬렸다. (저런 손을 가지고도 동발을 세울수 있을까?)

문득 떠오르는 성보아바이의 크고 투박한 손. 그다음은 그 젊은이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이 그를 격분케 한다. 누가 국가물자를 가지고 협잡을 했다는건가. 탄광이 그런 너절한 인간이나 가는 곳인가? 태삼의 격한 목소리, 아이가 깨여 운다. 차칸은 더 비좁고 무더워진것만 같다. 창문을 연다. 비가 내릴듯 차고 시원한 기운이 쓸어든다. 허나 태삼의 마음은 그냥 답답하다. 로인의 이야기는 점점 그의 부아를 돋군다. (젠장, 이제 그만 하지.)

소설의 이러한 장면들은 결보기에 정황묘사처럼 되어있으나 실은 너무도 심오하게 파고들어간 태삼의 심리에 대한 추구이며 그 복잡한 단편들이다.

5

지금까지 단순하던 생활이 왜 이렇게 복잡해졌는가. 신념은 시련을 겪기 시작했다. 생활은 그의

견해를 부정하는 위력한 론거들을 날날이 보여 주고있었다. 그것을 부인할수 없는 태삼이었으며 그 때문에 마음 또한 것처럼 괴로왔던 태삼이었다.

태삼의 정신적갱신은 장미의 일로 마음을 쓰게 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장미, 그는 당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아글타글 애쓰는, 갱속에 피어난 한 떨기 꽃이었다.

굴착기절삭두를 손수레에 싣고가던 연약한 처녀의 모습, 《한번 같이 해보지 않겠어요?》 하던 그 목소리, 그것들은 그후 오래동안 그의 눈에 보였고 그의 귀에 쟁쟁이 울렸다. 그것은 그의 힘이었고 기쁨이었다. 그때로부터 그는 어렵고 아름다운일을 맡아해나갔으나 시종 즐겁고 행복한 감정을 체험하였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 의지하고 고무하면서 온 마음을 다 기울여 당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충성의 한길을 함께 걸었다. 그는 태삼의 새고향의 상징이기도 하였다.

소설의 마감에 종업원회의에서 한 태삼의 토론은 그래서 더욱 의미가 깊다.

《휴가갔다올 때 사람들이 고향이 어디냐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을 못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저에게는 그때 고향이 없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조용하나 무게가 있었다. 고향에 갔을 때 어머니가 아들을 따라오기 주저하던 원인에 대해서 이 땅을 사랑한다고 말할수 없었던 자기의 고충과 이 땅에 대한 사랑의 권리를 지닌 갱장의 《행복》에 대해서 그리고 어찌하여 이제는 이땅을 자기의 고향이라고 긍지높이 말할수 있는가에 대하여 태삼은 이야기하였다.

태삼의 토론, 그것은 제대후 그의 탄광생활의 총화인 동시에 인생의 가치와 보람에 대하여 그가 도달한 인식의 총화이기도 하다. 또한 그것은 사람들앞에서 참된 고향에 대하여 긍지높이 말할수 없었던 그가 고향에 대하여 몇몇이 자랑할수 있게되기까지의 자기의 인간적가치의 새로운 평가에 대한 총화이기도 한것이다.

비로소 그는 자기가 이 탄광의 주인이라고 말할수 있게 되었으며 이땅, 이 고향의 아들이라고 생각할수 있게 되었으며 이 땅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당당하게 말할수 있게 된것이였다.

그는 행복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이 땅에서 모든 리상을 성취하고 거기에서 차례지는 영예로 하여 행복한것은 아니였다. 그는 말한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저는 오늘 물이 차오르는 막장으로 뛰어들면서 내가 바라던 이 땅을 위해 저의 생명을 서슴없이 바칠수 있다는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이 땅에 대한 사람때문에 자기의 생명도 바칠수 있다는것을 느꼈다고 하는 여기에 그가

느끼는 행복의 참된 의미가 있는것이다.

그는 아직은 모든것이 갖추어지지 못했고 아직은 탄광에 할일이 많고 생활이 그래서 또한 어렵고 벅찬것이 분명한 그 땅에 자기가 한생의 로력과 땀과 정열과 사랑을 바쳐갈수 있다고 생각했고 또 그러한 엄숙한 맹세를 스스로 다질수 있다고 느낀 자신을 의식했기때문에 행복한것이였다.

태삼은 눈물 없는 인간, 의지의 인간이다. 그러나 그는 이 아름다운 행복으로 하여 삶의 희열에 충만된 뜨거운 눈물을 사실상 이때 마음속으로 흘리고 있었던것이다.

그 눈물은 가장 고귀하고 깨끗한 눈물, 삶의 가치와 의의를 진정으로 체득한 사람만이 흘릴수 있는 그런 눈물이었다.

6

매 인간의 내부에서는 항상 지향에 있어서 서로 상반되는 두개의 큰 심리적현상들이 부단히 투쟁하면서 운동 및 변화하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사람은 혁명을 해나가는 과정에 일시적으로 주저하거나 동요할수도 있으며 그러다가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 혁명을 벌려나가면서 더욱 튼튼히 단련되는것이다.

유쾌한것과 불쾌한것, 명랑한것과 우울한것, 격렬한것과 온화한것, 기쁨과 슬픔, 사랑과 증오, 긍정과 부정, 지지와 반대, 아는것과 모르는것 등의 심리현상들의 부단한 교체와 모순, 변화가 사람들의 내부에는 있다.

이러한 기분, 정서, 견해, 태도들은 투쟁과정에서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압도하고 우세를 차지함으로써 지배적인 심리현상으로 전환될수 있다.

그러나 심리, 감정의 상태는 고정불변하지 않다. 일정한 정서 및 기분상태가 한 인간의 온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는 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원인에 의하여 가뭇없이 종적을 감춰버리는 때도 있으며 동일한 시간에 같이 마음한구석씩 차지하는 경우도 있게 된다. 이때 인간은 흔히 갈림길에서 모대기게 되는 그런 심리의 복잡한 내적체험과정을 겪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며 불안정하다. 조만간 립장이 명백해지는 때가 온다.

혹은 긍정이 우세하는가 하면 부정이 우세하기도 하며 지지하는가 하면 반대하기도 한다.

대체로 의지가 강한 사람에게는 결심을 채택하는 과정이 큰 변화없이 이루어지며 일단 채택된 결심도 비교적 확고하고 드림이 없다. 그러나 나약한 인간은 상대적으로 난관앞에서 동요가 심하다. 사랑의 감정에 포로가 된 처녀의 심리는 보통 때보다 변화가 많다.

(어느 옷이 어울릴까?)

느닷없이 매일 갱에 입고나갈 옷근심이 불쑥 생겼다. 그는 옷장문을 열고 하늘빛 양복을 벗겨 들자 봉긋이 나온 앞가슴에 대고 거울앞에 서보았다. 색깔이 곱고 목깃을 쪽 넓힌게 시원스럽고 활달한 몸매에 어울렸다. 벌써 못사람들의 찬탄의 목소리가 들리고 부러움에 겨운 처녀들의 눈길이 보이는듯싶었다.

거울안에서 <장미>가 내다보며 생긋이 웃었다. 장미의 가슴에 기쁨이 동동 떠올랐다. 하지만 그는 거울안에서 내다보는 <장미>한테 입술을 쪽 내밀어보이고 들었던 옷을 옷장안에 되걸었다. 그보다 좀 침침하고 무거워보이는 밤색 양복을 벗겼다. 어쩐지 자기를 멀리하는 태삼이앞에 전 없이 머리를 하고 화려한 차림으로 나서고싶지 않은 알곳은 심사가 속에서 꼬물거린것이다.

그러나 매일이 것처럼 바라던 제대군인소대가 입궐하는 뜻깊은 날이라는 생각이 들자 그는 다시 하늘빛 양복을 꺼내들고 거울앞에 섰다.

이것은 장미가 처한것과 같은 그러한 시기에 그러한 환경에 놓인 처녀들이 거의 모두가 체험하였고 또 체험할수 있는 심리이며 감정이다.

장미는 태삼이에게 멋진 옷차림을 보여주고싶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자존심에 의하여 부정당하였다. 그러나 매일이 제대군인소대가 입궐하는 날이라는 더 큰 사회적의무가 그 자존심을 눌러버렸다.

7

심리, 감정은 서로 엇바뀌기도 하지만 때로는 두 모순된 심리가 동시에 존재하면서 표현되기도 한다.

고향에서 돌아온 다음날 역에 나갔던 태삼은 뜻밖에도 장미와 맞닥든다. 장미는 태삼이가 탄 팽을 뜨려는줄 알고 쫓아나갔던것이다. 그가 덕훈이 마중나왔다는것을 안 장미는 덕훈이도 오고 가고 물었는데 어쩐지 성이 나했다. 《오지 았구! ...》 태삼의 대답 역시 살뜰한 맛이 없다. (참, 무슨 사람이 저래?) 장미는 태삼의 대답이 기쁘면서도 민망스럽다.

소설은 이 장면에서 장미의 심리와 감정, 비길데없는 마음속 환희를 아주 섬세하게 드러내었다.

장미가 성을 낸것은 공연한짓이었다. 특별히 누가 자기를 나쁘게 대한것도 없으며 도대체 객관에는 성낼 일이 하등 없었기때문이다. 그것은 태삼이가 떠나는줄로 알고 그토록 마음쓴 자신이 못마땅하여 자기자신에게 스스로 화를 낸데 불과하였다. 또한 거기에는 태삼이에게 공손한 마음을 보이고싶지 않은 일종의 자존심도 작용하

였다.

《오지 았구》하는 태삼의 대답을 들으며 장미는 한편 기쁘고 한편 민망스러웠다. 그가 기뻐던것은 덕훈이까지 울뿐아니라 중요하게는 태삼이가 가지않는다는것을 확실히 알았기때문이었으며 그가 민망스러웠던것은 그토록 마음조이며 쫓아온 자신의 존재에는 아랑곳없이 그의 대답이 통명스럽고 어딘가 인정머리가 없이 들렸기때문이다. 기쁘면서도 민망스러운것, 이것이 그때 주인공 장미의 마음속에 있었던 복잡하고 미묘한 심리의 모순된 두 측면이다.

장미는 일관하게 그런 모순된 감정을 안고 태삼이를 대하였다. 그는 자기의 마음이 자신도 모르게 태삼에게로 끌리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것은 분명 사랑이었다. 그러나 장미는 매번 그것을 부정하였다. 흥 제가 뭐게? ... 하고 그는 근거없이 엇서나갔고 성을 내곤하였다.

그러나 남몰래 간직한 사랑의 감정은 자기도 모르는 새에 커가고있었다. 말하자면 리성은 그것이 아니라고 집요하게 부정하고있었으나 심장은 이미 사랑의 불길로 타올라 더는 꺼버릴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것이다.

8

인간심리는 객관세계의 물질적생활환경을 반영하나 그자체는 비물질적존재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엄연히 존재해있으면서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않는것이다. 때문에 객관에서 보면 인간의 심리란 들여다볼수도 없고 기계로 재어볼수도 없다.

그러나 그것을 알수 없는것은 아니다. 그것은 행동에 반영된다. 인간심리가 그 행동에 여러모로 나타나기때문에 행동을 가리켜 심리의 거울이라고도 말하는것이다. 보이지 않는 심리는 오직 보이는 행동을 통해서만 볼수 있는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인공의 사상의식발전과정을 눈에 띄게 그려 내려면 그의 심리세계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문학적형상을 창조함에 있어서 그 심리도 언어나 그 내부에 대한 직접적묘사로써만 나타낼수 있는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통해서도 밝혀낼수 있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하나의 거동이나 표정이 심리의 변화를 말보다 몇배 더 정확히 풍부하게 표현할수 있다.

때로는 순간적으로 번뜩이는 시선이나 수줍은 미소가 더큰 마음의 걱정이나 환희를 표현할수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침묵이 천만마디의 말을 대신할수도 있는것이다.

태삼이가 렬차칸에서 자기의 새 초소인 탄광을

두고 괴로와할 때 옆의 애머머니가 탄광에 대하여 좋은 말을 해준것은 그에게 말할수 없는 기쁨을 안겨주었다. 그것은 흐린 하늘에서 쏟아지는 한줄기 햇빛같은것이였다. 그의 입술이 가만히 떨리였다. 기쁨때문에 가슴이 울렁인다.

《가만! 아주머니, 그 애를 내 줘 안아봅시다.》

그는 불쑥 애머머니에게 두팔을 내민다.

소설은 기쁨의 감정을 일일이 라렬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해한다. 그 기쁨의 크기가 어느정도인지, 왜 그가 아이를 안고싶어했는지 방금까지는 그저 울고보쳐서 시끄럽기만 했었다.

그러나 그 순간에는 그들만이 자기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들인것처럼 생각되였고 그들이 가장 반갑고 가장 정다운 사람들인것처럼 보였다.

심리의 표현을 그 행동과 표정 등에서 예리하게 포착해내는것은 심리묘사를 각방으로 심화시킬수 있게 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소설에서는 태삼이가 종업원회의연단에서 이 땅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선포했을 때의 장미의 심리를 응당 보여주어야 했으며 또 실지 보여주고있다.

독자들이 그때의 장미의 심정을 알고싶어하기 때문이다. 태삼의 토론을 장미는 어떤 심정으로 듣고있을가. 기뻐할가, 아니면 야속해할가. 무엇을 생각할가. 태삼이에 대한 고마움일가, 학범에 대한 원망일가.

그러나 소설은 그것들을 루루이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조용한 장내에 갑자기 <흑!>하는 흐느낌소리가 터지더니 장미가 어깨를 들먹거리기 시작했다. 흐느낌소리가 점점 더 높아졌다.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행복에 겨울 때에만 우는 그런 울음이었다.》라고 썼다. 여기서 묘사되고있는것은 장미의 울음 하나뿐이다. 글로는 다 표현할수 없는 벽찬 감정, 누구에게도 말 못할 마음속 사연이 그울음이 다 말해주고있었다.

9

인간심리의 거울은 그 마음을 드러냄에 있어서 대체로 정확하다. 그러나 간혹 그 거울에 비추인 의외한 모습이 찌그러져보이는 때도 있다.

고향에 갔다가 다시 탄광마을로 돌아왔을 때 태삼은 종합굴진기를 가지고 한번 본때있게 일해보지 않겠는가하고 하는 장미의 간절한 물음에 《뭘 같이 한단말이요? 난 인차 갈 사람이요.》라고 통명스럽게 말한다.

이 말은 태삼의 본심의 말은 아니였다.

사실 그는 남이 하지 않는 종합적기계화를 해보겠다고 힘에 부치는 일을 맡아나선 처녀가 측

은해보였고 동정심이 갔다. 또한 마음의 동요는 좀 있었다 해도 탄광에서 일하다가 인차 가리라고 마음먹었던적은 태삼에게 아직 없었다.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이 말은 그 누구들에 대한 일종의 반발심이였다. 말하자면 탄광에 대하여 좋지 않은 관점을 가진 사람들, 덕훈이 약혼녀의 어머니나 렬차칸에서 만났던 청년(후에는 이해한다.) 그리고 종합굴진기를 끌어내온 사람들이 바로 그 누구들인것이다.

때문에 그는 애매한 처녀에게 화풀이한것을 인차 좋지 않게 생각했고 마음속으로는 그것을 후회하였다.

이처럼 인간은 때로 마음속 지향과는 달리 말하거나 행동하는 경우도 있다.

마음으로는 비상히 중요하고 뜨거운 레컨대 처녀를 옆에 두고 사랑의 고백과 같은 말을 온넛을 기울여 토로하고있으면서도 실제 입으로는 왕창 같은 아주 평범하기 그지없는 말을 그것도 아무 의미도 없이 해버리고마는 경우가 있는것이다.

달밝은 봄밤, 룡천갱지름길을 걸어 집으로 오는동안 장미는 내내 태삼이를 생각하였고 그리워하였다. 금시라도 불쑥 자기앞에 나타나준다면 얼마나 기쁠것인가, 그러나 그토록 만나고싶었던 태삼이었지만 정작 만나게 되었을 때에는 《밤중에 여긴 뭇하러 왔어요? 전 만날 일이 없어요!》하고 숨한번 안쉬고 총알같이 내쫓았으며 문을 광 하고 닫아부치며 자기 집으로 들어가버리고말았다.

인간의 정신상태, 감정의 격동, 한마디로 말하여 녀의 운동과 그 전체과정을 전면적으로 깊이 있게 밝혀낸다는것은 간단치 않다. 탐구, 사색 또 탐구가 필요하다.

×

이상에서 우리는 중편소설 《병사의 고향》을 놓고 주체적문제이론이 밝혀준 제반원칙들에 립각하여 인간내면세계의 탐구와 그 묘사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를 언급하였다.

문학작품 특히 소설의 인간성격창조에서 심리묘사문제는 이처럼 근본적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문제로 되고있다.

우리는 문학작품창작에서 주인공을 비롯한 인물들의 내면세계를 진실하게 형상하는데 응당한 힘을 기울임으로써 우리 문학의 사상에술적수준을 더욱 높여나가야 할것이다.

세월은 흘러가도

김재규

사람들은 흔히 세월이 흐르면 체념과 망각의 너울속에 지난날을 잊어버리기 마련이라고들 말한다.

아마도 이것은 기나긴 세월, 보람없이 흘러보낸 생활을 두고 하는말인가싶다.

그러나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는 10년, 20년, 아니 30년이 흘러도 체념과 망각속에 안개처럼 사라지는것이 아니라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생생한 모습으로 안겨오는 생활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시대의 하루하루가 그만큼 값있고 보람차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라...

30여년전 미제침략자들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시기 중국인민지원군들이 《항미원조보가위국》의 성스러운 기치를 높이 들고 조선땅에 나와서 우리 인민들과 어깨걸고 싸우면서 남겨놓은 수많은 이야기들을 두고 그렇게 말할수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조중 두 나라 인민들은 오랜 기간 일제침략자들과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공동투쟁을 벌였으며 그 과정에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어왔습니니다.》

나는 지난해 가을 조중친선에 대한 주체의 새 작품을 창작하기 위하여 강원도의 전선지구 일대를 다녀왔다.

고산역에서 내려 버스를 갈아타고 높은 령을 넘어 전연지대로 나가는 나의 감회는 깊었다.

그것은 30여년전, 전화의 그날에 이 령을 넘어 전선지대에서 군사복무를 했다는데서만이 아니라 의로운 중국인민지원군동무들이 여기서 피를 흘리면서 싸웠다는데서 더더욱 그러하였다.

높은 령, 높은 산, 무수한 골짜기들과 들판마다에 중국인민지원군동무들이 남긴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깃들어있는것인가!

생각이 깊어질수록 나의 가슴은 더욱 세차게 들먹거리는것을 누를길이 없었다.

검실검실한 현무암절벽은 높고낮은 산과 들에 기둥처럼 뿌리를 깊이 박았고, 유유히 흐르는 북한강은 시퍼런 물결을 출렁이며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기슭을 치고있었다.

소슬바람을 안고 흐느적거리는 강물은 마치도 그 옛날 중국인민지원군동무들이 남긴 사연들을

소중히 간직하고있는듯 쉬임없이 속살거리고있다.

세포군 구읍리에 찾아갔다.

리당비서는 나를 관리위원회 위원장네 집으로 안내하였다.

《관리위원장 동무의 어머니인 함재복어머님을 만나보십시오. 전화의 그날, 어머니는 중국인민지원군 사령부로부터 <지원군어머니>라는 영예의 칭호까지 수여받았답니다. 많은 이야기를 들을수 있을것입니다.》

나는 흥분을 억제하면서 어머니를 기다렸다.

풍년열매 주렁진 과수원에 나갔던 재복어머니가 손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와 반가이 맞아주었다.

70고개를 넘었다는 어머니였다.

어머니의 머리엔 흰눈이 내린듯싶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오늘까지 로쇠를 모르고 사과나무를 가꾸고있다.

어머니의 안내를 받으며 안방으로 들어서는 순간 나는 잠시 어리둥절해졌다.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신 벽의 맞은편벽에 걸린 시뻘건 유리판을 액틀에 넣어서 만든 현관이 한눈에 안겨왔다.

현관에는 《지원군어머니》라는 글발이 금박으로 새겨져있었다.

그 현관밑에는 조그마한 사진액틀이 하나 걸려있는데 거기에는 중국인민지원군동무들과 함께 함재복어머니와 아이들이 서로 다정하게 찍은 한 장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나는 현관과 사진액틀을 번갈아 올려다보다가 어머니에게 시선을 보냈다.

《어머님, 지난 전쟁시기 어머님은 참 잘 싸웠습니다. 저 현관은 조중친선의 상징으로 오래오래 걸어두고 보아야 하겠습니까.》

조국이 시련을 겪고있던 전화의 그날을 너무나도 잘 알고있었기에 나는 어머님이 체험했을 생활을 그리며 말했다.

《전화의 나날에 내가 싸웠으면 얼마나 싸웠겠소. 수고야 저 지원군동무들이 많이 했지요. 지금도 눈을 감으면 30여년전 그날에 지원군동무들이 피흘리며 싸우던 모습이 삼삼해옵니다.》

그렇게 싸우면서도 사람들이 얼마나 인정깊고 짹짹하고 정다웠던지... 정말 그 사람들이 그림속

니다. 내가 죽어서 이 눈에 흙이 들어간들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머니는 이슬이 그러한 눈을 들어 사진앨범속을 들여다보면서 말을 이어나갔다.

《저기 내곁에 앉아있는 처녀가 양소군이라는 간호원이구 그 뒤에 우리 큰아들과 나란히 서있는 청년이 리위라고 하는 지원군군의라우.

우리 마을 저 골짜기에 지원군야전병원이 자리 잡고있었는데 저 사람들은 우리 일가의 생명의 은인들이랍니다.》

릿치웨이 《추기공세》가 한창이던 1951년 가을 미제침략군은 전선과 후방에 폭격과 포격을 들썩우며 갖은 발악을 다하고있었다.

전선에서 멀지 않은 이 마을도 불바다속에 잠겼었다.

놈들은 세균무기까지 사용하여 전선의 아군군인들과 후방인민들을 굴복시키려고 하였다.

이곳 인민들도 폐외로 될수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리어 신음하고있었다.

함재복어머니네의 세 아이들도 한시에 전염병에 걸려서 고열에 신음하고있었다. 적항공기들의 맹폭격으로 집에는 들어가지 못한채 병든 아이들이 한지에서 덜덜 떨며 신음하고있었다.

이러한 때 중국인민지원군 야전병원의 리위군의와 양소군간호원이 와서 진찰을 하더니 위급하다고 하면서 즉시 세 아이를 돌쳐업고 병원으로 달려가 입원시켜주었다.

함재복어머니도 세 아이들과 함께 입원해서 예방치료를 받으며 간호를 하게 되었다.

야전병원 집단의 성의있는 치료와 사랑어린 간호에 의하여 아이들도 한달이 좀 지나서 완치되었다.

어머니는 지원군동무들의 은정을 잊을수가 없었다.

함재복어머니는 병원가까이에 있는 자기네 집을 지원군야전병원 입원실로 내놓고 그길로 담가대에 들어가 전선으로 달려나갔다.

전선담가대에 동원되었던 어머니의 남편도 그 소식을 듣고 지원군부상병들을 후송하는데 자기의 정성과 열성을 다 바쳤다.

그러던 어느날, 어머니의 남편이 지원군인들이 지켜싸우는 상감령 고지에까지 올라가 부상병을 담가에 싣고 들어오던중 적비행기의 폭격을 당하는 위기일발의 순간 지원군군인을 몸으로 막아 구원하고 희생되었다.

남편이 희생되었다는 비보를 받아안은 함재복어머니는 눈물을 삼키며 결연히 일떠섰다.

남편이 들었던 담가를 그대로 물려받은 어머니

는 불사조마냥 불타는 고지로 달려나갔다.

담가를 들고 상감령에 오르내리는 여가여가에 어머니는 쿵을 망질하여 앗은 두부와 버를 절구에 찼어 지은 밥을 고지에 날랐을뿐아니라 수많은 군복까지 세탁하였던것이다. 진정 이 모든것을 다 해야될수 없다.

실로 중국인민지원군들을 위해서 바친 함재복어머니의 지성은 끝이 없다.

하기에 중국인민지원군 사령부는 1958년 가을 철거함에 앞서 함재복어머니에게 《지원군어머니》라는 영예의 칭호까지 안겨주었던것이다.

그날 리위와 양소군은 어머니앞에 인사를 올리며 말했다.

《어머니, 수고많았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수고를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들아 그런 섭섭한 말 그만두라구. 자네들이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그런말을 하면 정말 섭섭하네. 내 어머니로서 조국을 수만리 떨어져서 조선에 나와 피흘리며 고생하는 임자들을 위해 한 일보다 못한 일이 더 많네.》

함재복어머니는 그날을 추억하며 눈물을 머금고 말을 이었다.

《세월은 가도 날로 두터워지는것이 사람들의 의리인가봅니다.

30년 세월이 흘렀지만 중국인민지원군동무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그 사람들이 그리워집니다.

그 의롭고 정다운 사람들도 우리를 영원히 잊지 못할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잊지 못하듯이.》

나는 어머니의 곁을 떠나 김화군의 리유머어머니, 평강군의 최장태어머니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한결같은 심정을 읽었다.

아니 이 감정은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감정이었다.

항일혈전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개척하시고 발전시켜오신 조종친선은 반미전선에서 더욱 두터워졌고 오늘 날을 따라 공고화되고있다.

지난해 가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중국을 공식국가방문하시고 호요방, 등소평동지들이 조선을 방문함으로써 조종친선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되었으며 올해에 들어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중국을 방문하심으로써 조종친선은 더욱 활짝 꽃을 피우게 되었다.

함재복어머니와 조선의 모든 어머니들이 아름다운 마음으로 추억하고있는 중국인민지원군들에 대한 친선의 감정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두터워질것이다.

조종친선이여 무궁하라!

기슭을 떠나며 외 1편

신병윤

우리 어로선단이
먼 바다로 떠난다
내 안해가 정답게 손저어 바래주고
꽃같은 조무래기들속에
내 아들녀석 환송의 주악소리
높이 울리니

선장도 갑판장도 싱글벙글
온통 기슭은 꽃물결로 설레이는데
생각이 나오
내 어릴적 시절이

가지 말아요
가지 말아요
내 아버지 먼 바다로 떠날 때
소매깃 부여잡고
내 어머니 설움에 통곡하더니
어찌 알았겠소
그날의 그 리별이 마지막일줄

내 이제사 알겠소
먼 바다 출항의 날
그 누가 잘가라 기슭에서 환송을 하던
큰 재난 온다는
바다사람들의 그 옛날 격언을

살아서 돌아갈길 바이없는
기막힌 정상앞에
눈물로 배웅할바엔
차라리 아니 보는편 나으리라
그 누가 이런 말 했으리

어디 사람값에나 들었겠소
춘하추동 사시절
먹는것이 사자밥이요
자는곳이 칠성판이던
우리 어로공들이사

눈물이 앞을 막는구려
쪽배아닌 산갈은 기제배타고
바다로 나가는것은
우리 어로공들의 더없는 기쁨이온데
떠날 땐 떠난다고
돌아올 땐 돌아온다고
그때마다 이런 꽃바다이니
차마 목이 메어서 말못하겠소
금별의 위훈세운 영웅도 수훈자도 아닌
평범한 우릴 위해
축하의 꽃다발 안겨주는
한없이 뜨거운 조국의 이 사랑에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저리도 다정한 인사조차
무서워 말못하던 원한의 그 세월
조국이 없는 이 기슭에선
어머니 사랑이 없는 이 기슭에선
고아의 설움안고 나가는 출어의 그날이
날바다에서 죽음과 같았소

한번 나가면 만경창과우에
쪽배타고 표류하다 산산깨여지는
우리 어로공들의 생명을
아 그 누가 구원해주었겠소
그 어디에 우리네 어로공들
인생의 닳을 내릴 기슭이 있었겠소

허나 오늘은
기다리는 사랑 여기 다있고
품어줄 사랑 여기 다있어
언제나 만선의 기쁨안고 웃음안고
조국이 안겨주는 축복의 꽃보라속에
천번이고 만번이고
내 다시 돌아오는길

내 이제 이 기슭을 떠나

만리대양 간다 해도
나의 운명 지키여주고 보살펴주는
어버이수령님과 당의 다함없는 사랑
깔려가기에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이 기슭의 꽃보라속 축복의 인사
어머니조국의 사랑의 노래인양
내 만리대양의 배길에
가슴가득 안고 가오
눈물의 기슭을 사랑의 기슭으로
바꾸어준

어버이수령님과 당의 사랑
천만년 무궁토록 꽃피날 기슭이어서
이 기슭엔 이렇듯
사랑의 꽃보라 사시절 피는것이라도

태어난 기슭은 있어도
한치의 발붙일 땅이 없어
사나운 파도속에 목숨거둔
그아버지의 그 아들이
축복의 꽃밭길을 가오
사랑의 기슭을 떠나오

운반선이 왔다

어창이 넘쳐날가 걱정했더니
제때에 왔구나
새로 나온 신문이며 화보를 안고
운반선이 왔구나

고향의 흙냄새
안겨주는 편지마다 물씬 풍겨오고
기쁜소식 새소식 가득 실고서
운반선이 왔구나
한달에 한번씩은 오가는

운반선이건만
늘쌍 좋더라
이렇게 운반선이 온 날이면
그때마다 기쁨은 파도처럼 설레이니

해도 기뻐서인가
축복의 정다운 해살 눈부시게 뿌려주고
너울너울 갈매기는
검푸른 파도우에 춤춘다
끝이 있을상싶지 않구나

한껏 웃고 떠드는
운반선원들과 어로공들의
저리도 다정한 이야기

아, 운반선 운반선
륙지와 바다를 하나로 이어주는
우리 어로공들의 기쁨아
내 조국의 사랑아

네가 있기에
층층 하늘높이 쌓아가는 고층건물들
땅에 무겁도록 설레이는 황금나락
쌓아가는 고기산의 높이에 비추어보며
내조국의 바다는 만선으로 들끓거니

보람찬 창조적로동으로 전진하는
내 조국의 속도를
풍성한 식탁으로 받드는
이내 어로공들의 가슴에
운반선아
너는 언제나 더큰 힘의 발동을
걸어주는구나

충성의 열정 굵이치는 일터

-평양종합방직공장 4직포직장을 찾아서-

한원군

마가울의 하늘은 맑고 푸르다.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7차전원회의결정 관철에
떨쳐나선 평양종합방직공장을 찾아가는 우리의
마음도 마냥 설레인다.

혁명의 수도 평양의 한복판을 유유히 흐르는
대동강기슭에 웅장하게 일떠선 주체의 옷감생산
기지-평양종합방직공장!

둘러보면 10여리 넓은 부지가 공원처럼 꾸려졌
고 귀기울이면 이 땅의 이 행복한 숨결같이 은실
금실 오색무늬 꽃비단이 폭포처럼 쏟아져내리는
소리가 들려오는듯하였다.

우리가 뜨거운 마음을 안고 들어선 공장구내길
은 마침 교대시간이어서 방직공들로 붐비었다.

전교대실적을 알리는 방송원의 열기 띤 목소
리.

어디선가 북을 치고 팽파리를 울리며 아버지,
어머니들의 전투성과를 축하하는 소년단원들의
힘찬 노래소리.

《모든 힘을 15억메터의 천고지점령에로!》, 《당
은 부른다 모두다 <80년대속도>창조에로!》라는
구호의 굴발들,

그리고 혁신적성과들을 소개하는 속보판들.

그야말로 부글부글 들끓는 불도가니속에 들어
선듯싶었다.

언제나 당과 수령의 부름이라면 절벽강산이라
도 머뭇길 불같은 열정을 안고 내달리는 조선로
동계급, 수도의 방직공들의 숨결이 맥맥히 안겨
왔다.

그중에서도 집단적혁신을 일으켜 매일 옷감생
산계획을 130%이상 넘쳐수행한다는 영예의 3대
혁명붉은기 4직포직장 전투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우리는 안내하는 동무로부터 4직포직장이 전국
적으로 영예의 3대혁명붉은기를 제일 먼저 쟁취
한 단위의 하나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이 직장 현
장에 들어섰다.

순간 우리는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아득히 펼쳐진 직기바다!

수천대의 직기들이 찰칵찰칵 고르로운 동음을
울리며 하나같이 돌고돈다.

빨간 머리수건을 날리며 직포공들이 갈매기처
럼 직기사이를 날아돈다.

기대마다 만부하다. 누구나 뛰고 달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
시하시였다.

**《방직공업부문에서 일하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
자들은 인민들에게 질 좋은 옷을 해입힐데 대한
당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려
야 하겠습니다.》**

머리에 흰서리가 내린 애기어머니작업반의 로
력영웅 김정순작업반장은 우리 손을 힘있게 잡아
쥐며 격동된 음성으로 말하였다. 《15억메터의 천
고지는 문제없습니다. 지금에 비하여 모든것이
불비했던 전시에다 지하방직공장에서 전시생산을
보장했고 전후 3개년인민경제계획과 5개년, 7개
년, 6개년 계획도 다 넘쳐수행했는데 오늘 이 조
건에서 15억메터가 무슨 큰 문제겠습니까. 정말
수령님께서 바라시는것이라면 무엇인들 못해낼
일이 있겠습니까!》

한생 비단으로 당과 혁명을 반들어온 오랜 혁
명가-영웅직포공의 이 말은 우리의 가슴을 뜨겁
게 하였다.

정전은 되었지만 아직은 학교가는 아이들이 맨
발로 트랙을 나르고 인민들의 어깨우에는 포연서

린 헌옷이 그대로 걸쳐있던 전후의 어려운 시기, 방직공장을 찾아오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아직 단발머리 달짝이신 애 어린 처녀였던 그들에게 방직공들의 어깨우에는 온 나라 인민들의 새 옷감을 마련해야 할 무거운 혁명임무가 지워졌다고 하시면서 20년, 30년 공장의 주인이 돼서 좋은 비단천을 많이 짜내라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아이들이 있는 애기어머니들을 위해서는 작업반을 따로 무어주고 로동정량도 고쳐주어 아이들을 키우며 가정생활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라고 하시었다.

참으로 세상엔 녀성로동자들도 많지만 애기어머니들을 위하여 작업반을 따로 조직해주시고 아이들의 젖먹이시간을 고려하여 로동정량까지 새로 제정해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일하는 우리 방직공들보다 행복한 녀성로동자들이 또 어디있으랴.

하기에 그날로부터 아이들이 하나 둘 늘어나도 불편을 모르고 해마다 년간계획을 넘쳐수행하여 왔으며 이제는 머리에 흰서리가 내렸어도 50년대 그때처럼 80년대의 진군길을 드팀없이 이어가는 이들이었다.

이들의 곁에는 공장에 들어온지 2~3년안팎의 애젊은 처녀들이 얼굴에 꽃같은 웃음을 띠우고 청실홍실 누버가며 비단필을 수놓고있었다.

우리는 안내하는 동무로부터 이들이 바로 공장에서 제2차 7개년 작업반천생산계획을 제일먼저 끝낸 윤춘화청년작업반원들이라는것을 알았다.

춤추는 무용수들이라 할가 금강에 내린 선녀들이라 할가 젊음이 약동하고 생기넘치는 그 자태, 날아갈듯한 몸매, 천짜는 그 모습 눈여겨 볼라치면 수집은듯 얼굴을 붉히며 끝없이 순회길을 이어가는 이들이야말로 방직을 예술로 꽃피워가는 진정한 예술인이 아니라.

윤춘화동무는 강순화, 안명숙, 리옥실동무를 비롯한 절반이상의 작업반원들은 공화국창건 35돐 기념일전에 년간계획을 150%이상 넘쳐수행하고

계속 혁신하고있다고 자랑하면서 말을 이었다. 《우리는 어버이수령님께서 2억5천만메터의 비단 무지개를 이땅에 펼쳐주실 때 태어난 새세대들입니다. 4억메터, 5억메터, 6억메터...해마다 늘어나는 비단필에 싸안기여 자라난 우리들인데 15억메터 천고지를 앞당겨 점령할데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부르심에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주체섬유의 특성에 맞게 설비를 개조하고 새로운 작업방법을 탐구하여 비날론고급양복천생산에서 전국의 앞장에 설 결심입니다.》

감동없이 들을수 없는 말이였다.

공장 첫 조업을 하던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20년 30년 방직전선을 지켜온 로세대직포공들과 2억5천만메터 천고지가 펼쳐지던 60년대에 태어난 새세대직포공들이 한마음한뜻이 되어 15억메터 천고지 점령에 떨쳐나섰던것이다.

직포공들의 양양된 열의에 보조를 맞추어 수리공들도 분발하였다.

수리공들은 예방보수, 부문보수를 기술적요구에 맞게 정상적으로 할뿐아니라 직기회전수를 높이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쓴다.

김기하, 김상순동무들을 비롯한 《4.15기술혁신돌격대》원들은 비날론고급양복천생산에 맞게 직기의 모든 공정들을 완비하는 한편 복교환자동장치 완성을함으로써 직기회전은 종전에 비하여 8~12%, 설비리용률은 10% 더 높여 직장적으로 매달 4,000~5,000메터의 비날론양복천을 증산하게 하였다.

작업현장의 여기저기에 《우리 직장의 최관배아바이》, 《월미도의 영옥이처럼》, 《락원의 10명당원들처럼 살자!》 등등의 제목을 단 속보들과 영예게시판의 혁신자사진들만 보아도 우리는 당과 혁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친 영화의 주인공들처럼 당의 결정지시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고야 말 방직전사들의 신념과 투지와 기세를 짐작할수 있었다.

《정말 직포공들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모든 직포공들의 양양된 투쟁모습을 보고 감탄

해하는 우리에게 직장장 김록균동무는 말하였다.

《지금 상태로 나간다면 년말까지 우리 직장에 서만도 100만명의 어린이들에게 옷을 해입힐수 있는 천을 더 생산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 《26호선반을 따라배우는 충성의 모범기대 창조운동》의 불길높이 직장의 모든 설비를 모범기대로 꾸리고 설비관리사업에서 일대 전환을 이룩하겠다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전교대에서 짜서 쌓아놓은 천필무지앞에 발걸음을 멈추었다.

눈송이처럼 하얀 샤쓰천, 보기에도 탐탁한 여러가지 양복천, 안감천, 장식천이 모두 우리의 주체원료인 비단론실로 짜졌다고 생각하니 저절로 마음이 흐뭇해 지는것이였다.

여기서 쏟아져내린 천들이 온 나라 방방곡곡으로 실려가 사람들의 가슴속에 기쁨을 안겨주고 웃음꽃을 피워준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이 자리를 뜨고싶지 않았다.

수도의 백화점매대로부터 머나먼 산촌마을 집집의 옷장마다 차고넘치는 갖가지 천필들과 옷들을 두고 어른아이 할것없이 철따라 철에 맞는 옷들을 골라가며 입고사는 우리 인민의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두고 우리의 생각도 깊어간다

파연 어느때부터 변변한 직물공장 하나였던 이 강산우에 현대적인 옷감공장들이 수풀처럼 일떠

서고 가난과 빈궁에 허덕이던 우리 인민이 옷걱정모르는 행복한 인민으로 되었던가.

그것은 이땅우에 새 조국 건설이 시작되던 해방직후 어버이수령님께서 주체방직공업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신 그때부터였다.

세월은 멀리 흘러 이제는 토스레웃과 베잠뱅이가 옛말로 되고 우리모두가 입고사는 근심걱정을 모르건만 하나를 주시고는 열을 더 주고싶어하는 친부모의 심정 그대로 15억메터의 비단무지개를 또 펼치시여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잘 입혀주시려는 어버이수령님, 그 사랑, 그 은정을 오리오리 날실에 담아 비단필에 수놓아가는 직포공들일진대 어찌 그들의 일손에 불이 일지 않으며 신바람나지 않으랴.

우리는 평양종합방직공장의 로동계급이 이미 거둔 성과에 조금도 자만함이 없이 계속혁신, 계속전진하여 15억메터의 천고지점령에서 반드시 돌파구를 열어제끼리라는 확신을 안고 공장을 떠났다.

그렇다, 세월을 앞당겨 미래를 쫓피우시는 어버이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높은 뜻을 받들어 온 나라를 비단필로 단장해가는 수도의 방직공들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충성의 꽃을 계속 활짝 피울것이다.